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10
사무엘하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사무엘하

2 Samuel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
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22:51)

מְגִדֵּל יְשׁוּעוֹת מֶלֶכּוֹ וְעָשָׂה חֶסֶד לְמֹשִׁיחוֹ
לְדָוִד וּלְזָרְעוֹ עַד-עוֹלָם :

사무엘하 차례

사무엘하 서론	〈11제〉	487
제 1 장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애도	〈22제〉	491
제 2 장 다윗의 귀국(歸國)과 아브넬의 반역	〈22제〉	497
제 3 장 다윗의 번영과 아브넬의 피살	〈25제〉	503
제 4 장 이스보셋이 암살되다	〈12제〉	510
제 5 장 다윗이 전(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28제〉	514
제 6 장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21제〉	521
제 7 장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다	〈19제〉	527
제 8 장 다윗의 영토 확장	〈11제〉	532
제 9 장 다윗이 사울의 집을 후대(厚待)하다	〈15제〉	536
제 10 장 다윗이 암몬 사람을 물리치다	〈13제〉	540
제 11 장 다윗의 범죄	〈15제〉	544
제 12 장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21제〉	549
제 13 장 암논의 근친 상간(近親相姦)	〈17제〉	555

제 14 장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19제〉	561
제 15 장	압살롬이 반역하다	〈21제〉	567
제 16 장	다윗의 도피 생활과 압살롬의 범죄	〈12제〉	574
제 17 장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하다	〈15제〉	578
제 18 장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비통	〈17제〉	583
제 19 장	전투의 종결과 다윗의 환궁	〈14제〉	588
제 20 장	이스라엘을 거느린 세바의 반란	〈9 제〉	593
제 21 장	사울의 후손을 처형하다	〈12제〉	601
제 22 장	구원을 감사하는 다윗의 노래	〈12제〉	601
제 23 장	다윗의 마지막 말과 용사들의 공적	〈16제〉	606
제 24 장	인구 조사와 역병(疫病)	〈17제〉	611

사무엘하 특별 자료 차례

사무엘하 서론 〈연구 자료〉	본서와 역대상 간의 기록상 차이점에 관하여	490
-----------------	----------------------------	-----

제 1 장	〈화보 자료〉	금으로 만든 팔찌	496
제 3 장	〈화보 자료〉	헤브론	509
제 4 장	〈연구 자료〉	므비보셋과 이스보셋의 관계	513
제 6 장	〈화보 자료〉	법궤 앞에서 춤추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526
제 8 장	〈지도 자료〉	다윗의 하닷에셀 (Hadadezer) 정벌	535
제 10 장	〈본장의 요절〉	543
제 11 장	〈연구 자료〉	다윗의 범죄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	548
제 12 장	〈본장의 요절〉	554
제 13 장	〈화보 자료〉	통곡하는 여인들	560
제 14 장	〈본장의 요절〉	566
제 15 장	〈화보 자료〉	말〔馬〕과 병거	573
제 17 장	〈본장의 요절〉	582
제 18 장	〈본장의 요절〉	587
제 19 장	〈본장의 요절〉	592
제 20 장	〈연구 자료〉	성경적 국가관	596
제 22 장	〈화보 자료〉	망대와 파수군	605
제 23 장	〈화보 자료〉	돌는 해	610
제 24 장	〈본장의 요절〉	615

사무엘하 서론

1. ㉠ 본서의 제목과 기타 서론적 내용들을 설명하라.

㉡ 삼상 ㉠ 1-9를 참조하라.

2. ㉠ 본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 (1)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본서의 내용은 영광과 수치가 엇갈린 다윗 왕가의 일대기로 쥘어져 있다.

(2) 다윗 통치의 훌륭한 장면은 여부스족이 가나안 땅 최후의 보루(堡壘)로서 자랑하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로 삼은 것이다(5:6-12).

(3) 또한 탈취한 예루살렘을 종교적 본산(本山)으로 정하고 이름을 시온이라 칭하여 민족의 단합을 유도한 것이다(5:7; 6:1-17).

(4) 더우기 7:12-16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영원토록 견고케 하며 또한 메시아의 출현이 있을 것을 예시한 것이다.

(5) 그러므로 사무엘서는 단순한 역사서라기보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복음서라 할 수 있다.

(6) 그리고 23:1-7의 다윗의 마지막 노래 역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가(讚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준다.

(7) 마지막으로 본장은 다윗의 놀라운 믿음과 함께 연약한 인간성도 말해 주고 있다.

(8) 즉 밧세바와의 부끄러운 범죄와 인구 조사를 실시한 실수가 그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회개하고 다시 바른 신앙을 회복한 그의 승리의 생애는 모든 세기를 통해 귀감이 된다.

3. ㉠ 본서의 기본 사상은 무엇인가?

㉡ (1) 본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역사(役事)하시며 메시아가 태어날 민족을 예비시킨다는 사상이 들어 있다.

(2) 그러므로 본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다윗의 생애는 인간의 구원과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교훈을 보여 준다.

(3)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 특히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져 나간다.

(4) 또한 본서가 가르치는 범죄의 비참성은 창3장 다음으로 취급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다.

(5) 즉 사울의 비참한 말로(末路)는 그의 범죄와 연결되며, 이스라엘 왕국의 실질적 설립자인 다윗의 생애에서도 범죄와 그 보응은 확실히 나타난다.

(6)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흐름에서 변치 않는 사상은 인간의 구원 완성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른다는 것과 범죄와 회개의 회비 곡선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4. ㉠ 본서의 부수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 (1) 부수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윗의 일생이다.

(2) 본서에는 그의 덕과 장점 뿐 아니라 그의 죄악도 숨김없이 기록되었다.

(3) 특히 다윗은 비록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그 후 그의 태도에서 다른 사람과의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4) 즉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 철저한 회개를 하였던 것이다.

(5) 다윗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었다.

5. ㉠ 본서에서 다윗의 위치를 약술하라.

- ㉡ (1) 본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2:4,7;3:39;5:3,17)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위치에 있음을 보여 준다.
- (2) 다윗은 인간으로서 실수도 많았고, 따라서 자기 죄 때문에 당한 피로움도 많았으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깊은 체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2:1;5:3;6:16-21;7:18;8:6-14;12:16;15:25,26;16:12;21:1;24:17,24,25).
- (3)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 제도(王政國家制度)는 사울 시대부터였지만 이스라엘 왕국이 가나안 땅에서 명실 상부한 국가 조직을 갖추게 된 것은 다윗 시대부터이다.
- (4) 다윗이 건설한 이스라엘 왕국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구속사적 견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참조, 사11:1-10;암9:11).

6. ㉠ 사무엘서 전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원시 종교의 형태를 지적하라.

- ㉡ (1) 거룩한 돌들(삼상 4:1;6:14;14:33)
- (2) 거룩한 나무들(삼상 10:3;14:2;17:2;22:6)
- (3) 거룩한 산들(15:32;삼상 10:5)
- (4) 피의 복수(4:27;14:7,11)
- (5) 금계, 타부(11:11;삼상 21:4)
- (6) 맹세(삼상 14:24)
- (7) 화해제(삼상 26:19)
- (8) 무당, 마술(삼상 28장)

7. ㉠ 본서와 역대기는 동일한 사건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서로 비교하라.

㉡

비교 대상	사무엘하	역대상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의 죽음	삼상 31장	10:1-12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됨	5:1-3, 6-10	11:1-9
다윗의 법궤 운반 실패	6:1-11	13:1-14
다윗의 아들들 블레셋 격파	5:11-16, 17-25	14:1-17
다윗의 법궤를 시온으로 옮김	6:12-23	15, 16장
다윗의 성전 건축 금지	7장	17장
다윗의 정복 사업	8장	18장
암몬 정복	10장	19장
다윗이 랍바를 종으로 삼음	11:1;12:26-31	20:1-3
3차에 걸친 블레셋 원정	21:18-22	20:4-8
다윗의 용사들	23:8-39	11:10-47
인구 조사한 다윗의 죄	24장	21장

8. ㉠ 사무엘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떠한 분으로 묘사되었는가?

- ㉡ (1) 본서에서 여호와와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으로 나타났다(3:18;5:2,12;삼상 9:16).
- (2)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며 그들이 여호와에게 도우심을 호소할 때 구원하신다(삼상 9:16).

- (3)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주인이시다(삼상 17:45). 즉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5:20, 24; 삼상 17:4).
- (4) 이스라엘의 적은 곧 여호와의 적이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투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삼상 25:28).
- (5)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 행하는 것을 제지하신다(삼상 25:26).
- (6) 그의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절대 복종이 불가피하다(15:25, 26).
- (7) 모든 과오는 여호와에게 대한 죄가 되는 것이며 그에게 마땅히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된다(12:9, 13; 24:10).
- (8) 여호와의 영은 실로 힘과 영감의 근원이다(삼상 10:6; 11:6).

9. **㉠** 본서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라.

- ㉡** (1) 사울가(家)의 몰락과 다윗의 즉위/1-8장
- (2) 다윗의 궁중에서 일어난 사건들/9-20장
- (3) 다윗 통치의 종말 기록/21-24장

10.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다윗의 즉위/1:1-5:6
 - 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가/1:1-27
 - ②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된 다윗/2:1-7
 - ③ 민족 통일을 위한 노력/2:8-4:12
 - ④ 통일 민족의 왕이 된 다윗/5:1-6
- (2) 다윗의 왕권 확립/5:7-6:23
 - ① 예루살렘에 세워진 정부/5:7-25
 - ② 예루살렘에 모신 하나님의 궤/6:1-23
- (3)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간구/7:1-29
 - ① 다윗의 요청/7:1-3
 - ② 하나님의 응답/7:4-29
- (4) 다윗의 정벌 사업/8:1-10:19
 - ① 블레셋, 모압, 소바, 수리아, 에돔을 물리치다/8:1-18
 - ② 트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다/9:1-13
 - ③ 암몬을 물리치다/10:1-19
- (5) 다윗의 범죄/11:1-27
 - ① 밧세바와 간통하다/11:1-13
 - ②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謀殺)하다/11:14-27
- (6) 다윗 왕국의 갈등/12:1-20:26
 - ① 나단 선지의 경고와 다윗의 회개/12:1-31
 - ② 암논의 근친 상간/13:1-39
 - ③ 압살롬의 반란/14:1-18:33
 - ④ 나라의 혼란/19:1-39
 - ⑤ 왕국의 혁신/19:40-20:26
- (7) 다윗의 만년(晩年)/21:1-24:25
 - ① 흉년과 다윗 자손에 대한 기브온 사람의 보복/21:1-14
 - ② 블레셋과 다시 전쟁하다/21:15-22
 - ③ 다윗의 찬양시/22:1-51
 - ④ 다윗의 유언/23:1-7

⑤ 다윗의 용사들과 그 행적들 / 23:8-39

⑥ 인구 조사와 역병(疫病) / 24:1-25

11. ㉠ 본서의 요철은 무엇인가?

㉠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22:51).

연구자료

본서와 역대상 간의 기록상 차이점에 관하여. 본서와 역대상은 모두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본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 이후 확립되는 다윗 왕국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이후의 인물들에게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족보와 다윗 치세하에서 재정립된 제사 제도에 주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책에는 어느 한 책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다른 한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이후 법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웃사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본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역대상(13장)에는 나와 있다. 이는 다윗이 법궤 운반에 대한 모세의 율법 곧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 규례(참조, 신 10:8)를 어긴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것으로서 역대상이 이스라엘의 올바른 제사 제도 확립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본서에는 역대상에 나와 있지 않은 다윗의 범죄 사실이 적나라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간음과 살인 행위이다(11장). 내적으로는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룩하고 외적으로는 정복 사업을 펼쳐 나가던 때에 다윗은 그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으니 이후 다윗 왕국은 왕자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크나큰 위기를 겪게 된다. 그러나 그 즉시로 회개할 줄 안 다윗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왕국의 평정을 가져 온 궁극적 동인(動因)이 되었다. 이처럼 역대상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본서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 왕국의 확립이 인간 다윗의 수완에 의해 성취된 업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의해 이룩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려는 데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22장).

제 1 장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애도

번역주본: 7: 17-18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시방 초식을 가져오다 / 11: 16 다윗이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을 죽이다 / 17: 27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弔歌)

1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름을 유하다니

2 제 삼 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집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매

3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4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5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6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자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7 사울이 뒤로 돌아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8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9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 왔나이다

11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13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14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16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17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19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0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21 길보아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 낼 발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됴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 같이 됴이로다

22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풀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3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4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25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27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1. **㉠** 본장에서 느낄 수 있는 다윗의 인간됨은 어떠한가?

- ㉠** (1) 본장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전사(戰死)한 직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더불어 그 사건에 대응하는 다윗의 태도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 (2)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전하여 준 아말렉 사람을 도리어 처형하였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나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부른 다윗의 애가(哀歌)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훌륭한 인격을 발견할 수 있다.
- (3) 자기의 정적(政敵)이 권력을 장악하고 견제해 있을 때에 잠잠하던 사람도 막상 상대방이 실각하거나 죽고나면 온갖 악평과 모함으로 그의 인격을 칠몰시키기 마련이다.
- (4) 그러나 다윗은 철저한 겸손과 믿음으로 초지 일관(初志一貫)하고 있으며 결국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성군(聖君)이 될 수 있게 하였다.
- (5) 이러한 다윗의 부상(浮上)은 이스라엘 왕국사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敎贖史的)인 입장에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다.

2. **㉡** 본장은 어떤 말로 시작되고 있는가? (1절)

- ㉠** (1) '사울의 죽은 후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
- (2) 이 귀절은 사무엘상과 하를 훌륭하게 연결시켜 주는 적절한 표현이다.
- (3)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 (4) 사실 구약 성경의 역사서(歷史書) 중 상당수가 그 서두를 '...가 죽은 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참조, 수1:1; 사1:1; 왕하1:1).
- (5) 따라서 사무엘상과 하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귀절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것은 현명한 방법이었다.

3. **㉢** 사울 진(陣)에서 구사 일생(九死一生)으로 살아나온 아말렉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1, 2절)

- ㉠** (1) 그의 옷은 찢어진 상태였고 머리에는 흙을 덮어쓰고 있었다(2절).
- (2)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는 것은 슬픔의 일반적인 상징이다(참조, 수7:6; 삼상4:12).
- (3) 특히 옷을 찢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과 참을 수 없는 슬픔을 표시한다.
- (4) 그 외에도 자신의 슬픔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금식, 굶은 베포 착용, 허리에 굶은 베를 띠는 것 등이 있었다(참조, 창37:34; 삼상31:13; 왕상21:27; 시35:13).
-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자신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자의 기도와 슬픔에 동참하신다(참조, 2:13).

4. **㉣** 사울진(陣)에서 패배의 소식을 안고 달려왔던 아말렉의 보고는 사실이었는가?(3-10절)

- ㉠** (1) 이 아말렉 사람의 보고는 삼상31:3-6의 기록과 맞지 않으며 명백히 위조된 것이다.
- (2) 사울은 실제로 자결하였으나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을 죽였다는 인정과 보상을 원했던 것이다.
- (3) 이처럼 욕심은 모든 진실을 허물어 버리고 그 위에 거짓을 건축하여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 든다.
- (4)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버리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와 같다(15절; 잠21:28).
- (5) 오히려 자신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자의 특징이다(잠13:5; 갈1:10; 엡4:25).

5. **㉤** 사울을 죽였다고 위증(僞證)한 아말렉 사람은 그 증거로 무엇을 제시하였는가?(10절)

- ㉠** (1)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팔고리)를 제시하였다.

- (2) 이것은 전쟁에 참여할 때 착용하고 다녔던 사울의 왕권을 표시하는 장신구였다.
- (3) 그가 이러한 장신구를 다윗에게 제시한 것은 이제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행동이었다.
- (4) 이처럼 그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인 동시에 지나친 아부(阿附) 근성을 가진 자였다.
- (5) 그러나 '하나님 의식'이 있는 자에게는 기회나 아부를 통한 자기 출세를 피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6. **Q** 다윗과 그 함께 한 자들이 슬피하며 금식한 이유는 무엇인가? (11, 12절)

- A** (1)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 전사(戰死)했기 때문이다.
- (2) 자기를 해치려던 자의 죽음을 슬피했다는 것은 다윗이 참 사랑을 가졌다는 증거이다.
- (3)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서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며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넣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슬피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마 23:37; 눅 19:41).
- (4) 이와 같이 이웃의 환난에 깊은 연민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 가는 일이 된다.

7. **Q**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과 백성의 죽음에 대해 슬피한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11, 12절)

- A** (1) 먼저 그가 슬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극진히 사랑하였음을 보여 준다(참조, 14절).
- (2) 즉 그는 사울의 죽음이 단순히 한 개인의 멸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슬피하였다.
- (3) 두번째로 그의 생명만큼이나 사랑한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이다(삼상 18:1).
- (4) 마지막으로 그는 희생된 자기 동족을 생각하며 슬피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이스라엘의 군병들이었다.
- (5) 이와 같이 우리의 슬픔 중에 가장 고상한 슬픔은 여호와의 영광이 훼손된 것에 대한 슬픔이다.

8. **Q** '외국인의 아들'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13절)

- A** (1)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말이다.
- (2)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꼭 같은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이득과 특권을 부여받고 있었다(참조, 출 22:21, 22; 23:9; 신 14:28, 29; 24:14, 15, 19-22).
- (3)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까지도 당신의 크신 은총 아래서 동등한 혜택을 누리게 하셨다(참조, 요 10:16).
- (4) 이것이 은혜이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참조, 롬 3:24).

9. **Q**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했던 아말렉 사람을 결국 어떻게 하였는가?(13-15절)

- A** (1) 자기 부하를 시켜 그를 죽였다(15절).
- (2) 그 아말렉인은 이스라엘의 법도를 아는 자로서(13절)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것 정도는 배웠을 것이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일망정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 큰 반역이며 도전이다.
- (4) 즉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댄다는 것은 여호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이스라엘 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5) 이처럼 자신의 욕망에 휩싸여 사는 자는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다.
- (6) 그러므로 그를 살해한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는 의로운 파수군의 자격

을 발취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4:10-12).

(7) 오늘날 모든 성도들 역시 의로운 파수군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악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

10. **㉠**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이다' 는 말은 무슨 뜻인가? (16절)

- ㉠** (1) '내가 피흘림을 당하는 것은 바로 네 자신의 책임이다' 라는 뜻이다.
- (2) 여기서 우리는 말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볼 수 있다.
- (3) 오늘날 위증(僞證)으로 돈을 모으거나 이웃을 괴롭히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 (4) 이런 자들은 겉보기에 평온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양심 심판이 유죄(有罪)로 판결되었으며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후 5:10).

11. **㉠** 다윗의 애가(哀歌)는 무엇을 위한 노래인가? (17절)

- ㉠** (1)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고인들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한 노래이다.
- (2) 여기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인정과 관용, 애국과 우정의 모습이다.
- (3) 이처럼 모든 덕성을 고루 갖춘 다윗이었기에 신앙을 힘입어 이 모든 덕성을 세련 정화 시킴으로 신덕(信德)을 겸비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 (4)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과 윤리성이 겸비된 인품이 요구된다.
- (5)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특히 교회의 직분 맡은 자) 사회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불균형적인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참조, 약 1:27; 요일 4:20).

12. **㉠** '야살의 책'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18절)

- ㉠** (1) 야살의 책은 문자적으로 '의로운 자의 책'이란 뜻이다.
- (2) 이 책은 오늘날 전래되지는 않으나 위대한 인물이나 사건들이 기념될 수 있도록 시적(詩的)으로 적힌 이스라엘의 전쟁사이며 고대 영웅록의 수집이다(수 10:12, 13).
- (3) 여기서 '할'은 다윗이 야살의 책에서 따낸 전쟁 송시(頌詩)를 가리킨다.

13. **㉠** 다윗의 애가(哀歌) 중 '이스라엘의 영광'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19절)

- ㉠** (1)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사울과 요나단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 (2) 다윗은 죽어서 더 이상 말이 없는 사울과 요나단을 향하여 그들이 행한 생전의 업적과 더불어 최후까지 나라를 위해 봉사한 사실을 들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추켜 세웠다.
- (3) 이처럼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 사울마저 이스라엘의 자랑거리로 추켜세울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다.
- (4) 사람들은 흔히 이웃이 죽은 후에 그를 향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는데 그러한 행동이 이웃의 육체 뿐만 아니라 인격을 죽이는 것이므로 큰 죄가 아닐 수 없다(참조, 마 5:22).

14. **㉠**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천사 소식을 블레셋 지경(가드, 아스글론)에 전파하지 않도록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20절)

- ㉠** (1)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하거나 할례(割禮)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승전가를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 (2)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마저 손상당하는 것이므로 다윗은 이방인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하지 않도록 하였다.
- (3) 오늘날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일이 흔하다.
- (4)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마 5:13-16).

15. **㉠** 다윗의 애가(哀歌) 중 길보아 산을 저주하는 듯한 노래 말은 무엇인가? (21절)

- ㉠** (1)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 낼 발도 없을지이다'라고 한 것이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피로 얼룩진 길보아 산 그 자체를 향한 저주라기보다는 그 산에서 전개된 일련의 사건들이 저주스럽다는 말이다.
- (3) 여기서 '제물 낼 밭도 없다'는 것은 그 산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식물과 가축이 그쳐지고 그 결과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이 없어졌다는 말이다.
- (4) 이와 같이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의 삶을 먼저 보살피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우선 순위에 두고 생활한다(마 6:33).

16. ㉠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았음같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1절)

- ㉠ (1) 혹자는 '사울이 마치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속하지 않은 자(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자)처럼 쉽게 패전하였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 (2) 그러나 그 당시 사용되었던 방패는 대부분이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 가죽이 씌어져 있었으므로 정기적으로 기름칠을 해주었다고 한다(참조, 사 21:5).
- (3) 그러므로 본귀절은 '사울의 방패는 더 이상 기름칠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상하고 더럽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함이 옳을 것이다.

17. ㉠ 요나단과 사울의 '용맹함'을 단적으로 표현한 귀절은 무엇인가? (22절)

- ㉠ (1)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표현이다.
- (2) 이것은 그들이 지난날 모든 적의 세력을 압도하고 파멸시켰다는 뜻이다(참조, 삼상 14:14, 15, 47, 48; 15:7, 8).
- (3) 여기서 '활'과 '칼'은 무기 전체를 말하는 상징어이다.
- (4) 사실 이들의 승리는 활과 칼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호 1:7).
- (5) 하나님은 오늘날도 활과 칼 이상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승리케 하신다(참조, 고후 10:4).

18. ㉠ 다윗의 노래 중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23절)

- ㉠ (1)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묘사하였다.
- (2)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지각(知覺)없는 맹세(삼상 14:43, 44)로 인해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나 끝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한 신실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 (3) 또한 생명으로 언약했던 다윗 때문에 부친의 노여움을 사서 죽을 고비를 만났지만(삼상 20:30, 33) 부친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않고 끝내 그를 떠나지 않았다.
- (4) 이와 같이 죽음의 순간까지 사랑과 신의를 버리지 아니한 요나단의 인품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요 15:13).
- (5) 사랑의 가장 높은 차원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기 희생이다(요일 3:16).

19. ㉠ 다윗의 노래 중 사울의 치적(治績)을 말한 귀절은 무엇인가? (24절)

- ㉠ (1)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라는 귀절이다.
- (2) 이것은 사울이 살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때 전리품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나누어 준 일을 노래한 것이다.
- (3) 여기서 '붉은 옷과 금노리개'는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안정과 번영'을 상징한다.

20. ㉠ 다윗에게 요나단은 '심히 아름다움'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 (26절)

- ㉠ (1) 이 말은 '유쾌하다', '상냥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이다.
- (2) 즉 요나단은 다윗에게 '매우 친절했다' 또는 '심히 기쁨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 (3)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4)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이웃에게 꼭 필요하며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참조, 살전 2:20).

21. **㉠**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하였는가? (26절)

- ㉠** (1) '기이(奇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라고 하였다.
 (2) 여기서 '기이하다'는 말은 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이다(참조, 출 15:11; 욥 5:9; 9:10; 시 17:7; 78:4; 사 29:14).
 (3) 사실상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단순한 인간의 의리를 뛰어넘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남녀간의 사랑에다 견줄 수 없었다(참조, 삼상 18:1-4; 19:1; 20:17, 32-34).
 (4) 또한 요나단의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희생적 사랑이었다(참조, 삼상 23:17).
 (5)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참조, 마 28:20; 요 13:1).
 (6) 그러므로 성도들도 이러한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해야 한다(참조, 마 22:37-39).

22. **㉠** '싸우는 병기'란 무엇을 말하는가? (27절)

- ㉠** (1) 싸우는 군인, 즉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킨다.
 (2) 이들은 여호와의 병기로서 대적 블레셋과의 접전 끝에 전사하였다.
 (3)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무기'라고 할 수 있다.
 (4) 당신의 뜻에 의해 사용되는 이 무기는 무기 자체로서의 의지가 소용이 없는 것이다.
 (5)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무기가 무기되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한 자기 연마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원하신다(참조, 딤펴 4:7).

화보자료

금으로 만든 팔찌. 아래의 사진은 B.C. 11세기경의 구브로(Cyprus)의 팔찌로서 지금은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갖다 바치면서(10절)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다(비교, 삼상 31:3-6). 그가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동시에 거짓 공로를 내세워 보상을 받기 위함이었다.

제 2 장 다윗의 귀국(歸國)과 아브넬의 반역

단락구분 1-4 여호와와 섭리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다 / 5-7 다윗이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하다 / 8-11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다 / 12-17 아브넬과 요압이 대결하다 / 18-23 패주하던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다 / 24-32 아브넬의 도주와 전쟁 중지

1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2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렐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 또 자기와 함께 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4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5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8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9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10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사십 세며 두 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11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일곱 해 여섯 달이더라

12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13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

와서 기브온 못가에서 저희를 만나 앓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14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15 저희가 일어나 그 수효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 둘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 둘이라

16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17 그 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18 그 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19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20 아브넬이 뒤를 돌아 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나 대답하되 내로라

21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매

22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할 까닭이 무엇이나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23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으매 아사헬의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24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25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때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26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울 그치라 명하겠느냐
 27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혼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28 나팔을 불때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29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30 요압이 아브넬 쫓기울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십 구 인과 아사헬이 쫓아 왔으나
 31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삼백 육십 명을 죽였더라
 32 무리가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1. ㉠ 본장의 사건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 ㉠ (1) 사울의 전사로 인해 다윗은 헤브론에 무혈 입성(無血入城)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2) 그러나 사울의 지지 세력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여 자신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 하였다.
 (3) 두 왕국의 설립은 끝내 동족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몰고 왔고 많은 희생자를 속출시켰다.
 (4) 이것은 흡사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치해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하다.
 (5)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세상 주권자의 도전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가며 승리를 쟁취하기까지 참아야 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2. ㉠ '그 후'란 언제를 말하는가? (1절)

- ㉠ (1) '그 후'란 사울이 전사(戰死)한 후를 말한다.
 (2) 이제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때가 왔음을 느꼈으나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였다.
 (3) 이처럼 확실한 것을 믿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린다.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자는 성실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참조, 약1:4).

3. ㉠ 다윗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1절)

- ㉠ (1) '유다의 한 성읍인 헤브론으로 가라'고 응답하셨다.
 (2) 이곳은 유다의 정치, 경제적 중심 무대였다(창 13:18; 23:2).
 (3) 조상들과 족장들의 무덤이 있었던 이곳은 다윗에게는 옛날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할 것이며 새로운 나라 건설을 예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해 적절한 응답과 아울러 은혜를 공급하신다(시 50:15).
 (5)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단지 성도의 기도 생활에 인간적 욕심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참조, 약 4:3).

4. ㉠ 다윗이 헤브론으로 이주할 때 함께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2, 3절)

- ㉠ (1) 그의 두 아내(25:39-43)와 함께 했던 종자(從者)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데리고 갔다.
 (2) 이들은 다윗이 방랑할 때에 함께 한 자들로서 새로운 정착지에도 함께 갈 수 있었다.
 (3)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선한 군사들에게 다윗이 자기 추종자들에게 대우했던 이상의 것으로 갚아 주신다(딤후 2:12).
 (4)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시험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에게는 나라를 맡기고 당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실 것이다(참조, 눅 22:29, 30).

5. ㉠ 유다 사람들은 귀국한 다윗을 어떻게 대우하였는가? (4절)

㉠ (1)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2) 그는 이미 수년 전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16:13) 왕권을 허락 받기까지 수년간의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다.

(3) 다윗은 이때에 30세였으며(5:4) 골리앗을 살해한 후부터 왕이 될 때까지 10-12년 가량의 '연단' 기간을 겪어야 했다.

(4) 이제 그는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지도자로서 추대되었다.

(5) 이것은 야곱이 말한대로(창 49:10) '유다는 치리하는 지파가 되고 유다의 왕이 유다와 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라 할 수 있다.

(6) 뿐만 아니라 그는 명예롭게도 메시아의 조상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6. ㉠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최초로 수행하였던 일은 무엇인가? (4-7절)

㉠ (1) 사울을 장사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하기 위해 사자(使者)를 보냈다(5절).

(2) 이처럼 다윗은 자기의 전임자 사울을 존경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하였다.

(3) 그래서 그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자신의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 주었다.

(4) 그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의 적대 세력의 마음을 돌리는 회유책(懷柔策)으로도 사용되었다.

(5) 여기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온전히 사랑할 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참조, 롬 12:17-21).

7. ㉠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빌었다.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5, 6절)

㉠ (1)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이다(6절).

(2) 여기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는 그 은혜를 말한다.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사죄의 은혜'이다(참조, 시 32:1).

(4) 그리고 '진리'는 모든 일에 변함이 없이 공의로운 판결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한다.

(5)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며 또한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시 18:1-50; 마 28:20).

8. ㉠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자신의 보상(補償)도 약속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6절)

㉠ (1) '나도 이 선한 일을 갚으리라'는 것이다.

(2) 이것은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룻 1:8의 내용과 흡사하다.

(3) 다윗은 자신이 당연히 표시해야 할 감사를 하나님께서만 갚아 주시기를 바라지 않았다.

(4) 사실 호의(好意)를 베풀고 그 실증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이상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값싼 감사밖에 안 된다.

(5)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 생활은 허끝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혼연 일체가 되어야 하는 참다운 것이 되어야 한다(참조, 요일 3:18).

9. ㉠ 다윗은 어떤 뜻에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라고 했는가? (7절)

㉠ (1)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져 있던 야베스 사람들(삼상 31:11-13)에게 이스라엘의 열이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여야 되었기 때문이다.

(2)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죽은 사람 때문에 앞날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망칠 수는 없었다.

(3)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뒤의 슬픔을 잊어버리고 앞날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임을 알 수 있다.

(4)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정주하여 살지만 이 세상이 고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창초, 빌3:12-14).

(5) 현재의 슬픔을 참고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 뛰어카는 자는 끝내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창초, 시 126:6).

10. Q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다윗과 경쟁시켜 왕으로 추대한 사람은 누구인가?(8-11절)

- A (1) 사울의 군장(軍長) 넬의 아들 아브넬이었다.
- (2) 그는 자신의 정권 현장을 위해 아직 지도력을 갖추지 못한 이스보셋을 대체했던 것이다.
- (3) 이와 같은 한 사람의 교만과 야망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다.
- (4) 세계 정치사를 통해 볼 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인간의 욕망이 초래한 파괴적인 결과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1. Q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랐던 곳은 어디인가? (8-11절)

- A (1) 요단 강 동편에 위치한 '마하나임'이었다(8절).
- (2) 이곳은 다윗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곳이고 다윗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무리들이 세력을 키우기에는 안전한 곳이었다.
- (3) 그런데 이스보셋이 이곳에서 왕의 가치를 몰라 지각 없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에게 복종했고(9절) 오직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랐다.
- (4)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실현하시기까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이유없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 주신 바람으로 믿고 참아 나가야 한다(롬5:3,4).

12. Q 이스보셋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은 오늘날 무엇을 예표하는가? (8-11절)

- A (1) 이스보셋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한다.
- (2) 다윗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시 2:1) 라고 노래하였다.
- (3)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로 영원한 멸망을 자처하는 행위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우리들은 우리의 적대 세력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피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 (5)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한 나라이며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다(사 46:6).

13. Q 다윗이 유다 족속만 다스린 기간은 몇 년인가? (11절)

- A (1) 다윗이 유다 족속만 다스린 기간은 7년 6개월이었다.
- (2) 그런데 이스보셋은 2년 동안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10절).
- (3) 이스보셋이 죽지 왕이 되지 못한 것은 블레셋으로부터 북쪽 영토를 회복하는데 5년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 (4) 사울의 군대가 패배하였을 때(삼상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 있는 중요한 성읍과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도망했다는 사실이 더 이상 회복의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다(삼상 31:7).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의 반역 행위에 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 건설에 유익하게 섭리하셨다.

- (6) 즉 아브넬의 반역적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의 세력을 추방하게 하셨던 것이다.
- (7)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 건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뜻에 동참되도록 그 일을 인도하신다.

14. **㉠** ‘장난하게 하자’란 말은 무슨 의미인가? (12-17절)

- ㉠** (1) ‘장난하게 하자’는 것은 ‘싸우게 하자’, ‘전쟁 놀이를 시키자’는 뜻이다.
- (2)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이런 제안은 아브넬이 한 것으로 인간으로서 상할 수 없는 악의에 찬 제안이었다.
- (3) 이와 같이 미련하고 부도덕한 자는 죄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참조, 잠14:9).
- (4)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양심이 무디어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기 합리화의 길을 걷는 순간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참조, 딤펴전 4:2).
- (5)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권면에 무신경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15. **㉠** ‘헬갓하수림’이라는 지명의 뜻은 무엇인가? (16절)

- ㉠** (1) ‘헬갓하수림’이란 ‘칼날의 밭’ 또는 ‘완고한 사람의 들판’이란 뜻이다.
- (2) 이곳은 기브온 근처의 들에서 날카로운 칼에 24명의 용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
- (3) 그러나 24명의 용사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였고 전면전(全面戰)이 불가피하였다(17절).
- (4) 이처럼 무모한 피의 희생은 또 다른 생명을 요구하게 되고 끝내 공동체 전체에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 (5)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다시 얻을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생명의 기적을 공급하게 된다(참조, 요 12:25).

16. **㉠** 아브넬을 추적하던 아사헬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8-23절)

- ㉠** (1) 그는 올바른 분별력 없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다.
- (2) 이와 같은 자기 과신은 끝내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참조, 잠16:18).
- (3) 또한 그는 상대방의 선한 충고(21, 22절)를 듣지 않았던 어리석은 자였다.
- (4) 즉 아브넬은 쫓겨가면서도 아사헬에게 무모한 희생을 피하라고 경고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고집하다가 최후를 맞게 된 것이다.
- (5) 이처럼 아무리 원수의 충고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하는 선한 충고이면 청종할 줄 아는 것이 참 지혜를 가진 자의 특징이다.

17. **㉠** 스루아의 아들인 아사헬이 지니고 있었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18절)

- ㉠** (1) 그의 발은 들노루같이 빨랐다(18절).
- (2) 그는 강한 결단력의 소유자였다(19-21절).
- (3) 그는 두려움이 없었다(22절).
- (4) 그러나 그는 고집이 세고 도리를 분별치 않는 성급한 사람이었다(23절).
- (5) 그는 유력한 사람이었다(23:24).
- (6)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다(대하 27:7).
- (7) 그는 자신을 너무 과신한 탓으로 최후를 맞게 되었다(23절).

18. **㉠**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했던 휴전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24-26절)

- ㉠** (1) 먼저 아브넬은 ‘칼이 영영히 사람을 상하겠느냐’라고 외쳤다. 즉 이 말은 ‘계속해서 칼로 사람을 죽여야만 하겠느냐’라는 뜻으로 휴전 제의였다.
- (2) 다음으로 같은 민족끼리의 혈전을 피하자고 하였다(26절).
- (3) 이처럼 죄인들은 자신에게 불리할 때에는 선한 조건을 내세워 협상을 요청한다. 이것은

오늘날 전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한 술책이기도 하다.

- (4) 또한 사건의 결과는 죄인의 마음을 변하게 한다. 즉 아침의 기쁨을 주던 것이 저녁에 침울하게 하기도 한다.
- (5) 흔히 분쟁에 앞장 서던 사람이 그 분쟁이 해결되기도 전에 변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분쟁에 깊숙이 개입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편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다.

19. ㉠ '혼단(霧端)의 말'이란 어떠한 말을 의미하는가? (27, 28절)

- ㉠ (1) '서로의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말'을 뜻한다.
- (2) 이것은 아브넬이 소년들로 하여금 장난치게 하자는 제안(14절)을 요압에게 건넸던 것을 말한다.
- (3) 요압은 이런 말로서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군대를 철수시켰다(28절). 즉 아브넬의 휴전 제의를(26절) 요압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 (4) 요압이 이처럼 더 이상의 피흘림을 방지한 것은 잘한 일이다.
- (5) 그는 전사적 영도력이나 군사적 용맹에 있어서 다윗과 견줄만한 충실한 다윗의 추종자였고, 따라서 그는 불가피하게도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것이다.
- (6) 이와 같이 훌륭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 밑에는 항상 그에 버금가는 인물이 모여든다.

20. ㉠ 아브넬의 군대는 끝내 어디로 패주(敗走) 하였는가? (29절)

- ㉠ (1) 이스라엘의 도움지로 정했던 '마하나임'으로 패주하였다.
- (2) 이처럼 죄인들은 죄의 근거지를 두고 외부적 활동을 전개하다가 다소 불리하게 되면 근거지로 되돌아가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한다.
- (3) 우리가 거둬지는 유혹을 받고 끝잘 넘어지는 이유도 유혹의 근원인 죄의 특성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4) 죄의 특성 중의 하나는 공격 대상을 정한 후 그 대상이 실족할 때까지 거둬해서 유혹하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의 유혹을 한번 물리쳤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 유혹을 계속적으로 물리칠 만반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뱀전 5:8).

21. ㉠ 유다와 이스라엘의 1차 전쟁에서 각각의 피해는 얼마나 되었는가? (30-32절)

- ㉠ (1) 유다 측에서는 아사헬 외에 19명이 전사하였다(30절).
- (2) 반면에 이스라엘 측에서는 360명이라는 많은 전사자를 내었다(31절).
- (3) 이것은 이스라엘 장군 아브넬의 무모한 장난에서 비롯된 엄청난 결과였다.
- (4) 이처럼 한 사람의 실수가 공동체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며 더욱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 (5) 이런 면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인류 전체에게 죽음을 몰고 왔던 최악의 사건이었다(참조, 롬 5:16, 17).

22. ㉠ 아브넬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0-32절)

- ㉠ (1) 사리(私利)와 야심과 시기는 흔히 형제와의 사랑마저도 짓밟아 버리고 서로 화해를 추구할 생각도 내키지 않게 한다.
- (2) 오늘날 유산 문제 때문에 집안이 나누이는 불행한 현장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 (3) 또한 악한 정열의 탐닉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과 행동의 결과에 눈이 멀게 한다.
- (4) 즉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라도 사용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 버린다.
- (5) 마지막으로 투쟁과 전쟁의 장면에 익숙해지면 인간은 고통과 살인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 (6) 이것은 T. V. 와 오락 문화에 침식되어 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혼란 현상이다.

제 3 장 다윗의 번영과 아브넬의 피살

단락구분 1-5 다윗의 번영과 헤브론에서 난 그의 여섯 아들들 / 6-11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불화 / 12-21 다윗에게 투항한 아브넬 / 22-30 요압이 아브넬을 위한 다윗의 애곡

1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니라

2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
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
이요

3 둘째는 길르암이라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세째는 암살롬이
라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4 네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의 아들이요 다섯째
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5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
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
들이더라

6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
으니라

7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
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8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노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
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
어 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
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9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
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10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
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11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12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
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누 것이니이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시이다 내 손
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
가게 하리이다

13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
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

러울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14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
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
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일백으로 정혼한
자니라

15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리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16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
지 따라 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
매 돌아가니라

17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
로되 너희가 여러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
를 구하였으니

18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
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
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19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
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20 아브넬이 종자 이십 인으로 더불어 헤브론
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21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
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
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22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
에 있지 아니한 때라

23 요압과 그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
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24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 하심이
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25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의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의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26 이에 다윗에게 나아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27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 붙어 중용히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찢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다라

28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를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29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라도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찢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니라

30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던라

31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 가서

32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33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34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35 석양에 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36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37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38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39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라도 하니라

1. ㉠ 본장의 사건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 ㉠ (1)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로 비유되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형편이 점점 현격한 차이로 드러났다.
- (2) 즉 다윗의 집은 날마다 번영하였으며 반면에 사울의 집은 분열과 범죄로 열륙져 쇠퇴하여만 갔다.
- (3) 급기야 이스라엘의 중추적 인물이었던 아브넬이 유다로 망명함으로써 사울의 집은 더욱 곤경에 빠졌다.
- (4) 여기서 아브넬은 안전을 찾으러 유다 땅에 왔지만 요압의 원한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 (5)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역사의 배후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았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하나님이 버리신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 ㉠ 다윗과 사울의 형편에 대해 가장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표현한 귀절은 무엇인가? (1절)

- ㉠ (1)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고 한 표현이다.
- (2) 이것은 시 72편과 127 편에서 적합하게 표현되어 있다.
- (3) 즉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렸음을 강조한 것이다.
- (4) 참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노력의 열매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

3. ㉠ 다윗은 헤브론에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는가? (2-5절)

- ㉠ (1)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
- (2) 이와 같은 일부 다처제(一夫多妻制)는 당시 드물지 않았으나 그것은 한 남자에 한 아내라는 신성한 결혼 원리(창 2:24)를 범하는 것이므로 결코 성공적일 수 없었다.

- (3) 다윗의 아들들 중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한 자였으며(13장), '다니엘'로도 불리는 '길르앗'은 아버기일에 낳은 다윗의 둘째 아들이다.
- (4) 그리고 마아가의 소생인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고 다윗에게 반역하였으며, '아도니야'는 학깃의 소생으로 솔로몬과 왕위 다툼을 하였던 자이다.
- (5) 여기서 다윗의 자녀들간의 음모와 적대 행위는 아마 다윗의 다처(多妻)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 (6)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인간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일 뿐이다.

4. **㉠** 사울의 집에서 실제적인 권력자는 누구인가? (6-11절)

- ㉠** (1) 사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벨의 아들인 아브넬이었다(6절).
- (2) 그는 죽은 사울의 첩을 자신이 소유하는 엄청난 반역을 저질렀다(7절).
- (3) 죽은 왕의 후궁들은 그의 후계자의 특별한 상속물이므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왕좌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큰 반역 행위이다(참조, 16:20,21).
- (4) 반역은(2:8) 또 다른 반역을 불러오게 한다. 이처럼 인간의 범죄는 계속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인격이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거듭되어진다.

5. **㉠** 아브넬을 향한 이스보셋의 책망 내용은 무엇인가? (7-11절)

- ㉠** (1)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간하였다는 것이다(7절).
- (2) 그런데 당시에 첩은 그 주인의 합법적인 재산이었고 때로는 그 주인을 상속자로 양육하는데 봉사하였던 하녀였다.
- (3) 더군다나 왕이 자신의 재위 기간 중 첩을 소유하는 것은 왕적 특권이였다.
- (4) 그러므로 왕의 첩과 통간한 사건은 사실상 왕좌를 노리는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다(16:20,21).
- (5) 즉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반역 행위를 지적한 것이다.

6. **㉠** '개 대강'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8절)

- ㉠** (1) '개 머리'란 뜻이다.
- (2) 여기서 아브넬의 말은 '내가 유다에 속한 개 머리이나? 내가 떨시받을 반역자나?'하는 의미이다.
- (3)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이처럼 강렬하게 격노함으로써 사울 왕가에서 떠나 다윗에게 망명할 의사를 비추었다.
- (4)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집단은 스스로 붕괴되고 만다는 진리를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막3:24-26). 이러한 붕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확장되어 간다.

7. **㉠** 아브넬의 분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8-11절)

- ㉠** (1) 아브넬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
- (2) 즉 아브넬의 분노와 원한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찬양을 받으셨으며, 그 결과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9,10절).
- (3) 이처럼 하나님은 선·악을 초월하여 모든 입술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며 또한 당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참조, 빌2:10,11).

8. **㉠**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분노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11절)

- ㉠** (1) 그가 아브넬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 (2) 그는 아브넬의 범죄에 적절한 충고를 하고 징계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연약함과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 (3) 다윗이 자기 대적들에게 예고했던 대로 그는 '무너져 내린 성벽이요 기울어진 울타리'

(시 62:3)가 되고 말았다.

(4)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점철(點綴)된 이스보셋처럼 정당한 용기를 상실하고 만다.

9. **㉠**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자(使者)를 보내어 화친(和親)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2절)

- ㉠** (1) 이스보셋에 대한 아브넬의 분노는 마침내 전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인계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즉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복종시키는데 힘 쓰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통일은 앞당겨지게 되었다.
 (3)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대해 진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는 자들마저도 당신의 나라 건설에 도구로 사용하신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원수(적 그리스도)들은 때로 순례 길의 발판 구실이 되며, 더우기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판 구실을 해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성도들이 죄악 세상에서 큰 힘과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한 이유이다.

10. **㉠** 아브넬의 화친 제안에 다윗은 한 가지 조건을 달아 수락하였다. 그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 (13-16절)

- ㉠** (1)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다(13절).
 (2) '미갈'은 다윗이 공식적으로 얻은 첫 아내였는데(삼상 18:27) 사울은 그녀를 발디(또는 발디엘)에게 재가(再嫁)시켰다(삼상 25:44). 다윗은 그렇게 억울하게 빼앗긴 아내를 되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3) 이것으로써 다윗은 자기의 첫번째이며 가장 정당한 아내인 미갈에게 대한 부부의 신실한 도리를 표한 것이다.
 (4)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또 자기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살던 그것이 다윗과 미갈 사이를 갈라 놓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5) 다윗은 온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첫사람을 회복하는 성실함을 보였다.
 (6) 이처럼 한 가정을 바로 정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는 한 나라 역시 올바른 통치 철학을 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다.

11. **㉠** 사울의 딸 미갈은 누구와 재혼(再婚) 하였는가? (15, 16절)

- ㉠** (1)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과 재혼하였다(15절).
 (2) 사실 발디엘은 일시 동안 불법적으로 미갈과 동거한 셈이다. 그러나 그는 미갈을 영원한 자기의 아내로 삼지 못했다.
 (3) 이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12. **㉠** 아브넬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에게 양도하기 전에 누구와 의논하였는가? (17-19절)

- ㉠** (1) 이스라엘 장로들 뿐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과 의논하였다.
 (2) 아브넬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모두 다윗의 다스림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외쳤다.
 (3) 그는 자기의 그와 같은 의견은 하나님의 약속(18절)에 근거한 것이라고 자랑했다.
 (4)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상표인 양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서만 들먹이는 파렴치한 인간이었다.
 (5) 순수한 신앙적 동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가장 큰 안전이며 기쁨이다(시 5:11).
 (6)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행위들은 가증스러운 일이며

또한 정죄받아 마땅하다(참조, 출 20:7).

13. **㉠** 다윗은 아브넬의 귀순(歸順)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20, 21절)

- ㉠** (1) 다윗은 아브넬의 귀순을 관용하여 잔치를 배설(排設)하였다(20절).
 (2) 그는 아브넬이 결코 반역자가 아님을 인정하였다. 즉 사울 왕가에 충성하던 아브넬을 문책하지 않았다(참조, 31-39절).
 (3) 다윗은 사울 왕가의 몰락에 의해 희생물이 된 아브넬의 귀순을 환영하였으며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4) 이처럼 올바른 신앙인은 순간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인정한다.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원수가 주릴 때 먹여 주어야 한다(렘 12:20). 그러나 그 원수가 투항할 때는 더 큰 잔치를 베풀며 환영해야 할 것이다.

14. **㉠** 아브넬은 자기의 귀순을 환영하는 다윗에게 어떠한 맹세를 하였는가? (21절)

- ㉠** (1)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옵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고 맹세하였다.
 (2) 그는 다윗의 등극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9, 10절).
 (3) 그러나 그는 아직도 다윗이 자기 스스로 원하여 통치자가 된 것인 양 말하고 있는 것이다.
 (4)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다윗을 자기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5) 이처럼 사람들(특히 죄인들)은 모든 사건과 인물에 대해 자신의 독특한 안경을 통해 판단하려 든다.

15. **㉠** 아브넬이 다윗을 방문할 때에 요압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22-26절)

- ㉠** (1) 요압은 다윗의 신복(臣僕)들과 함께 변경에서 전쟁 중이었다.
 (2) 이 전쟁은 노략물 탈취를 그 목적으로 한 것이며 또한 이러한 노략물로 군대를 유지한 것이 그때의 통례였다(삼상 27:8, 9).
 (3) 요압은 전쟁에서 돌아와 아브넬의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아브넬과 언약 맺은 것이 잘못이라고 선불리 지적하는 실수를 범했다(24, 25절).
 (4) 이처럼 매사에 일을 급하게 처리하는 자는 항상 실수가 뒤따르게 된다(참조, 잠 19:2).

16. **㉠**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동기는 무엇인가? (26, 27절)

- ㉠** (1) 자기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다(27절).
 (2) 그러나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수차레의 경고 후에 어쩔 수 없이 정당 방위로 한 것이기 때문에(2:23) 피의 복수 거리가 될 수 없었다.
 (3) 사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근본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이 아브넬보다 지위가 떨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는 아마사도 죽였다(20:10).
 (4) 이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어 하나님과 국가의 장래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개인적인 감정에 좌우되는 자는 하나님의 일군으로 적합하지 못하다.

17. **㉠** 요압은 아브넬을 어디에서 살해하였는가? (27절)

- ㉠** (1) 헤브론 성문 안에서 그를 살해하였다.
 (2)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했던 헤브론은 도피성이었으며(수 21:13) 그런 장소에서는 피의 복수자라도 재판 없이 살인자를 죽일 수 없었다(참조, 민 35:22-25).
 (3) 이와 같이 악한 감정은 하나님의 법을 거리낌없이 파괴하고 만다.
 (4)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징벌해야 한다.

18. ㉠ 복수 행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행위인가? (27-30절)

- ㉠ (1) 복수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금하신다(참조, 레 19:18; 눅 6:27; 롬 12:20).
- (2)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복수 금지법을 주셨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자들은 계속하여 이 법을 파괴하고 있다.
- (3)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끝내 온 인류의 파멸을 초래하고 만다.
- (4)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파멸과 복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셨고 (요 13:34) 또한 친히 사랑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요일 4:10).

19. ㉠ 다윗은 아브넬의 피흘림에 대하여 자신과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했는가? (28절)

- ㉠ (1) 다윗은 자기와 자기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다고 하였다.
- (2) 그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모살하였던 범죄를 제외하고는 평생토록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왕상 15:5; 시 139:1-24).
- (3) 도리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 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기에 힘썼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무죄 사실을 담대히 주장할 수 있었다.

20. ㉠ 다윗은 요압에게 무어라고 저주하였는가? (29절)

- ㉠ (1) 살인한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은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 (2)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유출병 환자)와 문둥병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차나 칼에 죽는 자 그리고 양식이 꺾절(乏絶)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 (3) 이처럼 아브넬을 암살한 요압의 의도가 공의를 따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원한에 연루한 것이기 때문에 요압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당연한 일이다.
- (4) 까닭없는 피흘림에 대한 징벌은(시 9:13) 요압과 그 자손에게 반드시 내려질 것이다(왕상 2:31-33).
- (5) 피흘린 죄에 대한 심판은 1:16; 창 4:11; 신 21:6-9; 마 23:35 등에 나타나 있다.

21. ㉠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접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하였는가? (31, 32절)

- ㉠ (1) 다윗은 요압과 온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고 하였다.
- (2) 그리고 다윗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그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31-34절).
- (3) 이러한 그의 슬픔은 진정하고 정성어린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감동시켰다.
- (4) 이처럼 과거의 원수 앞에 슬퍼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에 충분하다(참조, 마 6:12).

22. ㉠ 다윗은 아브넬을 위한 애가(哀歌)에서 그의 죽음을 무엇과 비교하였는가? (33절)

- ㉠ (1) 미련한 자의 죽음에 비교하였다.
- (2) 이것은 어리석은 자에게나 적합한 의미 없는 죽음이 그렇게 위대한 용사에게 운명으로 닥쳐왔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소리였다.
- (3) 여기서 '미련한 자'(히, 나발)란 '어리석고 무가치한 자'를 뜻한다.
- (4) 또한 다윗은 아브넬의 손이 결박되지 않았고 그의 발도 착고에 채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아브넬이 반역자나 범인으로서 죽은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23. ㉠ 다윗은 음식을 권하는 듯 백성 앞에서 무엇을 맹세하였는가? (35절)

- ㉠ (1) 해지기 전까지 금식하겠노라고 맹세하였다.
- (2) 당시에 크게 애통하는 자들은 당분간 음식을 삼가는 것이 관례였다(1:2; 삼상 31:13).
- (3) 다윗의 슬픔은 진정임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가 결코 살인 공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확신케 했고 이를 확신한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 (4) 또한 백성들은 다윗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기쁜 마음으로 따르게 된 것이다(36절).
 (5) 이와 같이 진실된 사랑의 소유자는 모든 의심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온 백성의 신임과 애정을 받게 된다(참조, 삼상 12:3-5; 마 28:54; 눅 23:47, 48).

24. **㉠** 다윗을 향하여 온 백성이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3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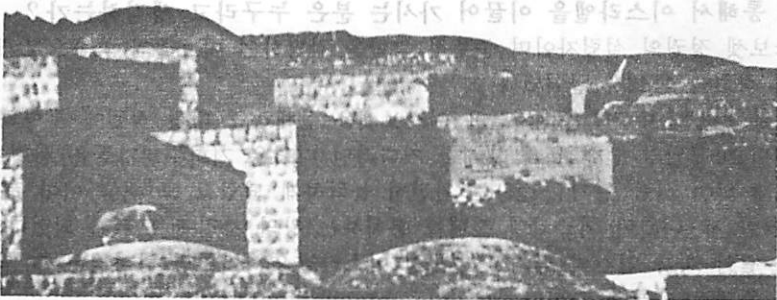
- ㉠** (1) 다윗의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37절).
 (2) 이제 백성들은 다윗의 진실을 믿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그에게 의뢰할 수 있었다.
 (3) 이처럼 진실은 모든 관계를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준다.

25. **㉠** 다윗이 살인자 요압을 처벌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39절)

- ㉠** (1) 그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직 약했기 때문이다.
 (2) 이러한 그의 태도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여호와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는 그의 고백 속에서 잘 나타나 있다.
 (3) 그러나 왕으로서의 다윗은 죄인을 처벌하는 것을 마땅한 의무로 여겨져 그 일을 수행해야 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했다.
 (4) 즉 정의는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집행되어야 했다.
 (5) 만일 요압에 대한 법의 심판을 가했다라면 이스보셋(4:5-8)과 그밖의 사람들에 대한 살인은 방지되었을 것이다.
 (6) 결국 다윗이 요압을 살려 둔 것은 욕심에서 나온 정책이며 잔인한 결과를 초래한 동정심이었다.
 (7)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의 법이 성취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확보자료

헤브론. 아래의 사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 27km, 베들레헴으로부터 남서쪽 19km 지점에 위치한 헤브론 성읍의 모습이다.



다윗이 여섯 아들을 낳은 헤브론은(2-5절) 원래 레위인들의 성읍이었으며 도피성이기도 했다(수 20:7). 이곳은 그가 두번째 기름 부음 받은 곳이었으며(2:4)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본거지였다(15:7-10).

제 4 장 이스보셋이 암살되다

답략구분 1, 3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놀란다 / 4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 대한 소개 / 5-8 레갑과 바아나가 이스보셋을 암살하다 / 9, 12 다윗이 암살자들을 처벌하다

1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2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아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나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립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나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3 일찍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다

4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바아나가 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하므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5 브에롯 사람 립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행하여 별이 쬐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6 레갑과 그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7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의 침실에서 상 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8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9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립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10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값을 삼았거든

11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12 소년들을 명하며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어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1. ㉠ 본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 (1) 이스보셋 정권의 설립자이며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던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보셋 정권에 동요가 일어났다.

(2) 이때를 이용하여 기회주의자들은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다윗 정권에 투항하였다.

(3)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때를 기다리던 다윗은 기회주의자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4) 이렇게 하여 사울 일가(一家)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5) 이와 같이 비록 인간의 범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가셨다.

2. ㉠ 이스보셋 정권이 동요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1절)

㉠ (1) 이스보셋의 힘이요 그들의 행정가였던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이다.

(2) 아브넬의 죽음은 왕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이것은 안개와 같은 인간을 의지하는 자들이 맞보아야 하는 비참한 결과이다(약 4:14).

(4)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는 당신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

며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3. **㉠** 이스보셋의 정권이 중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보좌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2, 3절)

- ㉠** (1) 베나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바아나'와 '레갑'이었다(2절).
 (2)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보셋을 보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스보셋 곁에 있었다.
 (3)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자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이 되어주지 못할 때 등을 돌리게 된다(5-8절).
 (4) 많은 신앙인들 중에는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역경에 처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돌아서게 된다.
 (5)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더욱 감사하는 자이다(살전 5:16-18).

4. **㉠** '브에롯'은 어디에 위치한 곳인가? (3절)

- ㉠** (1) 브에롯은 예루살렘 북방 15km 지점에 위치한 곳이다.
 (2) 이곳은 원래 여호수아와 협약하고 공존했던 기브온 족속에 속한 4도시 중의 하나였다(수 9:17).
 (3) 그러나 후에 그들이 도망했으므로 베나민 족속이 차지하여 살고 있었다(수 18:25).

5. **㉠** '므비보셋'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4절)

- ㉠** (1) '므비보셋'이란 '부끄러움을 없애 버리는 자'라는 뜻이다.
 (2) 그는 '므립바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뜻은 '바알로 만족하는 자'이다(대상 8:34; 9:40).
 (3) 그는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권한에 의해서 왕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모의 부주의로 절름발이가 되었으므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4)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신이 떠난(삼상 16:14) 사울 왕가(王家)는 몰락하고 말았다.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끝내 좌절과 실의를 맛보게 될 것이다.

6. **㉠** 기회주의자인 레갑과 바아나가 왕궁에 잠입(潛入)했을 때 이스보셋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5절)

- ㉠** (1) 이스보셋은 그의 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잠자고 있었다(7절).
 (2) 그는 국가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1절) 난세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커녕 낮잠을(5절) 자고 있었던 것이다.
 (3) 이와 같이 이스보셋은 게으른 사람이며 평안을 좋아하고 일을 싫어하는 자였다.
 (4) 이처럼 나태한 사람은 쉽게 멸망의 포로가 되어 버린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평안을 사랑하지 말자. 육신의 평안은 가난과 파멸을 몰고 온다(참조, 잠 20:13; 마 25:1-13).

7. **㉠** 레갑과 바아나는 어떻게 이스보셋의 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가? (6, 7절)

- ㉠** (1) 그들은 밀을 가지러 들어가는 채 하면서 그 방에 접근할 수 있었다(6절).
 (2) 그리고 누워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말았다(7절).
 (3) 사실 그들은 이스보셋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야욕을 위해 이스보셋의 생명을 해치고 말았다.
 (4) 이처럼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의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런지 알 수 없다.
 (5)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안전한

생명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참조, 빌 4:6, 7).

8. **㉠** 레갑과 바아나가 이스보셋을 죽였던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5-8절)

- ㉠** (1) 다윗에게 아부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2) 그들의 행동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의 도리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이익에 근거한 것이었다.
 (3)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 생명을 경시하여 끝내 살인을 불러온다.
 (4) 그러므로 살인과 강도 사건이 날마다 증가해가는 오늘날이야말로 인간의 욕심이 최고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참조, 딤후 3:1-5).

9. **㉠** 두 암살자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제시하면서 어떠한 아침의 말을 하였는가? (8절)

- ㉠** (1) 먼저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다' 라고 하였다.
 (2)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이나 사울의 가족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성급한 판단과 행동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
 (3) 또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하였다.
 (4) 마치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찬 일군으로 생각하였다.
 (5) 이처럼 오늘날도 자신의 야욕을 감추고는 겉으로 하나님의 종 또는 정의의 사자인 양 행세하는 사이비 지도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참조, 고후 11:14, 15).

10. **㉠** 다윗이 두 암살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 맹세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9절)

- ㉠** (1)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 하였다.
 (2) 이와 같은 맹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 자신을 온갖 역경에서도 구해주셨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적 맹세이다.
 (3)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던 어느 누구도 그 암살자들을 변호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4) 또한 자기가 약속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며 어떠한 사람에게 의해서도 자신의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
 (5) 즉 신의 보호를 받는 자는 그 보호를 위해 인간 편에서 범죄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참조, 왕상 1:29).
 (6)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비록 자신의 인생에 남아 있는 폭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참조, 단 3:17).

11. **㉠** 다윗은 이스보셋을 무엇이라 불렀는가? (11절)

- ㉠** (1) '의인' 이라고 하였다.
 (2) 사실 이스보셋은 그가 어떤 악행이나 범죄를 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단순히 아브넬의 권면에 따라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을 뿐이다(참조, 2:8, 9).
 (3) 그래서 다윗은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더라도 그것은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왕위에 대한 권리를 오해하였기 때문에 오는 실수와 남들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4) 이처럼 진정한 사랑의 소유자는 자신의 친구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최대한의 아량을 가지고 생각해 준다.

(5)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자인 우리들은 현재의 자기 생각과 감정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12. ㉠ 다윗은 레갑과 바아나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11절)

㉠ (1) '악인'이라고 하였다.

(2) 이 말은 그들의 행위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불의하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3) 그래서 다윗은 처회 왕을 죽인 손들과 범죄에 빨랐던 발들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어 달고(참조, 신 21:22)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함장하였다(12절).

(4) 이와 같이 인간의 생명을 말할면서까지 하늘의 공적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지옥의 저주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연구자료

므비보셋과 이스보셋의 관계. 므비보셋(Mephibosheth)이란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을 없애 버리는 자'이며 이스보셋(Ishbosheth)이란 이름의 뜻은 '수치의 사람', '부끄러움의 사람'이다. 므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4절)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이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네 아들 중 막내 아들이다(대상 8:33). 그러므로 므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이스보셋은 형제간이며 이스보셋과 므비보셋은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된다. 므비보셋은 그의 나이 다섯 살 되던 해에 불행하게도 절뚝발이가 되었는데 이는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戰死) 소식을 들은 유모가 므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치다가 그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다(4절). 이후 그의 삶은 불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다행히도 그는 다윗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9장). 그러나 이스보셋은 다윗의 등극(登極)을 마땅히 여기지 않은 아브넬(Abner)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됨으로써 타의이기는 하지만 다윗의 대적자가 되었다(2:8, 9).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이스보셋 중 누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보셋은 사울의 동생이었으므로 정당한 왕위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울의 명령된 행실로 인해 사울 왕가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며 대신 다윗 가문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삼상 13:13-15; 16:1-13) 그 누구도 다윗의 왕권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몽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經綸) 앞에 인간은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 본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인해 결국 사울 왕가는 몰락하고 말았다.

다윗이 사온 산성을 때앗았으나 이는 다윗성이더라
8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9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10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제 5 장 다윗이 전(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단락구분 (1-5) 열두 제파가 다윗에게 기름부어 전(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다 / 6-10 여부스족으로부터 시온을 되찾다 / 11-12 다윗의 번영과 두로 왕 히람의 원조 / 13-16 다윗에게 열한 아들이 나다 / 17-25 블레셋을 두 차례나 격퇴하다

1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2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4 다윗이 삼십 세에 위에 나아가서 사십 년을 다스렸도

5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 삼 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6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

7 다윗이 사온 산성을 때앗았으나 이는 다윗성이더라

8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9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10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12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13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침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14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밧과 나단과 솔로몬과

15 임합과 엘리수아와 네벵과 야비아와

16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던라

17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해처로 나가니라

18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19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20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흘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흘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21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22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23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뿔나무 수풀 맞은 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24 뿔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 때에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라 하시니라

25 이에 다윗이 여호와와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1. **㉠** 본장에 언급된 다윗의 통치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 (1)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전에 불의한 사울 왕가를 몰락 시키셨다.
- (2)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에는 인간의 불의와 불법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신의 거룩한 속성에 연유(緣由)한 것이다.
- (3)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명실 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며 그에게 큰 번영과 축복을 허락하셨다.
- (4) 이에 따라 5-10장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윗의 통치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 (5)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례가 있는 시온을 중심으로 전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질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예표한다.

2. **㉠**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였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하여 추대하였는가? (1, 2절)

- ㉠** (1) 그들은 다윗의 골육, 즉 조상이 같은 한 민족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참조, 신 17:15).
- (2) 또한 사울의 시대에도 전쟁의 실제 지도자는 다윗이었다는 것이다. 삼상 18:5-16에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사울보다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군사적 지도자로 묘사된 것은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 (3)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삼상 16:13)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직접 선택하셨고, 이와 같은 사실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다(3:9, 10, 18; 삼하 2:4).

3. **㉠**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는가? (2절)

- ㉠** (1) 이스라엘의 '목자' (牧者)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 (主權者)가 되기를 원하셨다.
- (2) 여기서 '목자'란 긍휼과 의로써 백성들을 먹이며 능력과 사랑으로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를 뜻한다(참조, 겔 34:23).
- (3) 예수께서는 이 칭호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데 사용하셨는데(요 10:11, 14, 16) 특별히 많은 예언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빌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참조, 사 40:10, 11; 겔 37:24, 25; 습 13:7).
- (4) 한편 '주권자'라는 명칭은 군사적인 지도자를 가리키기보다는 행정적인 측면의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다윗은 그가 왕의 지위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능력 있는 전사(戰士)로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이 있다(삼상 17:26-49).
- (5)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평화를 선사하시고 그 평화를 유지하고 보호해 갈 한 통치자를 세우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셨다.
- (6) 결국 '목자'로서, '주권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다윗은 악의 세력을 섬멸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신 후 당신이 친히 온 세상을 관할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참조, 계 22:1-5).

4. **㉠**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세워지는 왕국은 과연 어떠한 왕국인가? (1-3절)

- ㉠** (1)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견고한 터전 위에 세워지는 왕국이다(2절; 시 127:1).
- (2)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세워진 왕국이다.
- (3) 지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맡겨 주신 목자와 주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2절).

- (4) 또한 통치자는 기록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바탕으로 통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3절).
- (5) 그리고 백성과는 사랑과 순종의 언약으로 국민 전체의 번영에 노력해야 한다.

5. **㉠** 다윗은 몇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3절)

- ㉠** (1) 다윗은 세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다(참조, 2:4; 삼상 16:13).
- (2) 다윗이 세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결과로 온 유다와 이스라엘 열 두 지파는 한 왕 아래 통일되었다.
- (3) 또한 기름 부음 받음은 단순한 임명만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재능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상징이기도 하다(참조, 삼상 10:1, 10; 16:12).
- (4)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성한 왕(그리스도)의 권한과 권능을 대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음은 그의 인격을 신성하게 만드는 한 과정이기도 했다(참조, 삼상 24:6; 26:11).
- (5) 여기서 기름 부음은 신약 시대의 성령의 권능 또는 은사를 예표하는 것으로(참조, 마 3:16; 막 1:10; 눅 3:22; 히 1:9)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

6. **㉠**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백성이 세웠던 '언약'은 어떠한 성질의 '언약'인가? (3절)

- ㉠** (1) 이 언약은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통치하겠다는 엄숙한 선언이기도 했다(참조, 신 17:16-20; 삼상 10:25).
- (2) 또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왕에게 절대 복종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었다(참조, 3:21).
- (3) 이제 다윗과 백성은 하나의 동맹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증인이 되셨다.

7. **㉠** 다윗은 몇 세에 왕위에 올랐는가?

- ㉠** (1)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나아갔다(4절).
- (2) 바로 그 나이에 레위인들은 비로소 자기들의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참조, 민 4:3).
- (3) 예수 그리스도도 이 나이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참조, 눅 3:23).
- (4) 이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판단력에 있어서 완전히 성장하는 것 같다.

8. **㉠** 다윗의 재위 기간과 장소를 말하라 (4, 5절).

- ㉠** (1) 40년 6개월을 통치하였다.
- (2) 그중 7년 반은 헤브론에서,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재임하였다(5절).
- (3) 헤브론은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유명한 곳이었다(수 14:15).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의 새로운 장(場)을 마련하셨고 그곳, 즉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당신의 나라 확장을 계획하셨다.
- (5)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선교의 전진 기지로 삼았던 곳도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행 1:8).
- (6) 이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곳으로 기독교사(基督教史)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9. **㉠**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때 예루살렘에는 어느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는가? (6-9절)

- ㉠** (1)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다(6절).
- (2)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는 악의에 찬 발언을 한 족속이다(6절).
- (3) 여부스 사람들은 그들의 방벽을 신뢰하여 불구자라도 예루살렘을 능히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4) 그러나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힘을 신뢰하여 자신의 멸망의 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호언 장담과 평안한 생활을 즐긴다(참조, 눅 12:16-17).

(5) 그러나 지체로운 자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렸음을 안다(참조, 시 127:1, 2).

10. **㉠** 여부스 족속의 조롱에 대해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7, 8절)

㉠ (1) 여부스 족속의 교만과 무례에서 비롯된 조롱은 다윗을 낙담시키기는커녕 원기를 북돋우어 주었다.

(2) 즉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발동시켜 그 성의 취약 지구인 수로(水路)를 습격하였다(8절).

(3) 이처럼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애타게 생각하며 그 권위의 회복을 위해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4)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서 받는 비난과 조소를 실망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용기와 기쁨을 주는 긍정적인 것으로 역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이다(참조, 마 5:10-12).

11. **㉠**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8절)

㉠ (1) 이 말은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어 다시는 그 성에 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으므로 이러한 속담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자기 명령에 복종하게 하시며 당신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그것들을 사용하신다(참조, 엡 1:23).

(4)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 인간이나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해 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12. **㉠** '시온'은 신약 시대에 무엇을 예표하는가? (7-9절)

㉠ (1) '시온'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롬 9:33)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읍(히 12:22)을 예표한다.

(2) 그러므로 이 '시온'의 여부스족들, 즉 그리스도의 적군들을 먼저 찾아내어 도말하여야 한다.

(3) 즉 시온(교회)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와 허물(영적인 소경과 절뚝발이)을 철저히 도말하여야 한다.

(4) 이런 후 그리스도께서는 상급을 나누시며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에 정하시며 성령에 의해서 그곳을 당신의 통치 영역(하나님의 나라)으로 확정하실 것이다.

13. **㉠** '밀로'란 무엇을 말하는가? (9절)

㉠ (1) '밀로'란 히브리어로 '채우다'라는 의미로 '토루' 또는 '대지(臺地)'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한 천연 또는 인공의 방벽을 말한다(참조, 왕상 9:24).

(2) 이 '밀로'는 예루살렘의 가장 훌륭한 방어 진지였기 때문에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재건되었고(왕상 9:24; 11:27) 앗수르 공격을 준비하던 히스기야 왕 때에 증수되었다(대하 32:5).

(3)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이 막강한 여부스 족속의 요새지를 빼앗아 그것을 '다윗 성'으로 삼았다는 것이다(7절).

(4)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14. **㉠** 다윗이 점점 강성(強盛)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A** (1) '만군(萬軍)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 (2) 다윗의 번영은 결코 인간적인 노력과 전력을 벗어난 침략 정책을 통해 성취된 것이 아니다.
- (3)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임마누엘, 마1:23)는 것은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며 위안이다.
- (4) 왜냐하면 당신께서 우리의 규원자와 대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크나큰 복을 받은 자이다(참조, 시 73:28).

15. Q '두로'는 어떠한 나라인가? (11절)

- A** (1) '두로'는 페니게(Phoenicia)의 두 큰 도시 중의 하나이며 또 상업 중심지로 부요했고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도 이름난 곳이다(참조, 겔27장).
- (2)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두로'는 이미 강대국의 위치에 있었다(수 19:29).
- (3) 그런데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차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집을 짓게 한 것은 그가 다윗의 통치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표시였다(참조, 왕상 5:1).
- (4) 또한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열방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강성했음을 나타낸다.

16. Q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국위가 높아진 원인을 어디에 두었는가? (12절)

- A** (1) 다윗은 이 모든 영광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서 기인(起因)된 줄 알았다.
- (2)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또한 그의 고백은 이러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시 41:11).
- (3)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는 많으나 그릇을 깨닫는 자는 드물다. 그래서 그들은 은총 뒤에 따르는 위안을 모르고 살아간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존귀와 번영과 안정을 얻은 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참으로 행복한 자이다(참조, 시 49:20).

17. Q 다윗의 아내는 모두 몇 명이었는가? (13절)

- A** (1) 다윗은 헤브론에서 얻었던 6아내(3:2-5) 이외에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처첩(妻妾)을 얻었는데 그 수효는 확실하지 않다.
- (2) 고대 사회에서 나라간의 유대 강화는 왕의 딸을 조약 중인 상대국 왕가에 결혼시킴으로 보증되는 경우가 있었다.
- (3) 이 정략 결혼은 다윗과 솔로몬의 처첩이 많았던 이유를 설명한다(참조, 왕상 11:1-3).
- (4) 다윗의 처첩의 증가는 이방 민족의 관습이었으며 분명히 신 17:17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다.'
- (5) 이것은 비록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증명해 준다.

18. Q 다윗의 아들들은 모두 몇 명이었는가? (13-16절)

- A** (1)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명과 예루살렘에서 11명의 아들을 낳아 도합 17명의 아들이 있었다(3:2-5).
- (2) 다윗은 동맹국을 늘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아 자기의 권세를 확고히 하려 하였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남자는 한 여자만을 아내로 취하도록 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말 2:15) 다윗은 많은 아내와 아들을 두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므로 그의 말년에 많은 환난을 감수해야만 했다(13-18장).
- (4) 이와 같이 우리들은 우리가 저지른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언젠가 보응(報應)을 받게 된

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 ㉠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했던 동기는 무엇인가? (17-21절)

- ㉠ (1)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침입하였다.
 (2) 그들은 길보아 전투 이후에(삼상 31:1) 요단 강 서쪽 대부분 지역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었고 이스라엘과 유다로부터 조공을 징수하였다. 따라서 다윗을 중심으로 전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결속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커다란 위협이었고 불만거리였음이 틀림없다.
 (3) 즉 사울의 휘하에서도 자신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다윗이(삼상 17:1-52)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다윗이 더욱 큰 걱정거리로 등장하였다는 사실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4)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의 정부가 안정을 찾기 전에 쳐부수는 것이 선결책이라고 여겼다.

20. ㉠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긴 이유는 무엇인가? (17-21절)

- ㉠ (1) 그들은 연전(年前)에 사울과 그 군대를 쉽게 물리쳤기 때문에 초창기에 있는 다윗의 군대를 약보게 된 것이다(삼상 31:1-6).
 (2) 그러나 그들은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지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능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10절).
 (3)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 자들은 외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4)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감에 따라 세상의 공격이 더욱 심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5)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어떠한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다(참조, 빌 4:13).

21. ㉠ '요해처(要害處)'는 어디를 가리키는가? (17절)

- ㉠ (1) 이 '요해처'는 '아들람 굴'을 가리킨다(삼상 22:1).
 (2) 왜냐하면 '요해처로 나가니라'는 말은 원문에서 '요해처로 내려가니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그리고 만일 그가 이미 시온을 정복하고 6-10절과 같이 그것을 그의 성읍으로 만들었다면 그 요해처는 시온과 다윗 성의 남쪽 어떤 편리한 산성이었음에 틀림없다(7절).
 (4) 아들람은 예루살렘 남쪽 약 2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큰 굴이다.

22. ㉠ 다윗은 블레셋과 접전(接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였는가? (19절)

- ㉠ (1) 다윗은 먼저 자신의 거취(去就)를 하나님께 물었다.
 (2) 우리들은 흔히 우리의 에너지를 다 소모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
 (3) 그러나 우리는 산더미 같은 현실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조언을 먼저 구한다면 피곤함 없이 그 일을 타개해 나갈 것이다(참조, 삼상 14:16-23; 23:1-12).
 (4) 만약 우리가 정당한 이유에서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갈 길을 보여 주실 것이다(참조, 시 119:105; 약 4:2, 3).

23. ㉠ '바알브라심'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20절)

- ㉠ (1) 문자적으로 '돌출하시는 주(主)'라는 뜻이다.
 (2) 이 말은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의 침입을 물리칠 때 범람하는 강물처럼 사납게 쳐부수었다는 말이다.
 (3) 즉 다윗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2:1; 삼상 18:2) 무서운 물과 같이 블레셋 군을 흠어버린 것이다.
 (4) 오늘도 '바알브라심'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폭력이 아니라 진리에 의하여(삼상 5:3; 고후 10:4) 마귀의 일을 능히 멸할 수 있다(요일 3:8).

24. **㉠**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패주(敗走)하면서 무엇을 버려 두고 갔는가? (21절)
- ㉠** (1) 우상(偶像)을 버려 두고 갔다.
 (2)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을 때 법궤를 메고 전장에 나갔던 것 (삼상 4:3) 같이 그들의 승리를 위해 자기네들의 신을 가지고 나왔었다.
 (3)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우상을 취하여 그것을 불살라 버렸다 (참조, 신 7:5).
 (4) 그러나 이렇게 열렬히 타인의 우상을 파괴하는 자 중에는 그들 자신의 우상은 그냥 남겨 두는 경우가 있다.
 (5) 남겨 둔 우상이란 형상화된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과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기뻐하며 의지하는 대상을 말한다 (참조, 고전 10:14; 골 3:5; 빌 3:19; 요일 5:21).
25. **㉠** 블레셋의 재침(再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2-25절)
- ㉠** (1)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생애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다.
 (2) 한 투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투쟁이 오래되었거나 새로운 그리고 더 가공할 만한 형태로 도전해 온다.
 (3) 즉 성도들의 삶에는 매일마다 선한 싸움이 새롭게 시작된다.
 (4) 비록 한 싸움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다음 싸움에서 같은 성공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5)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승리가 연속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 (23절; 엡 6:18). 기도의 부족은 패배를 부르는 지름길이다.
26. **㉠** 다윗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무엇인가? (23, 24절)
- ㉠** (1) '저들 뒤에 가서 포위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습격하라'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곧장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수행하시게 위해서였다 (24절).
 (3) 또한 그래야 '이스라엘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출 14:13)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간혹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경우가 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에 대한 굳건한 신뢰이다 (민 9:8; 삼상 9:27; 12:7; 대하 20:17; 욥 37:14).
27. **㉠**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란 무엇을 말하는가? (24절)
- ㉠** (1)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뽕나무 숲 위부분에서 걸어나는 큰 발자욱 소리'이다.
 (2) 이것은 뽕나무 숲 위에서 나는 행군하는 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수많은 천군 천사의 접근을 의미한다.
 (3) 이와 같은 계시는 비록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귀로 듣고 확신해야만 했다.
 (4)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며 또한 돈독해진다. 그리고 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귀한 믿음이다 (참조, 요 20:29; 롬 10:17).
28. **㉠**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 ㉠** (1)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2)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고 그 섭리에 의지하는 법을 익혔다.
 (3) 우리의 신앙 생활도 날마다 진보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참조, 딤후 4:8).

제 6 장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단락구분 1-5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로 바알레유다에서 내오다 / 6-11 웃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급사(急死)하다 / 12-15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들이다 / 16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다 / 17-19 다윗이 제물을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다 / 20-23 다윗과 미갈이 불화하다

1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땀 무리 삼만을 다시 모으고

2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들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3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4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6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 여호와 하나님께서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시 저를 그 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8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동하시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 곳을 베레스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 여호와와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벧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 여호와와 궤가 가드 사람 오벧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벧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 후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벧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벧에돔의 집에

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13 여호와와 궤를 댄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할 때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14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 에봇을 입었더라

15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궤를 메어 오니라

16 여호와와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17 여호와와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18 다윗이 번제에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19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무른 남녀와 떡 한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덩이씩 나눠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0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막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제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21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시나로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제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1. Q 본장에 언급된 법궤 이동 사건은 이스라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는가?

- Ⓐ (1) 다윗은 블레셋인들을 굴복시키고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법제를 읊길 계획을 구상했다.
- (2) 대상 13장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윗은 법제를 읊기기 위하여 군사 관계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의 의견을 알아 보았다(대상 13:1,2a).
- (3) 특별히 최후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대상 13:2) 이라고 하였다.
- (4) 법제가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옮겨오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은 명실 상부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다.
- (5) 사실 법제란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본장의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참조, 출 25:22).

2. ⓐ 다윗은 무엇을 위하여 무리 3만을 빼내었는가? (1, 2절)

- Ⓐ (1) 다윗은 새 왕국에 대한 새 질서와 영적 복리에 필요한 보호 조항 및 법제 이동을 위해서 이들을 모았다(2절).
- (2) 그러므로 이들은 왕의 권력을 강화하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소유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당신의 나라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사역자들을 모으시고 계신다.
- (4)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 즉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참조, 고후 6:10).

3. ⓐ 법제가 머물러 있었던 곳은 어디인가? (2절)

- Ⓐ (1) 바알레유다에 약 70년간(에벤에셀 전투까지의 20년과 사울의 통치 기간 중의 40년 그리고 그 후의 약 10년간) 머물러 있었다.
- (2) '바알레유다'란 '기랴트여아림' ('숲의 도시' 라는 뜻)의 옛 가나안식 명칭이다.
- (3) 비록 법제가 한적한 곳에 수십 년간을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외적 표현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의 심령 속에 함께 하고 계신다.

4. ⓐ '법제가 그들들 사이에 좌정(座定)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2절)

- Ⓐ (1)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법제가 하나님의 궤라는 사실을 뜻한다.
- (2) 사실 법제의 두경은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두 그룹이 조각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관 혹은 거하시는 자리로 여겨졌고 이곳을 '속죄소' 라고 불렀다(출 25:17).
- (3) 이처럼 법제는 하나님의 율법(출 25:16, 21)과 거룩하심(계 11:19)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던 곳이다(출 25:22).
- (4) 한편 이 법제는 언약궤(민 10:33), 여호와와 궤(수 4:11), 하나님의 궤(삼상 3:3), 증거궤(출 30:6), 주의 능력의 궤(대하 6:41) 등으로도 불리워지는데 그리스도의 모형임과 동시에(롬 3:25-31) 하늘나라를 상징한다(계 11:19).

5. ⓐ 다윗은 법제를 어떻게 운반하도록 하였는가? (3-5절)

- Ⓐ (1)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운반하도록 했다.
- (2) 이러한 운반법은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율법에 어긋나는 방식이었다(참조, 삼상 6:7-12).

- (3) 모세 율법에 따르면 성소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책임을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에게 있었다(민 3:27-32;7:9).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이미 알면서도 범한 죄는 더 큰 범죄가 된다(약 4:17).

6. **㉠**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될 때 그 주위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3-5절)

- ㉠** (1)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고 다윗과 전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와 악기로 연주하였다(참조, 삼상 10:10;19:20).
- (2) 다윗은 이 배경을 통해 시 68편을 썼다. 이 시편은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더라도 합당한 것이었다(참조, 민 10:35).
- (3) 이와 같은 법궤의 행렬은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차와 흡사하다(참조, 마 21:1-11).
- (4) 법궤 운반 당시에 그리스도의 입성 때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찬양하였지만 실상 그 찬양의 이면(異面)에는 그들 각자의 이득을 먼저 염두에 두었다.
- (5)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찬양인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7. **㉠** 법궤를 운반하던 웃사가 급사(急死)한 이유는 무엇인가? (6, 7절)

- ㉠** (1)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법궤 봉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이다(6절).
- (2) 율법은 특정한 레위인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스라엘인도 하나님의 궤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엄히 금하고 있다(민 4:5, 15, 20).
- (3) 사실 하나님의 궤는 신적인 명령(민 4:15)에 따라 운반되지 않았으므로 이 비극의 모든 요소는 이미 잠재해 있었다.
- (4) 웃사의 사건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잘못된 수단을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義)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5)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행위는 그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케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8. **㉠** ‘베레스웃사’란 무슨 뜻인가? (8, 9절)

- ㉠** (1) 이것은 ‘웃사를 충돌하신 곳’, 즉 ‘하나님께서 웃사를 급살맞게 하신 곳’이라는 뜻을 지닌 지명(地名)이다.
- (2) 이 말을 통해 다윗이 본절에서 분한 마음을 품은 것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자책(自責)이나 법궤를 들은 웃사의 불경(不敬)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웃사를 급살맞게 하신 것 자체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 즉, 다윗은 자신이 법궤 운반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정성을 보시지 않고 거국적 행사를 망쳐 버리게 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위신을 추락시키셨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하였다.
- (4) 이처럼 훌륭한 신앙 인격을 소유하고 있던 다윗마저도 일순간의 감정 때문에 혈기를 부리는 것을 볼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임을 느끼게 된다.
-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본성을 지닌 사람에게도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셔서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시 23:3).

9. **㉠** 다윗의 ‘두려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9절)

- ㉠** (1)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내포되어 있다.
- (2) 즉, 이 두려움은 부주의한 걸음을 멈추게 하고 심각한 자기 반성을 하게 한다. 다윗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시 2:

11;4:4) 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노래하였다.

(3) 또한 이 두려움은 자신의 죄를 확신시키고 자만심을 꺾게 만들며 신앙적인 슬픔(애통)을 만들어 낸다.

(4)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떨쳐 버리고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로 변화시킨다(시 89:7; 잠 16:6; 고전 10:12; 고후 7:1; 빌 2:12; 벧전 1:17).

10. **㉠** 다윗은 옷사의 급사(急死) 사건으로 법궤를 어디에 안치(安置)해 두기로 결정했는가? (9-11절)

㉠ (1)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 안치해 두기로 했다.

(2) 오벰에돔은 그 궤에 대한 블레셋의 경험(삼상 5:1-6:18)과 벧세메스 사건(삼상 6:19, 20) 그리고 옷사의 죽음(6, 7절)을 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쾌히 자기 집으로 맞아 들이는 용기 있는 신앙을 보여 주었다.

(3) 그는 법궤를 잘못 다루는 자들에게만 그 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낯새인 것을 확신하였다(고후 2:16).

(4)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옷사의 경거 망동을 처벌하신 바로 그 손을 통하여 오벰에돔의 겸손한 용기에 보상을 주었고 그 궤로 하여금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하셨다(11절).

(5) 이와 같이 어떠한 삶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활 중심에 모시는 용기 있는 신앙인은 끝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것이다.

11. **㉠** 다윗이 재차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길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12절)

㉠ (1) 오벰에돔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11절).

(2)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화해하시사 노를 돌이키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다.

(3) 다윗은 옷사의 죽음에서 자기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읽었듯이 이제는 오벰에돔에게 내린 번영을 보고 저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읽었던 것이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 화해해 주시면 우리는 즐거이 우리의 계획을 밀고 나갈 수 있다.

12. **㉠** 다윗이 두번째 법궤를 옮겨갔던 방식은 어떠하였는가? (12-15절)

㉠ (1) 여호와와 그의 궤를 레위인들이 메게하고(민 4:15) 그들이 여섯 걸음을 걸은 후 제사를 드렸다(13절).

(2) 출발 초(13절)와 마지막(17절)에 제사를 드렸고 다윗을 위시한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노래와 악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14, 15절).

(3) 이처럼 다윗은 지난 번 때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법을 택하여 시행하였다.

(4)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만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특징이다.

13. **㉠** 다윗은 법궤를 옮길 때 무엇보다 우선하였는가? (13절)

㉠ (1)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2) 이 제사는 이전의 실수를 속죄하고 오벰에돔에게 내려 준 축복을 감사한 것이다.

(3)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4)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한 불균형과 모순에 빠지고 만다.

14. **㉠** 다윗은 법궤가 순조롭게 이동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가? (14, 15절)

㉠ (1) 그는 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 (2) 여기서 그가 입었던 베 에봇은 제단 앞에서 직무를 행할 때 입었던 옷으로 영당일까지 내려오며 소매 없는 제사용 겹옷이었다(참조, 삼상 2:18).
- (3) 다윗의 춤은 종교적 행동(21절)으로 승리를 얻었을 때와 공적 예배시에 일정한 규칙을 따라 추는 온 정성을 다한 춤이었다(참조, 출 15:20; 사 11:34; 삼상 18:6).
- (4) 다윗은 이전의 불안과 슬픔 때문에 더 큰 기쁨을 안고 자기가 깨를 받드는 일군의 모습과 하고 자신의 품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 (5)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한 겸손을 기뻐하신다.

15. ㉠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6절)

- ㉠ (1) 집 안에서 창을 통하여 바깥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 (2) 뿐만 아니라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업신여기었다.
- (3) 이처럼 세속적인 마음은 신령한 일을 추하게 바라볼 뿐이다.
- (4) 왜냐하면 그들은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2:14).

16. ㉠ 다윗은 법궤를 다윗 성으로 이동한 뒤 어디에 놓아 두었는가? (17절)

- ㉠ (1)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帳幕)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었다.
- (2) 이 장막은 모세가 만든 장막이 아니라(대하 1:13) 다윗이 법궤를 맞이하기 위하여 새로 만든 것이다.
- (3) 이처럼 다윗은 법궤를 모셔 오기 전에 사전의 치밀한 준비를 해두었던 것이다.
- (4)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역시 이러한 사전 준비와 치밀한 계획 속에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마 25:1-13).

17. ㉠ 다윗이 법궤를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17, 18절)

- ㉠ (1) 아무 실수 없이 법궤를 운반한 데 대한 감사와 계속적인 은혜를 간구하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이 제사를 드렸다.
- (2) 즉 번제는 자기 헌신을 표현하며 화목제는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과의 기쁜 교제와 당신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었다.
- (3)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날마다 하나님께 향한 헌신과 교제와 감사의 제사가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한다.
- (4)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어야 한다(참조, 롬 12:1).

18. ㉠ 다윗은 제사가 끝난 후 누구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였는가? (18절)

- ㉠ (1) '만군(萬軍)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 (2)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이다.
- (3) 오늘날 모든 성도들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참된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이 맡겨져 있다(참조, 마 5:16).

19. ㉠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예식에 참여했던 무리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는가? (19절)

- ㉠ (1)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떡 1덩이'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 (2) 이것은 다윗 자신의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의 표시였다.
- (3)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누린 자는 용서와 자비를 이웃에게도 나누어야 한다(참조, 마 18:21-35).
- (4)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불신자에게까지 복음의 떡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20. ㉠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것에 대해 말하라(20-22절).

- ㉠ (1) 미갈은 법궤의 운반을 기뻐하는 다윗의 환희와 감격을 채 이해하지 못했다.

- (2) 그래서 그녀는 다윗의 기쁨에 찬 춤을 보고 그것이 왕의 권위나 체면을 손상케 하는 처사라고 경멸했다.
- (3) 이러한 미갈의 태도는 올바른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제왕이라 할지라도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 (4) 여기서 성도는 여호와와의 임재와 동행에 대해 뜨거운 감사와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 스스로의 위신과 체면을 차리는 것보다 몇 백배 더 나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21. **㉠**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빈정대었던 미갈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하셨는가? (23 절)
- ㉠** (1) 하나님께서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
- (2) 미갈은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로서 표면상으로는 종교에 순종했으나 그의 내적인 교만은 왕의 순수한 신앙을 경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아마 그녀는 사울에게서 자존심과 이기심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 (4) 그러나 다윗의 태도는 차라리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다는 말을 들겠다는 태도와 같았다(참조, 고전 4:10).
- (5) 이처럼 미갈의 귀족성은 땅에 속한 것이었으며 다윗의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다.

화보자료

법케 앞에서 춤추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아래의 사진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법케를 보고 기뻐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서 17세기의 「성경 열인전(列人傳)」에 나오는 그림이다.



다윗이 춤을 춘 것은(16절) 백성들 앞에서는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였으며(21절) 이 행동은 기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나타낸 것이었다.

제 7 장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다

단락구분 1-3 나단이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에 동의하다 / 4, 17 다윗의 후계자를 성전 건축자로 세우신 여호와 / 18-29 다윗의 감사 기도

1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과하시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2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찌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기를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4 그 밤에 여호와와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5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6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7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8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9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10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회를 심고 저회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회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12 네 수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13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4 나는 그 아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 내가 네 앞에서 폐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리라

18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 이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19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20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21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22 여호와 하나님이며 이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23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며 가서 구축하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회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축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회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5 여호와 하나님이며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

26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끄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

고하게 하옵소서

27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옵소서 생겼나이다

28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

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29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1. **㉠** 본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깨우침을 제공하는가?

- ㉠** (1) 다윗은 자기의 궁전을 이미 짓고 거기서 평안히 거하게 되자 하나님의 궤를 장막에 둔 것이 죄송스러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다.
- (2)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허락하시되 다윗 당대에 허락하시지 않고 다윗 후계자에게 그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셨다.
- (3)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인간의 기도에 대하여 적절한 응답과 함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심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자들에게 최대의 은혜로 갚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이와 같이 본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2. **㉠** 다윗은 평안한 때에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1, 2절)

- ㉠** (1)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였다(2절).
- (2) 즉 그는 자기를 존귀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보답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 (3) 우리는 생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경험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 (4)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참조, 눅 17:7-10).

3. **㉠**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자신의 소원을 누구에게 말하였는가? (2절)

- ㉠** (1)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 (2) 나단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일군으로서(12:1-15; 왕상 1:11; 대상 29:29; 대하 9:29)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의 직무였다(참조, 삼상 3:21-4:1).
- (3)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양심으로 여겨졌으며 그들은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였다(참조, 합 2:1).

4. **㉠** 나단은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열심에 대해 어떤 권면을 하였는가? (3절)

- ㉠** (1)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므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라'고 하였다.
- (2) 이처럼 남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이나 계획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좋다.
- (3) 특별히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더 더욱 그 일의 성취를 위해 격려해 주어야 한다.
- (4) 성도들에게 있어서 서로간의 권면과 격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참조, 행 15:32; 살전 5:11).

5. **㉠**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2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무엇인가? (4-7절)

- ㉠** (1)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그러므로 구태여 이제 와서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

다는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지 건물의 크고 작음이 아니었다.

- (2) 더우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에 부족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제한된 처소에 국한되실 수가 없었다(왕상 8:27).
- (3) 두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의 450년 동안 법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오셨는데 그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성전 건축을 명하신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 일을 분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었다.
- (4)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구하신 것은 올바르게 참된 예배였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 많은 제물이나 웅장한 성전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이다(참조, 삼상 15:21-23).

6. **㉠**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기 원하는 다윗의 소원을 금하시고 오히려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8-12절)

- ㉠** (1)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와 항상 동행하시며 그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2)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다윗의 통치 아래 평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3)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은 후에도 그의 자손을 통해 그 나라를 영원히 건고케 하시겠다고 선언하셨다. 이 약속은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뿌리에서 탄생할 메시아의 왕국을 의미한다(사 11:1).

7. **㉠**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대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어떤 것인가? (12-16절)

- ㉠** (1)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12, 13절).
- (2) 다윗 대신 그 아들(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셨다(13절).
- (3) 비록 다윗의 죄는 징벌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할 것이다(14, 15절).
- (4) 그러므로 다윗 후손의 집과 나라,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16절). 이 언약은 다윗 집에 의한 중단 없는 통치를 보증하지는 않는다(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것을 중단시켰다).
- (5) 그러나 이 언약은 통치권이 항상 다윗 왕조와 함께 남아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
- (6)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약속들의 궁극적인 성취이며(눅 1:31-33) 비록 현 시기에 그가 다윗의 위에서 통치하고 있지는 않지만(히 12:2) 그의 재림으로 그는 이 위를 취할 것이다(참조, 마 1:11; 19:28; 행 15:15-17).

8. **㉠** '묵시' (默示)란 무엇인가? (17절)

- ㉠** (1) '묵시'란 '지인'(知人), '선견자'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는데(삼상 9:9) 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계시의 한 방안을 말한다.
- (2)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기 위해 주로 사용하신 방법이 '묵시', 즉 '말씀'이었다(참조, 욕 1:1; 암 1:1; 미 1:1; 나 1:1; 합 1:1).
- (3)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령)에 의해서 선지자들에게 전달되었다(참조, 사 61:1).

9. **㉠** 다윗은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8-29절)

- ㉠** (1) 주 여호와(19절)
- (2) 지도자와 안내자(19절)
- (3) 전지(全知)하신 분(20절)
- (4) 비밀을 나타내 보이시는 자(21절)
- (5) 광대(廣大)하신 분(22절)

- (6) 유일하신 참 하나님 (22절)
- (7) 지상에서 특별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분 (23, 24절)
- (8) 기적을 행하시는 분 (23절)
- (9) 이스라엘의 하나님 (24, 26절)
- (10) 만군의 하나님 (26절)
- (11) 말씀이 참되신 하나님 (28절)
- (12)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신 분 (25-29절)

10. **㉠** 다윗은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18절)

- ㉠** (1)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였다.
- (2)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분명히 '회막의 바깥 뜰'을 의미하며 '앉아서'란 말은 동양 관습처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앞으로 굽힌 채 바닥에 앉은 모습을 의미할 것이다.
- (3)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가 장소를 특별히 정하여 정돈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 가야 됨을 배울 수 있다.
- (4) 사실 기도는 단순한 언어의 연결이 아니라 전인격(몸과 마음)을 동원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영적인 제사이다.

11. **㉠**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기도드린 내용은 무엇인가? (18절)

- ㉠** (1)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란 내용의 기도이다.
- (2) 즉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음을 고백하였다.
- (3)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대한 성도의 합당한 순종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 주었다.
- (4) 다윗은 성전 건축의 특권을 잃은 것을 슬퍼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래적 축복의 약속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18-29절).
- (5) 이처럼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참조, 마 26:39, 42).

12. **㉠**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9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차원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당신의 계시를 밝히셨다'는 뜻이다.
- (2)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질과 형편을 생각하셔서 절친한 친구에게 대하듯이 하셨다는 것은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다.
- (3) 사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간격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참조, 사 59:2).
- (4) 그러나 이 엄청난 간격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자신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 간격을 메꾸셨다(참조, 딤후 2:5).

13. **㉠** 다윗이 하나님께 더 많은 말로 간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0, 21절)

- ㉠** (1)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이다(20절).
- (2)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참조, 마 10:30).
- (3) 은혜의 계약이 주는 약속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 약속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시다.
- (4)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14. **㉠** 다윗은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들어왔는가? (22-24절)

- ㉠** (1) 참 신으로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들어왔다.
- (2) 다윗은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높이 찬송할 수 있었다(참조, 욥42:5).

- (3) 즉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23절).
- (4) 이러한 찬양과 고백은 무상적인 관념(觀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에 대한 생생한 체험에서 우리 나온 것이었다.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라 할 수 있다.

15. **㉠**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24절)

- ㉠** (1)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하였다.
- (2) 이처럼 이 언약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언약이다(요일4:10).
- (3) 이러한 언약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무르게 된다.
- (4) 이 언약을 파기시킬 자는 아무도 없다(참조, 롬8:31-39).

16. **㉠**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무엇만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25절)

- ㉠** (1)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지기를 기도했다.
- (2) 그는 더 큰 것을 바라지도 않았으며 더 못한 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 (3) 우리도 이처럼 주신 약속에 따라 주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만을 기도해야 한다.
- (4)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약속하신) 것을 이뤄나가시기 때문이다.

17. **㉠**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해 달라' 고 했는가? (26절)

- ㉠** (1)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2)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야 한다.
- (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도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내용이었다(마6:9-13; 요12:28).
- (4)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참조, 요17:1).

18. **㉠**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7-29절)

- ㉠** (1)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 (2)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이다(참조, 히4:14-16).
- (3) 신약 시대에서 은혜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참조, 요14:6; 히6:20; 7:24, 25; 10:19-23).

19. **㉠** 다윗은 자신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영영히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9절)

- ㉠** (1)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기 때문이다.
- (2) 즉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다는 것은 왕권 계승이 멸절되지 않으며 또한 확고히 서게 되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요 신앙이다(참조, 시72:17).

제 8 장 다윗의 영토 확장

단락구분 1-2 다윗이 블레셋을 정벌하고 모압에게 조공(朝貢)을 받다 / 3-4 소바 왕을 물리치다 / 5-8 다메섹 아람 사람을 정벌하고 전리품을 얻다 / 9-10 하맛 왕 도이가 예물을 가지고 오다 / 11-12 예물과 전리품을 여호와께 봉헌하다 / 13-14 다윗이 예물을 치고 수비대를 설치하다 / 15-18 다윗의 치세(治世)

1 이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퓌암마를 빼앗으니라

2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3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테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4 그 마병 일천 칠백과 보병 이만을 사로잡고 병거 일백 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밭의 힘줄을 끊었더니

5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 이천을 죽이고

6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7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 오고

8 또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대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9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군대를 쳐서 패하였다 함을 듣고

10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

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패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11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13 다윗이 엄곡에서 에돔 사람 일팔 팔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14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5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새

16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17 아히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18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1. ㉠ 전장과 본장의 관계를 논하라.

- ㉠ (1) 전장(前章)은 다윗 제국이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장(場)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강령에 대처한 준비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 주었다.
- (2) 반면에 본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압박받는 민족의 지위에서 대제국으로 부상하게 된 투쟁사(鬪爭史)가 간략하게 다루어져 있다.
- (3) 이로써 다윗 시대의 초기 역사는 일단락(一段落)되고 본장에 기록된 사건들 중에 대다수는 이후에 언급된 기사들 속에서 보다 완전하게 서술되어 있다.
- (4)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義)를 구했었다(6, 7장).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본장에 기록된 많은 승리를 다윗에게 안겨 주셨다(참조, 마 6:33).

2. ㉠ '메퓌암마' 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1절)

- ㉠ (1) 문자적으로는 '어머니의 지배' 또는 '모성(母城)의 굴레' 라는 뜻이다.
- (2) 이곳은 다윗이 빼앗아 다스리게 된 블레셋의 중요 성읍으로 아마 '가드'(대상 18:1)를

가리키는 듯하다.

- (3) 이곳은 원래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던 곳(2:24)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의 '굴레' 또는 '거침들'이 되었었다.
- (4) 그런데 다윗은 이곳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 오히려 그들을 제어하는 '굴레'로 삼은 것이다.
- (5) 이처럼 강한 자가 더 강한 자에게 무장 해제되면 그 가졌던 무기는 도리어 그를 치는 데 사용된다(참조, 눅 11:22).
- (6)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을 의미하고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내 성취될 것이다(참조, 히 12:1-13).

3. ㉠ 다윗은 모압을 어떻게 정벌하였는가? (2절)

- ㉠ (1) 다윗은 모압 사람들을 줄로 재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 두어 종으로 삼았다.
- (2)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비를 베푸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소년과 노약자로서 모압 자손의 씨를 완전히 말리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 (3)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위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 (4) 이리하여 발람의 예언은 실현되었다. 즉 '한 울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과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는 예언이다(민 24:17).
- (5)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악에 대한 정의로운 대처가 있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사랑의 행위를 잊지 말아야 한다.
- (6) 사랑 없는 정의는 교만일 수밖에 없고 또한 정의 없는 사랑은 진리를 무너뜨리고 만다.

4. ㉠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과의 전투에서 거두었던 전적(戰績)은 무엇인가? (3, 4절)

- ㉠ (1) 다윗은 마병(馬兵) 1,700명과 보병(步兵) 20,000명을 사로잡았다(3절).
- (2) 그런데 마병 1,700명이라는 수자는 병거(兵車) 1,000과 기병(騎兵) 7,000에 대한 필사자(筆寫者)의 착오인 듯하다(참조, 대상 18:4).
- (3) 다윗은 노획한 말들의 대부분을 발의 힘줄을 끊어서 최소한 전쟁 때는 못써먹게 만들었다(4절).
-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의 수자를 많이 하지 말라' 고 하셨기 때문이다(신 17:16).
- (5) 다윗은 그의 경험으로부터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말은 안전을 위해 헛 것이다'(시 33:16, 17).
- (6)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아야 한다(참조, 시 20:7).

5. ㉠ '다메섹 아람'은 어느 지점에 있는가? (5, 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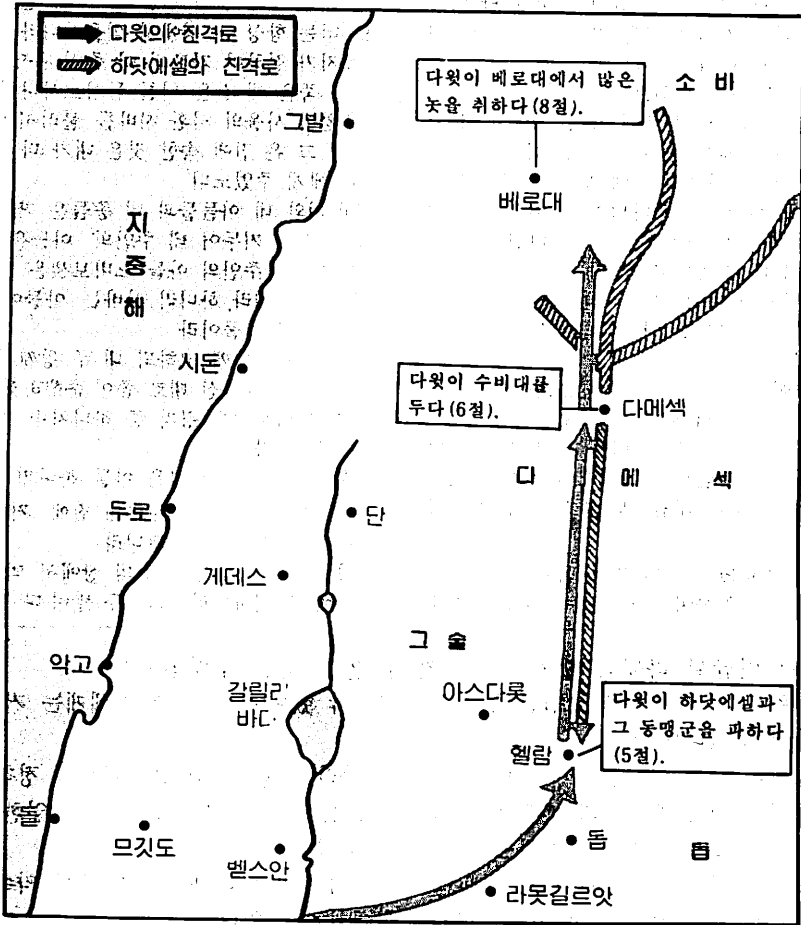
- ㉠ (1) 다메섹 아람이란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Damascus)을 중심으로한 인근 지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썸의 아들 아람(창 10:22)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진다.
- (2) 이 도시는 동쪽으로 안티레바는 산맥과 남서쪽으로는 헤르몬 산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스왓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그 중심부에는 바르발 강이 흐르고 있는 관계로 농부들은 그 강물을 끌어들여 관개용수로 사용하였으며 과수원과 정원으로 유명하다.
- (3) 그런데 그곳 주민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원조함으로써 인해서 다윗은 하닷에셀의 주력 부대를 무찌른 후 그들을 공격하여 이스라엘로 복속시켜 버렸다.

- (4) 이처럼 세상의 어떠한 연합 세력도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는 파멸되고 만다(참조, 사8:9, 10).
6. **㉠** 다윗이 이방 민족들을 차례로 무찌를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6절)
- ㉠** (1)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2)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여호와와 구원'을 노래할 수 있었다(참조, 시21:1, 13).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구원' 섭리를 인정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신다.
7. **㉠** 다윗이 하닷에셀과의 전투에서 얻었던 전리품은 어떤 것들인가? (7, 8절)
- ㉠** (1) '금방패' (7절)와 많은 '낚시' (8절)이었다.
 (2) 다윗은 이러한 전리품들을 성역(聖役)을 위하여 평화적 도구로 사용하였다(11절).
 (3) 이와 같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불의의 병기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한다(참조, 사2:2-5; 60:4-14).
8. **㉠** 다윗의 연전 연승(連戰連勝)을 축하하며 예물을 보내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9-12절)
- ㉠** (1) 하맛 왕 '도이'가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예물을 전달하였다(9, 10절).
 (2) 방문의 목적은 다윗에게 문안하고 평화를 요청하며 그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3) 대상 18:3에 따르면 하맛 왕의 영토는 하닷에셀의 영토와 접하고 있어서 언제나 위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4) 다윗은 이 선물과 전리품을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대상 29장).
 (5) 이처럼 다윗이 같은 정복자이면서도 알렉산더나 시이저와 다른 점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이다(참조, 시 18:29-50).
 (6) 성도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참조, 고전 10:31).
9. **㉠** 다윗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統治)하였는가? (15절)
- ㉠** (1) 모든 백성을 '공(公)과 의(義)'로 다스려 나갔다.
 (2) 여기서 '공'이란 말은 '판단' 혹은 '공평'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을 말한다(시 72:1, 2).
 (3) 또한 '의'는 공의 또는 '정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표준에 부합하는 옳은 것을 가리킨다.
 (4) 그러므로 다윗의 통치는 신실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었다.
 (5) 이런 점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한 전형(典型)이다(참조, 계 19:11).
10. **㉠** 다윗은 자신의 내각(內閣)을 어떻게 구성하였는가? (15-18절)
- ㉠** (1) 군대 장관에 요압을 임명하였다(16절; 20:13).
 (2) 사관(史官)에 여호사밧을 임명하였다(16절; 20:24).
 (3) 제사장에 사독과 아히멜렉을 임명하였다(17절).
 (4) 서기관에 스라야를 임명하였다(17절; 20:25).
 (5) 그렛 사람과 블셋 사람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브나야를 임명하였다(18절; 20:23).
 (6) 대신(大臣)으로 다윗의 아들들을 임명하였다(18절; 20:26).
 (7) 우리 주 예수께서도 당신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책을 맡기셨다(참조, 막 13:34; 엡 4:8-11).
 (8) 그 직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왕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사장이다(참조, 계 1:6).
11. **㉠**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누구를 관할하는 총독이 되었는가? (18절)
- ㉠** (1) '그렛 사람'과 '블셋 사람'을 관할하였다.
 (2) 여기서 '그렛' 사람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레데'섬 사람을 말한다(행 2:11).

- (3) 그리고 ‘블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 (4) 이들 ‘그렛’과 ‘블렛’ 거민들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통치 안에 있게 되었으며 주로 용병(傭兵)으로서 이스라엘을 도왔다(왕상1:38).
- (5) 이와 같이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게 된 이 사건은 앞으로 있을 복음의 이방 침투를 예표하는 귀한 사건이다(참조, 은 1:1, 2; 3:1-10; 요 10:16; 행 11:1-18).

지도자료

다윗의 하닷에셀 (Had adazer) 정벌



다윗이 소바(Zobah) 왕 하닷에셀과 그 동맹군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쳐서 승리한 것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였던 여호와 덕분이었다(6절). 그 사실을 잘 아는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공의로써 다스리기에 힘썼다(15절).

제 9 장 다윗이 사울의 집을 후대 (厚待) 하다

단락구분 1-6 다윗이 사울의 유족(遺族)을 찾다 / 7-8 다윗이 므비보셋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들다 / 9-13 다윗이 사울에게 속했던 재산을 므비보셋에게 돌려 주다

1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2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3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이니이다

4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5 다윗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 오니

6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7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8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9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10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궤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 다섯이요 종이 스물이라

11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2 므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1. ㉠ 본장에 언급된 다윗의 행동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 ㉠ (1) 다윗은 왕정 초기에 고달픈 투쟁을 치루어야 했으며 그 결과 그에게는 거의 안식의 기간이 없었다(8장).
- (2)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온 나라를 평정시켰으며 평화를 정착시켰다.
- (3) 여기서 그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삼상 20:14, 15)을 회상하고 그의 유일한 유족(遺族)인 므비보셋을 찾아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되었다.
- (4)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모범적인 인간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
- (5)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인간에 대한 의무 또한 게을리하지 않는다 (참조, 요일 4:20, 21).

2. ㉠ 다윗이 사울의 유족(遺族)을 찾으려고 수소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 (1) 요나단과 맺은 언약(삼상 20:42)을 실행하기 위해서였다(1절).
- (2) 즉 사울의 유족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수소문하였다(3절).
- (3) 이처럼 우리가 약속한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4) 그리고 진정한 우정의 소유자는 친구가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사랑하는 자이다(참조, 잠18:24).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죽기까지 희생한 것처럼 사랑을 행해야 한다(참조, 요15:15).

3. **㉠** 다윗이 사울의 유족에게 베풀고자 했던 '은총'은 어떠한 성격을 지닌 것인가? (3절)

- ㉡** (1)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
- (2)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 '은총'이다(참조, 삼상20:14, 15).
- (3)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은총'이란 희생을 동반한 '은총'을 말한다(참조, 요일4:10).
- (4) 또한 이 '은총'은 경건에 의한 '은총'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하는 '은총'일 뿐만 아니라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총'이다.
- (5) 마지막으로 이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요일4:19-21).

4. **㉠** '시바'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2-4절)

- ㉡** (1) '시바'란 '힘'이라는 뜻이다.
- (2) 사울 왕가의 몰락 이후 '시바'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는 사울의 재산을 관리해 온 듯하다(참조, 삼상9:1, 2).
- (3) 그는 사울 집안의 일개 종으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을 거느리고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살면서 사울의 땅을 경작하고 있었다.
- (4) 다윗은 그에게 므비보셋을 돌보라는 사명을 부여했다. 그러나 그는 므비보셋을 모략하였고 그 대가로 므비보셋의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삼하19:24-29).
- (5) 이처럼 그는 철저한 기회주의자로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 가는 악한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참조, 딤후3:1-5).

5. **㉠** '요나단의 아들 하나'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3절)

- ㉡** (1) 절뚝발이 므비보셋을 말한다(참조, 4:4).
- (2) 그는 이미 왕위 계승권도 상실한 상태였으며 더군다나 불구자로서 아무 소망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었다.
- (3) 그러나 다윗은 소망이 끊어진 그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였다.
- (4)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위로와 회복을 전하며 낙담한 자에게 소망을 심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것이다(참조, 사42:3; 마12:20).

6. **㉠** 므비보셋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4, 5절)

- ㉡** (1)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 (2) 마길은 다윗이나 다윗 정부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지 않고 한 연약한 인간에게 동정을 베푸는 심정으로 므비보셋을 환대하였다.
- (3) 뿐만 아니라 그는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 음식을 제공해 준 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17:27).
- (4) 이처럼 그는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 주는 지극히 선한 사람이었다(참조, 행15:26).
- (5) 하나님은 이런 자의 선행을 기뻐받으시며 당신의 나라를 상속하신다(참조, 마25:31-46).

7. **㉠**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엎드려 절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6절)

- ㉡** (1) 므비보셋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왕 또는 주인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고백적 행동이었다(참조, 마2:11).

- (2) 다윗도 요나단이 왕위에 오르려 했을 무렵 그에게 그렇게 영예를 표했다(삼상 20:41).
- (3) 그러나 이제는 사태가 완전히 역전되어 사울 왕가의 대표가 다윗에게 절한 것이다.
- (4) 이처럼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 들 줄 아는 자는 영예를 획득하게 된다(참조, 잠15:33).

8. **㉠** 다윗은 므비보셋을 어떻게 안심시켰는가? (7절)

- ㉠** (1) '무서워 말라' 는 말로 안심시켰다.
- (2) 아마도 그 당시 므비보셋은 동방에서 폐위된 왕가가 흔히 당하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상상했을 것이다.
 - (3) 사실 동방에서는 새로 권력을 쟁취한 자가 그 전임자의 모든 남자 친척을 처형하는 것이 상례였다.
 - (4) 그러므로 동방의 정책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의 이러한 위로의 말은 참으로 관대한 것이다.
 - (5) 이것은 사단의 왕가에서 패락을 추구하던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대함을 상징한다(참조, 요 14:27).

9. **㉠**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베푸는 '친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7절)

- ㉠** (1) 하나님을 닮은 친절(3절)은 결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전 10:24). 개인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행사되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정책적이며 상업적인 술수일 뿐이다.
- (2) 또한 친절을 진실로 행하는 자는 능력이 허락되는 한 자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즉 선하고 유익한 자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참조, 눅 6:35).
 - (3) 그리고 친구들에게만이 아니고 원수들에게도 그 영역이 확장되며(마 5:44, 45, 48) 종교적으로 같은 당파 요원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참조, 엡 6:24; 요일 5:1).
 - (4) 하나님을 닮은 친절은 풍성하고(고후 8:2, 3, 9-11) 자기 부정적이면서 자기 희생적이다(고전 13:7).
 - (5)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은 친절은 오래 참으며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다(참조, 시 103:17; 136편; 고전 13:4, 8, 13).

10. **㉠**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어떠한 특혜를 베풀었는가? (7절)

- ㉠** (1)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박탈된 사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다.
- (2) 이처럼 참된 사랑의 행위는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필요까지 채워 주는 것이다(참조, 약 2:16).
 - (3) 뿐만 아니라 다윗은 므비보셋을 왕의 아들 중의 하나처럼 그 자신의 식탁에서 항상 같이 먹을 수 있는 귀빈의 위치로 후대해 주기까지 하였다.
 - (4) 므비보셋이 누린 특권은 그의 비참했던 처지를 보상하는데 충분했으며 앞날에 대해 큰 기대를 안겨 주었다.
 - (5)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의 보상과 위로를 생각하며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참조, 약 1:2-4).

11. **㉠** 므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적으로 무엇을 예표하는가? (7절)

- ㉠** (1)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받을 축복을 예표한다(참조, 마 8:11; 계 2:7; 19:9). 이 축복이란 사실상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의 계속이며 완성이다.
- (2) 우리는 하늘나라에 배설된 당신의 식탁에서 성령에 의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될 것이다.
 - (3) 예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고 말씀하셨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떡을 먹는 자는 진정한 복의 소유자이다 (참조, 눅 14:15).

12. **㉠** 므비보셋은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 하였는가? (8절)

㉠ (1)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하였다.

(2) 므비보셋은 다윗이 사울에게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용어으로써 자신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삼상 24:14).

(3) 이것은 감사의 한 표현이며, 그와 다윗 사이의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낮아질 때는 스스로 겸비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 겸비한 자를 다시 높이시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낮추시고 우리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

13. **㉠** '공궤(供饋)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0절)

㉠ (1)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을 주라' 또는 '부양(扶養)하라'는 의미이다.

(2) 다윗은 므비보셋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어떠한 수요가 요청되든지 간에 충분한 공급 약속과 더불어 '시바'를 그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3) 이와 같이 다윗은 므비보셋의 모든 이익과 현재와 미래, 본인과 친척, 사회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 주었다.

(4) 다윗의 이같은 처사는 그가 먼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 있었다(시 23:1).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자는 참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없고 사랑의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성취욕일 뿐이다.

14. **㉠** 시바는 므비보셋의 집을 잘 섬기라는 다윗의 명령에 무엇이라 대답하였는가? (11절)

㉠ (1)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하였다.

(2)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앞에 놓여진 재물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3) 사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주인 므비보셋을 모함하는 일에 앞장서는 기회주의자였다(참조, 16:3, 4; 19:24-30).

(4) 이처럼 재물에 눈이 먼 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이웃을 몰락시키는 행위를 스스로 없이 행한다.

(5) 적어도 청지기라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충성을 다하여 주인을 섬겨야 한다(참조, 앰 6:5-8; 골 3:22).

15. **㉠** 므비보셋의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 (12절)

㉠ (1) 므비보셋의 아들 이름은 '미가'였다.

(2) 그는 사울 집안의 대표자가 되었으며 수많은 후손들을 가지게 되었다(참조, 대상 8:35-40; 9:40-44).

(3)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다(삼상 20:15, 23, 42).

(4)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울의 죄가를 타하셨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의로운 신앙은 그대로 인정하셨던 것이다.

(5)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합 3:2).

제 10 장 다윗이 암몬 아람을 물리치다

단락구분 1-5 하늘을 조문(弔問)하는 다윗의 사자들이다/ 육을 당하다/ 6-8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 오다/ 9-14 요압이 암몬과 그 동맹군 아람인을 패주시키다/ 15-19 재집결한 아람 군대가 두번째로 패주하다

1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버가 내게 은총을 베풀 것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버지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3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4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불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5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기 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6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벵르흙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이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일천과 돕 사람 일만 이천을 고용한지라

7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8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흙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9 요압이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맨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10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버지세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11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12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13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14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버지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15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16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대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17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18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칠백 승의 사람과 마병 사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19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라.

- ㉠ (1) 본장은 8:12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된 다윗과 암몬, 아람과의 투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2) 그러나 본장의 사건은 8장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기록되었다.
 (3) 즉 본장의 사건은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겼던 한 범죄의 드라마(11장)가 실행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4)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쁨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의 간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靈眼)을 소

유하지 못한다면 그 기쁨은 순간적일 수밖에 없다.

2. **㉠** 다윗이 적국(敵國)인 암몬에 조문 사절단(弔問使節團)을 보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 (1) 다윗이 암몬 나라의 왕이었던 나하스 생전에 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2절).
 (2) 나하스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잔인한 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삼상 11:2) 다윗에게는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다.
 (3) 다윗은 나하스의 친절이 순수한 것인가 불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베푼 친절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4) 이처럼 한 개인이 자기의 이익과 성취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5) 그러나 구제받은 자는 구제한 자의 동기가 어떠한지 그 자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6) 감사는 모든 덕(德)의 어머니이다.

3. **㉠** 암몬의 방백들과 그 왕 하논은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환대하였는가? (3, 4절)

- ㉠** (1) 암몬 왕 하논과 그 방백들은 다윗의 사신들에게 수치를 입힘으로써 다윗을 모욕하였다.
 (2) 왜냐하면 암몬 왕과 그 방백들은 다윗의 선한 동기(2절)를 오해하고 악하게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이 거짓된 인간들은 곧잘 남도 자기들처럼 거짓된 것으로 생각한다.
 (4) 그리고 자기가 이웃에게 악의를 품고 있는 자들은 이웃이 자기들에게 호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한사코 믿지 않으려고 한다.
 (5) 그러므로 근거 없는 의심은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4. **㉠** 하논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3, 4절)

- ㉠** (1)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구별하거나 온전히 추구할 수 없다.
 (2)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는 그 인간들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당하여야만 했다(참조, 눅 11:14, 15).
 (3) 따라서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세상의 핍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이상한 일이 아니다(요일 3:13).
 (4) 그런 까닭에 성도들의 선한 일도 종종 악인들의 오해를 받고 핍박까지 받아야 할 때가 있다(참조, 마 5:10).
 (5) 그러나 이러한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다(요 16:33; 롬 12:19-21).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이다.

5. **㉠** 하논은 다윗의 신하들에게 어떠한 모욕을 주었는가? (4절)

- ㉠** (1) 하논은 다윗의 신하들에게 수염을 절반 깎고 의복의 중동 불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냈다.
 (2) 중동 지방에서 수염은 그 사람이 자유인이라는 표시이며 그것의 한쪽을 깎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도의 모욕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처럼 취급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3) 더우기 제사장들만 속옷을 입기 때문에(출 28:4) 속옷이 없는 사신들의 걸옷을 엉덩이 바로 위까지 자른다는 것은 수치스럽고도 지독한 모욕이었다.
 (4)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신인 우리들이 옛날 다윗의 사신들이 당했던 모욕과 고난 이상의 것을 당해야 할 때가 있다.
 (5)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멸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에 즐겨 담당할 수 있다(참조, 답후 1:12; 2:3, 4; 뱀전 4:14).

6. **㉠** 다윗은 하논에게 모욕을 당하고 돌아오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는가? (5절)

- A** (1)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고 하였다.
- (2) 여기서 '여리고'는 암몬 족속의 땅 특히 그들의 수도 람바에서 가까운 땅이므로 다윗은 그곳에 머물러 있도록 명했다.
- (3) 이것은 사신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려는 다윗의 관대한 조치였으며 동시에 암몬 족속에 대한 다윗의 극심한 분노를 나타낸 것이다.
- (4) 즉 모욕당한 사신들을 암몬의 땅과 가까이 있게 함으로써 다윗은 자기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모욕한 암몬 자손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示唆)했다.
- (5)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수치스러운 일을 은밀하게 처리한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덕스럽다는 칭송을 받을 것이다(참조, 고전 10:23).
- 7. C** 다윗이 수치당한 사신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한 조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5절)
- A** (1) 우리의 일상 생활 특히 신앙 생활에서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참조, 히 10:36).
- (2) 세월의 흐름은 많은 아픔들을 진정시켜 주며 또 다른 희망으로 인도할 것이다(약 1:4).
- (3)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당한 비난에 너무 착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손상당한 명성은 조금만 지나면 수염이 자라나듯 다시 회복된다.
- (4) 사실 인내란 소극적으로는 참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그 상황을 이겨 나가는 것이다.
- 8. C** 암몬 왕 하논은 자기의 행동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6-8절)
- A** (1) 그는 이웃 몇몇 나라에서 외인 부대를 모집하여 전쟁 준비를 하였다(대상 19:6-9).
- (2) 즉 암몬 왕은 자기의 무례함에 대해서는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 (3) 자기 합리화는 현대인에게도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병으로서 양심의 청결을 유지하고 복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 9. C**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 대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 (9-11절)
- A** (1) 하논의 군대와 수리아 4대국의 연합군이 2대로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8절).
- (2) 요압은 현명한 장군답게 적군의 의도를 재빨리 간파하고 자기 군대도 양분하였다.
- (3) 그러나 군대는 양분하였지만 전쟁 중에는 서로 돕기로 약속하였다(11절).
- (4) 공동 목표를 향한 협동 정신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도록 한다(참조, 전 4:9-12).
- (5) 우리의 선한 싸움(딤펴전 6:12)에 있어서도 자기의 삶 뿐 아니라 이웃의 삶도 돌아볼 줄 아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참조, 고전 10:24; 빌 2:4).
- (6) 이웃이 곤경에 처했을 때 이웃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참조, 갈 6:2).
- 10. C**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무엇을 위하여 '담대하라'고 독려(督勵)하는가?(12-14절)
- A** (1)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라고 하였다(12절).
- (2)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읍'이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국토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참조, 호 9:3; 슥 2:12).
- (3) 따라서 요압의 말 속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적들에게 정복을 당하면 여호와에 대한 예배는 고사하고 수치를 당하며 우상 숭배의 터전이 되리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 (4) 이처럼 의(義)를 사랑하는 자들은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
- (5) 이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뚜렷한 지향점이 있었지만 그들의 대적인 연합군은 뚜렷한 목적 없는 외인 부대였으므로 모두 쉽게 도망하고 말았다(13, 14절).

(6) 우리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롬 8:31-39) 전쟁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참조, 대하 20:15).

11. **㉠** 다윗의 군대에 패배한 아람 군대는 어디에서 재집결하였는가? (15-17절)

㉠ (1) 그 군대는 트랜스 요르단 헬람에 재집결하였다(16절).

(2) 이때는 아람 군대 중 가장 세력이 컸던 하닷에셀이 유브라테 강 건너편의 아람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재침을 노렸다(16절).

(3) 이처럼 하나의 불의는 또 다른 불의를 낳고 그 불의의 사슬에 얽매어 끝내 파멸에 이르게 된다.

(4) 또한 불의한 자들은 자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부정과 사악을 일삼는 자들을 총동원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야 만다.

12. **㉠** 아람의 재침(再侵)은 결국 다윗에게 어떠한 결과를 안겨 주었는가? (17-19절)

㉠ (1) 아람의 재침은 다윗에게 또 하나의 승리를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더욱 창대케 하였다.

(2) 이때에 다윗은 아람 병거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였다(참조, 대상 19:18). 본문에서 700승이란 아마도 7,000승에 대한 필사자(筆寫者)의 착오인 듯하다(대상 19:18).

(3)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 개인의 영예와 아울러 '큰 강 유브라테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 15:18; 수 1:4)는 하나님의 약속은 천 년이 지나 다윗 시대에 성취되었다.

(4)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공간적 감각을 초월하며 당신의 선하신 경륜을 따라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참조, 벧후 3:8, 9).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며 기다릴 뿐이다.

13. **㉠** 본장의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7-19절)

㉠ (1) 다윗에게는 자신의 호의가 그토록 방자하게 거부당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피로운 일이었다(4절).

(2) 그러나 이 사건은 다윗의 권력 확장과 이스라엘의 더 확실한 평화를 확보하는 것으로 끝났다(18, 19절).

(3) 이처럼 인간은 간악한 피로 일을 계획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 그 모든 계획들 위에 역사하신다(참조, 잠 16:9).

(4) 예를 들면 초대 교회의 핍박은 복음의 더 넓은 확산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5)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입히나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때 예전에 받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된다.

본장의 요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12절).

제 11 장 다윗의 범죄

단락구분 / 1 요압이 람바를 포위하다 / 2-5 다윗과 밋세바의 간음 / 6-13 다윗이 장부(情婦)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하다 / 14-25 다윗이 우리아를 일선에서 전사하게 하다 / 26-27 다윗이 밋세바를 취하다

1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람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2 저녁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답다와 보인는지라

3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아니니이까

4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 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케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 가니라

5 여인이 잉태하매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6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헛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7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8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9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10 혹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11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케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채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 하나이다

12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13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14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부쳐 요압에게 보내니

15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16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17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헛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18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새

19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20 혹은 왕이 노하여 네게 말쑥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21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멧돌 윗쪽을 그 위에 던지매 저가 데벳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네가 말하기를 왕의 중 헛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22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23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24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중 헛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25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으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26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27 그 장사를 마치매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
으로 데려 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

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
더라

1. **㉠ 본장의 내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11-20장에는 정치, 윤리, 그리고 가정 관계에서 다윗의 갈등이 묘사되어 있으며 반복적으로 죄의 불가피한 그리고 무서운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 (2) 특히 본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고상한 영교를 가졌던 선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죄악(간음과 살인)의 자리로 떨어진 사건이 기록되었다.
- (3) 이 죄악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까지도 죄악의 권세에 관해 심각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 (4)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더라도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결과를 적나라하게 밝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주고 있다.

2. **㉠ '왕들의 출전할 때'란 언제를 가리키는가? (1절)**

- ㉠** (1) '해가 돌아왔을 때'이다.
- (2) 해가 돌아왔을 때란 아빌(니산) 월로 시작되는 봄, 즉 우리의 3, 4월경을 말한다(참조, 왕상 20:22, 26; 대하 36:10). 겨울 동안 쉬었던 전쟁은 대개 봄 장마가 끝난 뒤에 다시 시작한다.
- (3) 다윗은 이때에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요단 강 동편에 위치한 람바(암몬의 수도이며 현재는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로 출전시켰다.
- (4) 그러나 다윗 자신은 예루살렘의 안락한 처소에서 머물러 있었다.
- (5) 생사가 달려 있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자신의 안일에 빠져 있던 다윗에게 범죄의 유혹이 시작되었다(2절).
- (6) 이와 같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는 평안할 때 방심하다가 범죄할 가능성이 많다(참조, 골 4:2).

3. **㉠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난 때는 언제인가? (2절)**

- ㉠** (1) 저녁 때이다. 뜨거운 대낮에 낮잠을 자는 풍습은(삼하 4:5) 팔레스틴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으며 지금도 모든 열대 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다.
- (2) 저녁이 되어 잠에서 깨어난 다윗은 자기 처소의 평평한 지붕 위에서(삼상 9:25) 거닐며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 있었다.
- (3) 이와 같은 일은 아마도 다윗의 일상적인 습관이었을 것이다.
- (4)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유혹의 미끼를 던지며 인간들을 미혹한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을 굳게 하여 날마다 근신하며 영적인 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참조, 벰전 5:8, 9).

4. **㉠ 다윗의 범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2절)**

- ㉠** (1)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눈여겨 보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 (2) 눈이란 것은 유혹의 가장 보편적인 입구이다(참조, 창 3:6; 수 7:21).
- (3) 이렇게 죄의 포로가 된 그의 눈은 정신을 흐리게 하고 도덕적 판단을 왜곡시켰으며 의지의 선택에 악영향을 미쳤다(참조, 잠 23:31-33).
- (4) 이런 이유에서 욕은 그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욕 31:1). 눈을 죄의 세계에 방임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전부를 죄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자들이다.

5. **㉠ 다윗에게 음욕을 품게 만들었던 여인은 누구인가? (2, 3절)**

- A** (1) 엘리암의 딸이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다(3절).
 (2) 대상 3:5에는 암미엘의 딸 '밧수아'로 나와 있다.
 (3) 그녀는 자기 집 안마당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고대 근동 지방의 집들은 그 집의 일부로 간주되는 폐쇄된 안마당을 가지고 있었다.
 (4) 그러므로 밧세바가 왕의 눈을 끌기 위해 고의적으로 목욕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5) 또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약 1:13-25)에 다윗의 음욕은 다윗 자신만의 허물임을 알 수 있다.
 (6) 이와 같은 음욕은 강한 충동의 자극 아래 놓인 이기주의적인 욕망으로 자신과 이웃을 동시에 파멸시키고야 만다.
- 6. C** 다윗은 밧세바가 유부녀(有夫女)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였는가? (3-5절)
A (1) 다윗은 사자를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 오게 하고 그녀와 더불어 동침하였다.
 (2) 다윗은 자기 앞에 놓여진 율법(출 20:14, 17)의 담을 헐어 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켰다.
 (3) 그는 자기의 권력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계명을 경멸하였던 것이다(12:9).
 (4)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과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일을 거리낌없이 행하고 있다.
 (5) 그러나 이런 잘못된 욕심들은 죄를 낳고 그 죄는 심판(사망)을 초래하고야 만다(참조, 약 1:14, 15).
- 7. C** 다윗의 죄가 심각한 것이라면 그 상대였던 밧세바는 과연 무죄(無罪)한가? (3-5절)
A (1) 밧세바가 무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녀는 너무 쉽게 몸을 허락했던 것이다.
 (2) 사실 다윗은 적극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밧세바 역시 그 범죄에 순순히 동조함으로써 인해 소극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3)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 아래서도 하나님의 법과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선한 의지를 대평개치치 말아야 한다.
 (4) 상황 윤리자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 설명을 통해 동정과 상대적인 선을 호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절대적인 규범을 제시하시고 그에 준한 생활을 원하신다.
 (5) 그러므로 우리의 도덕 기준은 절대적인 당신의 법에 기인한 것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담겨져 있다.
 (6)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마 6:13).
- 8. C**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6-8절)
A (1)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이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기분을 전환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발을 씻곤 하였다. 그래서 '발을 씻으라'는 다윗의 말은 집에 가서 쉬어도 좋다는 허락이었다.
 (2) 이것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게 함으로써 후에 간통으로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아 자신이라고 믿게끔 하자는 간교한 계책이었다.
 (3) 그는 죄의 결과(5절)가 나타나자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 죄의 은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참조, 창 3:6-10).
 (4) 죄를 은폐시키려는 그의 노력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런 성격을 지닌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다(참조, 욕 31:33).
 (5) 이와 같이 자기의 죄를 은폐하는 자는 행동하지 못한다(잠 28:13).

(6) 그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날날이 회개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을 치르고 난 자는 양심의 자유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된다(참조, 시 34:18; 51:17; 57:15; 사 66:2).

9. **㉠** **우리아는 다윗의 간계가 섞인 배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9-13절)**

- ㉠** (1)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서 평안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왕궁 문에서 다른 신하들과 함께 야영하였다(9, 13절).
- (2) 이 사실은 그가 정황을 바로 직시한 투철한 군인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즉 그의 동료들이 이방의 적들과 싸우고 있는 이때에 집에서 휴식과 쾌락을 찾는 것은 전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그의 자세는 11절에서도 잘 나타난다.
- (3) 다윗은 마땅히 이런 그의 결심에 가책을 받고 가슴을 치며 통회했어야 했다.
- (4) 그러나 다윗은 심각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이처럼 죄가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죄를 낳는다(참조, 약 2:10).

10. **㉠** **다윗이 우리아의 편에 요압에게 전해 준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14-17절)**

- ㉠** (1) 그것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에 배치하였다가 그를 적군의 손에 죽게 하라'는 것이었다(15절).
- (2) 그런데 다윗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회생의 당사자인 우리아의 편으로 보냈다는 사실은 사악한 목적에 그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고 그의 영혼이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더욱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 (3) 악인의 핍박 아래 삶의 희망이 희미하게 된 절망적인 순간에도 악한 수단에도 의존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죄를 감추기 위해 가장 큰 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 (4) 이처럼 욕욕은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케 하며 양심을 마비시키고 정의감을 빼앗아 간다. 세상의 많은 범죄 사건들도 대부분 이러한 욕욕을 채우려는 데서 발생한다. 그리고 세상 권력 중에는 못 사람의 회생으로 세워진 것들이 많다.

11. **㉠** **왕의 명령에 대한 요압의 태도는 정당한가? (16, 17절)**

- ㉠** (1) 요압의 태도는 세상의 권력, 즉 왕은 무서워하고 살아가신 하나님은 멸시한 잘못된 것이었다.
- (2)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이러한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나, 세상이나 하는 것이다(참조, 행 4:19).
- (3) 물론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우리들은 복종해야 한다(참조, 롬 3:1).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죄악이다(엡 6:1).
- (4) 또한 우리가 흔히 겪는 구조악(構造惡)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간과(看過)해 버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이다.

12. **㉠** **다윗은 자기의 군대가 패전하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이라 일축(一蹴)하였는가? (22-25절)**

- ㉠** (1)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25절) 고 하였다.
- (2) 다윗은 자기의 목적인 바(우리아를 죽이는 것)를 성취한 것 때문에 자기 병사들의 죽음(17절)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 (3) 그는 자기의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과 신앙을 팔아버렸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양심이 마비된 자들은 목적의 성취를 위해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13. **㉠** **다윗은 공범자(共犯者)인 요압에게 어떤 말로 격려하였는가(25절)**

- ㉠** (1)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고 하였다.
- (2) 그는 자기 죄로 전쟁 능력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격노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남발하였던 것이다.

- (3) 흔히 죄인들 중에는 마음에 사악과 행위에 부패가 가득하면서도 입술로는 가장 선한 자처럼 남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들이 많다.
- (4)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외식(外飾)이다(참조, 마 6:16-18; 7:21).

14. ㉠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였는가? (26절)**

- ㉠ (1) 그녀는 호곡(號哭)하였다. 이러한 밧세바의 애도는 의식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 (2) 유대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한 애도는 7일이 보통이며(창 50:10; 삼상 31:13) 특별한 경우 30일이었다(민 20:29; 산 34:8). 또한 과부의 애도 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 (3) 우리들의 눈물 가운데서도 자신의 불이익 때문에 그리고 체면 때문에 불가피하게 흘러 나오는 것이 있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눈물을 물리치신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마음을 씻는 슬픔에 대해 하나님은 위로와 긍휼을 베푸신다(욥 2:13).

15. ㉠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의 행동(간음과 살인)을 어떻게 보셨는가? (27절)**

- ㉠ (1)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을 악하게 보셨다.
- (2) 다윗의 성공은 완벽하였다. 우리아는 안전하게 제거되었으며 밧세바는 탄로가 나지 않을 날짜에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미래는 희망적이었다.
- (3) 그러나 희망에 들떠 있던 왕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 (4) 정치가들과 부당한 노동의 강요자들 그리고 은밀한 사기꾼들과 행악자들은 인간의 눈을 피하면서 충분히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는 있다.
- (5)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참조, 딤후 5:24, 25).

연구자료

다윗의 범죄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 본고(本稿)는 다윗의 범죄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다. 먼저 밧세바는 그 정조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상대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허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레 20:10). 또 피해자인 헛 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30명 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23:39) 죽기까지 충성한 참된 신하이다. 다윗의 간접 살인을 실행한 장군 요압은 지도자의 잘못된 명령을 수행한 잘못된 신하이며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충성된 부하가 아니다.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왕도 꾸짖을 수 있었던 참된 사역자로서의 모범을 보여 준다.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솔직하고도 빠른 회개를 하여(12:13; 시 51편) 사하심을 얻었을 뿐 아니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조상까지 되는 영광을 얻었다(마 1:6, 7).

제 12장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단락구분: 1-6 나단의 비유 / 7-12 나단의 책망과 심판 선언 / 13-14 다윗의 회개와 나단의 위로 / 15-23
 밧세바 조생자의 죽음 / 24-25 솔로몬의 출생 / 26-31 압론 땅 림바를 점령하다

1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2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3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우므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4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가져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5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람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 배나 값아 주어야 하리라

7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쁨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헛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압론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도다

10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은즉 같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책망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15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 심히 앓는 지라

16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7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다 붙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18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채상하시리로다 함이라

19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20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쁨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21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이니까

22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어니와

23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24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라

25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

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26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람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27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람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28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29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람바로 가서 취

서 취하고

30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31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1. ㉠ 본장에서 강조하려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전장은 다윗의 범죄를 기술했는데, 본장은 그의 회개를 언급하고 있다.
- (2) 비록 다윗이 범죄(간음, 살인)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그 관계를 회복하셨다. 즉 다윗은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다.
- (3)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 죄에 대한 형벌(15-23절)을 가하는 것이었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을 향해 화해의 표시로 솔로몬(24, 25)을 선물하시고 지난 날에 거침돌이 되었던 람바(26-31절)를 정복하게 하셨다.
- (5) 이처럼 본장의 중심 사상은 다윗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컸음에도 불구하고하시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이다.

2. ㉠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악하게 (11:27) 행동했던 다윗에게 누구를 보냈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언자(代言者)인 나단을 보내셨다(참조, 7:4).
- (2) 다윗에게는 이때 만큼 권고자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던 것이다.
- (3)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 백성이 죄에 빠지도록 간과하신 것 같지만 그 죄 중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참조, 사 57:18).
- (4)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사랑하셨다.

3. ㉠ 나단은 다윗의 잘못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적하였는가? (1-4절)

- ㉠ (1) 그는 지혜로운 비유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죄를 은밀하게 책망하였다.
- (2) 그 비유란 부자가 가난한 자의 새끼 양양을 불의하게 취하였다는 이야기였다.
- (3)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되 원수와 같이 하지 않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였다(참조, 살후 3:15).
- (4) 그러나 그가 해야 할 말,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은 딱뜨림 없이 전하였다.
- (5) 진리로 자유를 얻은 우리들도 불의한 자에 대해서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악의에서가 아니라 뜨거운 사랑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4. ㉠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5, 6절)

- ㉠ (1)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은 행인을 위해 자기 소유를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양 새끼를 잡은 부자에 대해 크게 노하였다.
- (2) 다윗은 새끼 양을 강탈한 불의로 인해 그는 양 한 마리 당 네 마리라는 율법(출 22:1)에 따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6절).

- (3) 또한 그는 가난한 자를 학대함으로써 패감을 느낀 부자의 포학성과 독선은 극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결하였다(5절).
- (4) 그는 자기의 죄악은 볼 줄 모르고 이웃의 허물에 대해 분노하였던 것이다(참조, 마7:3, 4). 이것은 부패한 인간성의 표출(表出)이다.
- (5) 우리에게는 이웃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의 위치를 점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참조, 갈 6:4).

5. **㉠** 나단의 권면을 듣기 전까지 다윗의 생활은 어떠하였는가? (1-6절)

- ㉠** (1) 다윗은 범죄한 날부터 나단의 방문이 있기까지 최소한 10개월 동안 이중 생활(二重生活)을 하고 있었다.
- (2) 그는 살인과 간음의 중죄(重罪)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건하고 정의로운 통치자와 모범적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생활하였다.
 - (3) 이와 같은 이중 생활은 죄에 빠져서 그것을 은폐하고자 애쓰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다.
 - (4)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한 자각 곧 죄의식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이미 행복은 느낄 수 없게 되며 죄에 너무 착념하기 때문에 참신앙을 지닐 수 없게 된다.

6. **㉠** 나단이 지적하였던 다윗의 죄는 무엇인가? (7-9절)

- ㉠** (1)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마음이 끌려 이웃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다(7, 8절).
- (2) 두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웃의 생명을 함부로 다룬 죄이다(9절).
 - (3) 사실 다윗의 모든 것(나라와 재산과 처와 명예 그리고 생명 등)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처지였다.
 - (4) 이처럼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자는 자신의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죄를 거듭하게 된다.

7. **㉠**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었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8절)

- ㉠** (1) 이 말은 왕이 죽었을 때 그 왕위를 물려받은 후계자가 전왕의 재산과 후궁들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동양의 관습에 따라 다윗도 사울의 부인들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뜻한다.
- (2)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부인들을 취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단지 한 명의 아내와(삼상 14:50) 한 명의 첩 리스바(삼하 3:7)만이 있었는데 그 후첩 조차도 아브넬이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 (3) 어쨌든 본질의 말씀은 당시 왕의 권한을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말씀은 아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가 면서 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자유 의지의 한계성이다.

8. **㉠**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살인죄에 대해 어떠한 보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10절)

- ㉠** (1) '같이 다윗의 집에서 영영히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 (2) 이 말은 다윗 당대 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 대부분이 전쟁과 살인 사건에 휩싸일 것이라는 말이다.
 - (3) 그 예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 형제 암논을 죽였고(13:28, 29)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살해되었으며(18:14) 아도니아도 그 형제 솔로몬에게 살해되었다(왕상 2:24, 25).
 - (4) 이와 같은 환란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 (5) 이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는 온 가정과 나아가 온 국가마저도 환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어 버리는 치명적인 것이다.

9. **㉠**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음죄에 대해서 어떠한 징벌을 예언하셨는가? (11,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대낮에 그것도 이스라엘이 지켜 보는 앞에서 욕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11절).
- (2) 이 예언대로 그의 아들 압살롬은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아히도벨의 간언을 받아들여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백주에 공공연히 동침하는 죄악을 저질렀다(16:20-22).
- (3)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징계의 씨앗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심어진다는 것이다.
10. Ⓒ **다윗이 은밀히 범한 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밝혀줬다고 하셨는가? (12절)**
- Ⓐ (1) 다윗은 은밀히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대낮에 공개적으로 밝혀시리라고 하셨다.
- (2) 이처럼 허위와 불법은 어두움을 찾으나 진리와 정의는 빛을 찾는다(참조, 요 1:5; 3:19).
- (3)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킬 때까지 불의를 밝혀시며 징계하실 것이다.
11. Ⓒ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지적하는 나단에게 무엇이든 대답하였는가? (13절)**
- Ⓐ (1)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 하였다.
- (2)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허위도 핑계도 대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다(참조, 시 51:1-19).
- (3) 따라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즉각적이었다. 즉 선지자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그 자리에서 선언하였다.
- (4) 결국 다윗의 회개는 신속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용서도 신속하였다.
- (5)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없는 고백을 한 점이다.
12. Ⓒ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죄값에 대해선 어떻게 하셨는가? (14절)**
- Ⓐ (1) 다윗이 낳은 아이에 대해 사형 선고로 내리셨다. 그 이유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 (2) 즉 그 세대의 악인과 이교도와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던 자가 그토록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비방했을 것이다.
- (3)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다윗의 선례를 들어 하나님을 비난하며 또한 자신들의 범죄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
- (4) 우리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자들이 범죄할 경우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 전체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참조, 롬 2:24).
- (5)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분부하셨다(마 5:14-16).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다.
13. Ⓒ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을 죽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 (1) 이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다윗에게 수치를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 속에서 이 아이를 죽게 하셨다. 참으로 그것은 사랑의 징계라 할 수 있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한 당신의 노여움을 나타내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다윗을 사랑하지만 그의 죄는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리시고 또한 이로써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셨다.
- (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감사하며 인내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참조, 히 12:11).
- (5) 이러한 징계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임을 밝혀 주는 한 통로이다(참조, 히 12:8).
14. Ⓒ **다윗은 밋세바가 낳은 아들이 많아 어떻게 하였는가? (15-17절)**

- A** (1) 그는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은 그 아이가 앓은지 7일이 되어 운명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 (2) 그가 이와 같이 행한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22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 (3) 사실 그는 불륜으로 얻었던 그 아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만한 염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히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이었다.
- (4)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참조, 함 3:2).
- 15. Q** 다윗의 간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5-17절)
- A** (1) 그의 간구는 본성적인 것(부성애)일 뿐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불이익에 대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간절히 회개한 것이다(참조, 시 51:3, 4, 13).
- (2)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뇌와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해 성도들을 성장시킨다(롬 5:3, 4).
- (3) 그의 기도는 비록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목적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 (4) 그는 빛과 힘과 위로를 얻었으며 또한 절망에서 벗어나 의로운 정신 속에서 어떠한 일(18절)이 일어나더라도 견디어 낼 수 있었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자녀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신다. 다윗은 심령의 윤택함이 필요했던 것이다.
- 16. Q** 다윗은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하던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18-20절)
- A** (1) 그는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 입고 여호와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난 후 '음식을 먹었다' (20절).
- (2) 그는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슬픔과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다.
- (3)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에 대해 기뻐하고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미덕이다(참조, 막 14:36).
- 17. Q** 다윗은 자기의 신하들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무엇이랴 답변하였는가? (21-23절)
- A** (1) 그는 아이가 살았을 동안에는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 자기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22절).
- (2) 즉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실지 누가 알랴' 하는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다.
- (3)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생명이 있는한 소망이 있으며 소망이 있는 동안에는 기도할 여지가 있음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참조, 약 5:13).
- (4)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죽자 그는 하나님의 처사에 만족하는 것이 자기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23절).
- (5) 성도의 신앙 생활에서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든 범사에 자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참조, 빌 4:17).
- 18. Q** 다윗은 자신이 더 이상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23절)
- A** (1)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는 이제 죽은 아이를 회생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 (2) 즉 그는 죽은 아이가 자기 기도의 영역 밖에 있으며 눈물과 금식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

(3) 이와 같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참조, 시 36:9;42:8).

19. **㉠**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밋세바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의미로써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24, 25절)

- ㉠** (1)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그 이름의 뜻은 '평화스럽다'는 의미이다.
 (2)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가운데 주셨다가 진노하심으로 빼앗아 가버린 먼저 아들과는 달리 은혜 속에서 화평을 체결한다는 의미로 주신 것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슬픔을 동일한 일에 의한 위로로써 상쇄(相殺)시키는 경우가 있다.

20. **㉠** '여디디아'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2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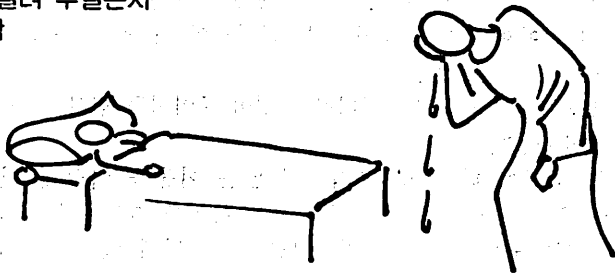
- ㉠** (1) '여디디아'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뜻이다.
 (2) 하나님은 은혜로써 그 아들을 인정하시고 총애하셨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지어 주셨다.
 (3) 그는 비록 범죄자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관대하여 부패한 피와 모든 상실한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다.
 (4)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와 불순종의 자식되었던 우리들이(시 51:5)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예표한다(참조, 롬 5:8-11).

21. **㉠** 암몬 족속의 왕도(王都) 람바를 정복하였던 다윗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6-31절)

- ㉠** (1) 다윗은 극히 오만하고 무자비하게 행동하므로 전날의 은혜(14, 24, 25절)를 망각하였다.
 (2) 그는 암몬 왕의 면류관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다(30절). 그러나 죄 때문에 진심으로 겸손해진 심령은 세상의 영화에 대해서는 스스로 죽여서 그것을 거룩한 경멸감으로 바라보게 된다.
 (3) 그리고 그는 전쟁 포로를 너무 가혹하게 취급한 것 같다(31절). 이것은 긍휼을 입은 자의 소행이 아니다.
 (4) 사실 다윗은 인자와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였다(시 101:1). 인자가 빠진 공의는 횡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 적어도 은혜(시 103:10)를 아는 자는 은혜의 원리대로 생활한다.

본장의 요점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어니와'
 (22절).



제 13 장 암논의 근친 상간(近親相姦)

단락구분: 1-6.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짝사랑하다 / 7-14. 암논이 다말을 감감하다 / 15-19. 암논이 다말을 버리다 / 20-29. 다말의 친오빠 암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다 / 30-36. 다윗이 통곡하다 / 37-39. 암살롬이 외조부 달매에게 도망하다

1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암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2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3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4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암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했기니라

5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네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6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체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7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8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9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10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 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11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12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

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13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14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15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 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16 다말이 가로되 가치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가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17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18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19 다말이 재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20 그 오라비 암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네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암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21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2 암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3 이 주년 후에 에브라임 결바알하술에서 암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을 때 암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24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25 왕이 암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이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암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26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나 하되

27 압살롬이 간청하여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28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29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 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30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31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32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33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패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34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 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35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36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37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매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38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삼년이라

39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

1. ㉠ 본장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앞장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우리아의 일로 범죄한 다윗을 징제하기 위하여 그의 집에 재화(災禍)를 일으키시겠다고 경고하셨다(12:10-14).
- (2) 그러므로 본장에 기록된 다말의 강간당함과 암논의 피살과 같은 비극은 분명히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지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심판의 집행임을 알 수 있다.
- (3) 다윗은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간음과 살인 사건에 대해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부모가 사악한 자녀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부패함이 자녀에게 전수(傳授)되었을 뿐이다.
- (5)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게 나쁜 본을 보이는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깨닫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

2. ㉠ 암논과 다말은 어떠한 관계인가? (1절)

- ㉠ (1) 암논과 다말은 이복(異腹) 남매지간이다. 즉 암논은 아히노암에게서 난 다윗의 맏아들(3:2)이었으며 다말은 다윗이 그술 왕 달매의 딸인 마아가에게서 낳은 딸이다(3:3).
- (2) 그러나 암논은 친륜에 어긋나게도 자기의 이복 동생에게 욕정을 품었다.
- (3) 사실 이스라엘 초기 족장 시대에는 이복 형제간의 결혼이 허용되었으나(참조, 창 11:29; 20:12) 모세 이후에는 율법으로 친형제나 이복 형제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참조, 레 18:9, 11).
- (4) 암논은 이러한 율례를 충분히 알 만한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불붙는 욕정을 제어하지 못했다.
- (5) 인간의 부패한 본성 속에는 이토록 모순된 심령이 있어서 여전히 금단의 열매를 회구(希求)하며 금지가 강력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욕망도 더욱 커진다(참조, 렘 17:9).

3. ㉠ 암논은 다말을 열렬히 사모한 나머지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2절)

- A** (1) 암논은 욕정에 못이겨 상사병(相思病)에 걸리고 말았다.
 (2) 이처럼 불의한 육체적 욕망은 그 자체가 형벌이 되며 영혼을 거스려 싸우게 되고 끝내 뼈를 썩게 만든다(참조, 벧전 2:11).
 (3) 이러한 욕정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골 3:5).
 (4) 요즈음 들어 정육의 수련 도장인 유흥 업소들이 우후 죽순(雨後竹筍)처럼 늘어 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하는 것이다(요일 2:16).
 (5)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빛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지를 더욱 돋우워 이 땅에 진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자(암 5:24; 마 5:14-16).

4. **C** '요나답'은 누구인가?(3-6절)

- A** (1)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며 암논의 친구로서 간교(奸巧)한 자였다(3절).
 (2) 그는 암논의 절친한 친구로 자처하였다(4절). 그러나 그의 사악한 계획(5절)은 암논 뿐 아니라 다윗의 온 집에 살인과 파탄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3) 만약 그가 암논의 참된 친구였다면 암논의 욕정을 억제시키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는데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참조, 잠 27:17).
 (4) 참된 친구란 상대방의 육체적 안일을 제공하기 보다는 영혼의 건강을 더욱 귀중히 여기는 자이다.
 (5)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에게 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가치 없는 우정일 수밖에 없다.

5. **C** 암논은 다윗에게 무엇을 요청하였는가?(6, 7절)

- A** (1) 암논은 자기 부친에게 다말을 시켜 자신을 병간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6절).
 (2) 이 말은 순전히 간사한 친구인 요나답이 그의 입에 넣어 준 것이다(5절). 이처럼 우리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또는 사단의 간교한 말 중 어느 하나를 담아 그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참조, 마 12:34; 롬 3:14; 10:8-10; 약 3:10).
 (3) 다윗은 암논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수락하였다. 그러나 그는 암논의 육체만 보았지 영혼의 상태는 살피지 않고 성급하게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다(7절).
 (4) 이처럼 부모들 중에는 자식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 주기에 급급하여 그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잘못을 저지를 경우가 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부모란 어떠한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영혼의 건강을 보살펴 주는 자이다(참조, 잠 30:30; 히 12:8).

6. **C** 암논이 자기 방에서 다말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물러가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8-11절)

- A** (1) 물론 다말을 욕보이기 위해서였다(11절).
 (2) 그는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자신의 악행은 숨겨질 줄로 알았던 것이다.
 (3) 이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한 특징이다.
 (4) 그러므로 간음하는 자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만사가 순조롭게 되는 줄 알아 어두움을 즐긴다(참조, 욕 24:15).

7. **C** '피악한 자'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가?(12, 13절)

- A** (1) 원어적인 의미는 '바보', '미련한 놈'을 가리킨다.
 (2) 그러나 이 말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도덕률을 무시하는 자를 가리킨다(참조, 3:33; 시 14:1).
 (3) 모든 죄인은 다 피악한 자이지만 특히 음란한 자는 더욱 피악한 자이다.
 (4) 음란은 육신뿐 아니라 영혼을 망치는 죄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는 그런 가

중한 일이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12절; 신 31:16, 17).

(5) 그러므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음란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의 음란은 세상 사람들의 음란과 그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음란은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의 이름을 손상케 하기 때문이다.

8. **㉠** 다말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암논에게 무엇이라 설득하였는가? (12, 13절)

- ㉠** (1) 그녀는 먼저 하나님의 법을 제시하며 암논의 신앙에 호소하였다(12절).
 (2)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 자신과 암논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 달라고 하였다(13절).
 (3) 마지막으로 왕에게 정식 승인을 얻어서 자기를 데려 가라고 하였다(13절).
 (4) 하지만 이 모든 설득은 허사로 돌아가고 끝내 다말은 강간당하고 말았다(14절).
 (5) 이와 같이 정욕의 노예가 된 자의 귀에는 어떠한 정당한 말도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의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롬 1:18).

9. **㉠** 암논은 다말을 욕보인 후 그녀를 어떻게 취급하였는가? (15-18절)

- ㉠** (1) 그는 다말을 심히 미워하여 자기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고 문을 닫았다.
 (2) 이것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후 갑작스런 수치심과 허탈감 등이 뒤섞여 일어난 변태적 행동이었다.
 (3) 즉 암논의 사랑은 정욕적이며 비천한 사랑의 표본으로서 그 정욕을 채웠을 때 더 큰 미움으로 변하게 되었다.
 (4) 만약 암논이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 증오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체의 쾌락이 얼마나 거짓되며 쉬 지나간다는 사실과 마지막은 혐오감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겔 23:17).

10. **㉠** 다말은 자신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8, 19절)

- ㉠** (1) 그녀는 재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공주의 신분을 밝히는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대성 통곡(大聲痛哭)하였다(참조, 삼상 4:12; 왕하 5:8).
 (2) 여기서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은 한 개인의 명예를 상징하는 머리 위에 부끄러운 일이 임한 것에 대한 슬픔의 표시이다(참조, 렘 2:37).
 (3) 그녀는 이러한 슬픔의 표시를 통하여 자신이 욕을 당한 것이 순전히 타의(他意)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4) 오늘날도 이러한 슬픔에 잠겨 있는 자들이 허다하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를 하도록 하자(마 6:13).
 (5) 그리고 실의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주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삶의 원기를 제공하자.

11. **㉠** 다말은 욕을 당하고 슬픔에 잠긴 채 누구에게로 갔는가? (20, 22절)

- ㉠** (1) 그녀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에게 갔다. 왜냐하면 그녀의 원수를 갚아 줄 책임은 압살롬에게 있기 때문이다(참조, 창 34:27).
 (2) 압살롬은 이렇게 슬퍼하면서 집에 돌아온 누이 다말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눈치채고 '그러나 저는 네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말로 다말을 진정시켰다.
 (3) 그 후 압살롬은 약 2년간에 걸쳐서 이복 형인 암논과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이 기간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처량한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누이를 욕보인 암논에 대한 복수의 칼을 더욱 날카롭게 갈며 더욱 미움의 벽을 두텁게 쌓는 기간이었다.
 (4) 예수께서는 이러한 복수의 침묵을 경계하셨다.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은 곧 행동화하기 때문이다(마 5:22).

12. C '압살롬'에 관해서 열거하라(20절).

- A (1)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의 세째 아들로써 헤브론 태생이며 그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들'이다(3:1-5).
- (2) 그는 다말의 일로 암논을 증오하였고 끝내 살인하였다(22, 29절).
- (3) 그런 후 그술로 도망가(38절) 거기서 체류하였다.
- (4) 또한 되돌아와서(14:23, 24) 다윗과 부분적인 화해를 하였다. 이 시기에 결혼하여 세 아들(14:27;18:18)과 한 딸의 아버지가 되었다.
- (5) 다윗과 완전히 화해하고(14:33;15:1-11) 반역을 준비하였다.
- (6) 헤브론에서 반역을 모의하였다(15:12, 13).
- (7) 예루살렘을 장악하고(15:20-23, 37;16:15-19)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19:10) 장로들에게 통치 자문을 받았다(17:1-14).
- (8) 다윗의 추격으로 인하여 전투에서 패배하였다(17:24-26;18:1-8).
- (9) 전투 중 요압에 의해 살해되었다(18:9-18).

13. C 다윗은 다말이 암논에게 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1절)

- A (1) 다윗은 단지 노하였을 뿐이다.
- (2) 즉 다윗은 암논의 범죄를 벌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었다.
- (3) 다윗이 단지 격노하고 법대로(레20:17) 암논을 처형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암논이 다윗의 장자이며(대상3:1) 또한 왕위를 계승할 자로 기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4) 개인적인 정에 이끌려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는 결국 암논의 피살, 압살롬의 반역으로 확대되어 나타났다(29절;15:10).
- (5) 이처럼 죄인의 처벌을 법대로 실행하지 않고 개인의 감정에 이끌려 덮어줄 때 오히려 그 죄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더욱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14. C 압살롬이 왕과 그 신복들을 초청한 때는 언제인가? (23-29절)

- A (1) 양털을 깎는 날이었다(23절).
- (2)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양털을 깎는 기간에 큰 잔치를 베풀고 이웃을 초대하는 것이 관례였다(참조, 삼상 25:4, 7, 8, 36).
- (3) 압살롬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2년 동안 기다렸던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말았다(29절).
- (4) 그의 복수는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다(출20:13).
- (5) 아무리 그 목적하는 바가 정당하고 타인의 동정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에서 진리를 떠난 것이라면 단호하게 중단해야 한다.

15. C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의 칼에 죽었다는 말에 다윗과 그 신하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30-35절)

- A (1) 왕과 신하들은 모두 옷을 찢었으며 왕은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하들은 왕의 주위에 있었다(31절).
- (2) 다윗이 받은 보고(모든 왕자들이 살해되었다는)는 과장된 것이었다.
- (3) 그러나 다윗은 사실의 진위(眞偽)도 헤아리지 않고 감정이 격앙하여 비탄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 (4)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헛소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들을 경험하게 된다.
- (5)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과 행동은 신중히 하여 자신과 이웃에게 감정의 상처와 불행한 사태를 막는다(참조, 잠 19:11).

16. C 요나답은 슬픔에 잠겨 있는 다윗에게 어떤 암시를 주었는가? (32, 33절)

- A (1) 왕자 몰살 소문을 부인하고 암논만 죽었을 이유를 설명하였다.

- (2) 요나단은 간사한 인물이었다. 즉 그는 암논의 추행 사건과 압살롬의 음모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 (3) 만일 그가 이런 사실들을 일찍 보고했다면 다행이 분쟁을 조절할 방안을 강구했을 것이다.
- (4) 우리는 화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의 불충실은 많은 재앙을 불러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5) 우리가 불법적인 음모나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들을 단지 묵과(默過)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없다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참조, 잠 24:11, 12).

17. **Q**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 어디로 도망하였는가? (34-39절)

- A** (1) 그는 자기 외조부인 그솔 왕 달매에게로 도망하여 3년간의 보호를 받았다(37, 38절).
- (2) 이스라엘에서는 고의적인 살인자에게 도피성(민 35:6-25; 수 21:13-38) 조차도 그 보호처가 되지 못했으므로 그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방 나라로 피신하였던 것이다.
- (3) 이처럼 죄인들은 자신의 범죄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보다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해 주며 위로해 주는 세상의 안식처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다.
- (4) 이러한 안식처는 그 죄인에게 더 큰 절망과 양심의 상처를 제공하며 끝내 삶을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인도하고야 만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순간의 평안보다 영원한 안식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 가야 할 것이다(참조, 히 4:16).

화보자료

통곡하는 여인들. 아래의 사진은 왕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알제리 여인들의 모습이다.



다말이 암논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재를 머리에 부리고 자신의 채색옷을 찢으며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통곡한 것은 불행과 슬픔의 상징이었다(비교, 삼상 4:12; 에 4:1). 또한 이 행동은 그녀의 결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제 14 장 암살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다윗구분 17-3 요압이 암살름을 위하여 계책을 세우다 / 4-11 드고아 여인이 비유로 다윗에게 말하다 / 12-20 다윗이 암살름의 환궁(還宮)을 허락하도록 만든 죄 / 21-24 다윗이 암살름의 귀환을 허락하다 / 25-27 암살름의 신상(身上) / 28-33 다윗이 암살름과 화해하다

- 1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암살름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 2 드고아에 보내어 기쁘게 슬기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양재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쁨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 3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 주니라
- 4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 5 왕이 저에게 아뢴뒤 무슨 일이나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 6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 7 온 족속이 일어대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 놓으라 우리와 그 동생 죽인 죄를 같이 저를 죽여 사자될 것까지 꿈졌노라 하오니 그러헌즉 저희가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찌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 8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 9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 10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 11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 12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 13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

- 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도모를 하셨나 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짚은 그 내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 14 우리는 필경 죽으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할 것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쫓긴 자로 하나님께 퍼된 자가 되게 않게 하시나이다
- 15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쭙면 혹시 종의 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 16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 나님의 산업에서 굶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 17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 18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 19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 20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 21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암살름을 데려 오라
- 22 요압이 땅에 엎드려 철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하나이다 하고

23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24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5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운 이로 크게 칭찬 받은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26 그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년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 본즉 왕의 저술로 이백 세겔하였더라

27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28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9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30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발

이 내 발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발에 불을 놓았더니

31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발에 불을 놓았느냐

32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네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

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 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라

33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전장(前章)에서는 압살롬이 어떻게 다윗의 보호와 총애에서 스스로 이탈하였는지를 설명하였다. 그 일은 결국 꼬를 살인자와 도피자로 만들었다.
- (2) 본장에는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위해 사용한 교묘한 계략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일은 끝내 성사되었다.
- (3) 본장에 제시된 사건은 범법자를 살려 두고 여전히 자기 악 속에 있는 압살롬을 사면(赦免)한 다윗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다.
- (4)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은 크나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하여 이스라엘에 혼란을 조성했기 때문이다(15:7-23).
- (5)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제거하여야 할 썩은 뿌리(히 12:15)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해 두면 그 뿌리는 우리를 환난의 가지로 엮매게 할 것이다(참조, 마 5:29, 30).

2. ㉠ 요압이 압살롬 사이에서 중재(仲裁) 역할을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1-3절)

- ㉠ (1) 그는 압살롬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애착 때문에, 즉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될 최적격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
- (2) 또한 그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살인(3:27)에 대한 죄가를 덜려는 생각에서 이런 일을 하였다.
- (3) 그는 철저한 기회주의자로서 이웃의 불행을 이용하여 득세하려고 하였다.
- (4) 오늘날도 이와 같이 이웃을 돕는다는 미명 아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다. 특히 이것은 교회 내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이다.

3. ㉠ '향하는' 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향하는' 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워하는' 을 의미한다.
- (2)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한 본능에 이끌려 그 아들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 (3) 불순종한 자식은 부모의 훈계를 멸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그 자식이 반성하고 들이킬 때까지 엄격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낫다.
- (4)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자식이 범죄할 여지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랑을 다정 다감보다는 냉정함으로 나타내야 할 경우가 있다.

4. ㉠ ‘드고아’는 어디에 위치한 곳인가? (2절)

- ㉠ (1) 이곳은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암 1:1)으로서 베들레헴 남쪽 8 km 지점의 높이 822m의 언덕 위에 있는 성읍이며 오늘날 테쿠아(Tekua) 지역이다.
- (2) 즉 이곳은 요압의 출생지(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압은 아마 기드온의 슬기로운 여자를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술책을 썼는가? (2, 3 절)

- ㉠ (1)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는 것을 알고서 드고아에서 한 여인을 보내어 왕의 마음을 바꿔 압살롬을 용서하도록 술책을 꾸몄다.
- (2) 즉 드고아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를 택하여 상복(喪服)을 입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사정을 다윗에게 고하게 한 것이다. 그 사정이란 물론 압살롬의 처지를 비유한 내용이었다.
- (3) 요압은 다윗이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의 정의로운 마음에 호소하기 위해 이 같은 술수를 사용했다.
- (4) 불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세상에서 정의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록 불의에 의해 피해를 입는 한이 있어도 정의를 실현하여 끝내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라고 권면하셨다(참조, 롬 12:21).

6. ㉠ 요압의 보냄을 받아 다윗에게 진정(陳情)하는 드고아 여인의 호소 내용은 무엇인가? (4-9절)

- ㉠ (1) 드고아 여인은 과부로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한 아들이 들에서 다른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 온 족속이 일어나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 (2) 그런데 그 여인은 도망간 아들을 ‘가족들의 가슴을 타오르게 해주는 마지막 남은 숯불’이라고 묘사하였다. 이 속에는 아들이 죽을 경우 겪게 될 자신의 고독, 가문의 멸절 등이 암시되어 있다. 또한 그녀는 그 죄가 자신에게 있다고 고하였다.
- (3) 이런 방법으로 그 여인은 다윗의 동정심을 움직여 골육 살해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극복하였으며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과부의 재판장으로 자처하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했다.
- (4) 물론 다윗의 즉각적인 도움의 태도는 배울만 하지만 신중하지 않은 그의 성급한 결정은 끝내 화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 (5) 사실 동생을 죽인 자를 복수하겠다는 무리들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었다(참조, 민 35:16-19). 동정과 정의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7. ㉠ 나단의 비유(12:1-6)와 드고아 여인의 비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11절)

- ㉠ (1) 드고아 여인의 비유는 나단처럼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3절; 12:1).
- (2) 그녀는 다윗의 양심이 아니라 동정과 애정에 호소하였다.
- (3) 여인의 비유는 진리를 확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흐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4) 그녀의 비유는 정직하고 타당한 동기로써가 아니라 아첨하는 입술로 그리고 음흉한 동기로 다윗에게 접근하였다.
- (5) 마지막으로 그 여인의 비유는 유익한 것(12:13)이 아니라 부정한 결과를 낳았다(15:1-18:33).

8. ㉠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니’란 말은 무슨 뜻인가? (12-14절)

- ㉠ (1) 이 말은 암논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 (2) 드고아 여인의 이 말은 결국 암논의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 있는 압살롬에게 관심을 보

이라는 은유적인 발언이다.

- (3) 한편 드고아 여인은 이 말 끝에 압살롬을 다시 맞아 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강조하였다.
- (4)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며 철저히 인간적이다. 왜냐하면 범죄한 자를 인간적인 동정으로 덮어 주고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9. **㉠** '죽음'의 인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14절)

- ㉠** (1) 죽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온다.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변경될 수 없는 사실이다(참조, 창 3:19; 롬 5:12; 히 9:27).
- (2) 죽음은 우리가 해오던 모든 일들을 그만 두게 한다. 즉 물이 용기 안에 담겨 있을 때에만 현실적인 사용을 할 수 있다(14절).
- (3) 또한 죽음은 어떠한 힘과 가능성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이다(참조, 시 49:7-12).
- (4) 그러나 이 죽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세계, 즉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다(참조, 욥 19:26).

10. **㉠** 다윗의 말은 드고아 여인에게 어떠한 양상으로 전해졌는가? (15-17절)

- ㉠** (1) 다윗의 말은 드고아 여인에게 '위로'가 되었다(17절).
- (2) 여기서 '위로'란 원수로부터의 보호와 구원을 의미한다.
- (3) 그녀는 더 나아 가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자 같다고 하였다. 즉 은혜의 증보자라고 하였다.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통례적인 인사말을 하여 다윗에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였다.
- (5) 사단은 이러한 친절과 칭찬의 말로 우리들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마침내 우리를 파멸로 인도한다(참조, 고후 11:14, 15).
- (6) 사람들은 흔히 자기를 찬양하는 자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칭찬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유혹에서 해방될 수 있다(참조, 딤후 6:11, 12).

11. **㉠** 다윗이 드고아 여인의 말에 배후(背後)인물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엇을 캐물었는가? (18-20절)

- ㉠** (1) 다윗은 그 여인에게 '이 모든 일에 요압이 연판되었느냐'라고 질문하였다(19절).
- (2) 이에 대해 드고아 여인은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과의 화해를 위하여' 자신에게 이 일을 지시했다고 고백하였다(20절).
- (3) 그녀의 이 같은 사실적인 고백은 자신 뿐만 아니라 요압과 압살롬을 살리는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 (4) 만약 그녀가 이 일의 숨은 내용들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 (5)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거짓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간직하고 생활하여야 할 것이다.

12. **㉠** 아침이 가져다 주는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0절)

- ㉠** (1) 아침은 아침을 듣는 자들의 눈을 멀게하고 그들의 단점을 가리우며 그들의 허영심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그들에게 위협한 자기 도취심을 채워 준다(참조, 행 12:21-23).
- (2) 아침은 죄인들에게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게 만들어 주며 끝내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참조, 잠 26:28; 29:5).
- (3) 아침의 어리석음과 범죄는 때때로 그것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파멸의 결과를 초래할 때에야 비로소 발견되는 단점이 있다(참조, 15:13; 시 12:3; 행 12:23).

(4) 그러므로 우리의 귀는 아침을 멀리하고 충고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참조, 잠 1:8,9; 22:17; 25:12).

13. **㉠ 드고아 여인의 호소에 다윗은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21-24절)**

- ㉠** (1)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 오도록 명령하였다(21절).
 (2) 그러나 그를 만나보기는 원치 않았다.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이같이 어정쩡한 용서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다.
 (3) 다윗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고 회복시키려 하지 않은 것은 압살롬의 마음에 쓰라림을 안겨 주었다.
 (4) 이러한 이유로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내란을 조장하였다(15:1-12).
 (5) 결국 이 내란은 아들을 완전히 용서치 못한 아버지와 회개의 눈물이 없는 아들이 빚어낸 것이었다.
 (6) 이처럼 사랑이 상실된 가정은 자신들의 가정은 물론 사회 전체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

14. **㉠ 압살롬을 불러들인 다윗의 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1-24절)**

- ㉠** (1) 다윗은 엄히 훈계해야만 했을 때에는 침묵하고(13:21) 오히려 관대하게 용서해야 할 때에는 너무 가혹한 태도를 취하였다(24절).
 (2) 그는 요압의 간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불러들이기는 했지만 화해할 마음의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다.
 (3) 그러므로 예수님의 탕자 비유(눅 15:11-32)와 압살롬의 복귀는 비교가 안 된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각(自覺)이 없었을 뿐더러(눅 15:17) 다윗에게는 사랑의 기다림(눅 15:20)이 없었기 때문이다.
 (4)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화해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참조, 요일 4:7, 8).
 (5)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사랑과 징계는 단호하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간 상태는 오히려 많은 잘못된 결과들을 불러들인다(참조, 계 3:15).

15. **㉠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에서 칭찬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5, 26절)**

- ㉠** (1) 그것은 그의 외모의 아름다움 때문이다.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는 완벽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2) 그러나 그의 마음과 영혼은 죄와 허물로 뒤덮여 있었다. 백성들은 그의 외모에 마음이 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참조, 삼상 16:7).
 (3) 그는 특별히 자기의 머리털을 자랑하였으나 결국 그 머리털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였다(18:9).
 (4)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든지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참조, 눅 16:15).

16. **㉠ 압살롬에게는 자녀가 몇 이 있었는가? (27절)**

- ㉠** (1)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그보다 일찍 죽었다(18:18).
 (2) 그의 딸은 '다말' 이라고 일컬어졌는데 그녀는 고모의 이름과 미모를 동시에 물려받았다(13:1).
 (3) 70인역은 다말이 미아가로 불러졌다고 말하면서 그녀는 르호보암의 아내요 아비아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덧붙인다(참조, 왕상 15:2; 대하 11:21).
 (4) 그러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는 모두 딸이라는 말이 광의(廣義)로 쓰이고 있을 것을 보아서(히브리인의 풍속에는 딸이라고 부르기도 함) 미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였음이 분명하다.

17. **㉠ 압살롬이 요압을 호출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28-32절)**

- A** (1) 압살롬은 다윗과 대면하여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요압의 중재(仲在)가 필요했기 때문이다(29, 32절)
- (2) 요압이 이러한 압살롬의 부름에 불응한 것은 그가 다윗에게 충성한 표이다.
- (3) 반면에 압살롬은 자기의 행위(13:29)에 대한 무죄성을 확신하고 있었다(32절).
- (4) 왜냐하면 왕이 암논을 벌하지 않았으므로(13:21) 자기의 행위는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는 부친을 원망하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 (5) 이처럼 죄인은 자신의 죄악보다 이웃의 조그마한 허물에 착념하며 자신은 정의의 사자인 양 교만하게 행동한다(참조, 마7:3-5).

18. C 압살롬이 요압에게 취했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8-32절)

- A** (1) 무정(無情)하고 개전(改悛)의 정이 없는 사람은 용서를 받거나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 (2)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는 은혜를 자신의 명예와 출세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써 또는 반역의 수단으로써 악용한다.
- (3)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사유(赦宥)하기를 즐기시는 분으로서 죄를 고백하여 그 죄를 버리고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부르짖는 자만을 용서해 주신다(참조, 시 32:5; 51:17; 86:5; 138:6).

19. C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행동인가? (33절)

- A** (1)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화해를 선언한다는 표시이다(참조, 창 33:4; 45:15; 눅 15:20).
- (2) 그러나 압살롬은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의 입맞춤을 한 것이다(참조, 마 26:48-50). 즉 그는 진정한 화해를 원해서가 아니라 옛날 누렸던 특권들을 회복하여 반역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입맞추었던 것이다.
- (3) 이처럼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은 오히려 자녀들을 파멸로 인도할 가능성을 만들어 준다.
- (4)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게 맹목적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참조, 잠 1:2-7; 15:33; 엡 6:4).

본장의 요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14절).



제 15 장 압살롬이 반역하다

단락구분 1-6 압살롬이 백성의 편심을 사다 / 7-12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세력을 구축하다 / 13-18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다 / 19-23 가드 사람 잇대가 다윗을 추종하다 / 24-29 제사장들이 법계를 메고 다윗을 따른다 / 30-31 아히도벨이 반역에 가담하다 / 32-37 후새가 다윗의 정탐군으로 자원하다

1 이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오십 명을 세우니라

2 압살롬이 일찌기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3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들을 사람왕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5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퍼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6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7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8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9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10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11 그 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이백 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12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13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

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15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16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 명을 남겨 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17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벧페르학에 이르러 머무니

18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불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육백 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19 그 때에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오라

20 너는 어찌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21 잇대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슨 사생하고 중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22 다윗이 잇대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잇대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23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24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25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6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27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

전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28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뭇터에서 기다리리라

29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30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땀으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31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를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32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새가 웃을 짓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33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34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던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35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가 있지 아니하니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36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 하지니라

37 다윗의 친구 후새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1. ㉠ 본장에 일어난 비참한 사건은 결국 누구의 허물 때문인가?

- ㉠ (1) 압살롬은 다윗과 2년간 분리되어 있는 동안 그의 마음에 쓴 뿌리가 생겼고 이것이 결국 반역으로 치닫게 했다.
- (2) 그런데 '압살롬'이란 이름에는 '아버지의 평안'이라는 뜻이 있으나 그는 아버지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등장하였다.
- (3) 다윗의 집에 연속되는 칼의 위협이 지금까지 그의 자녀들 사이에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그 칼이 다윗 자신을 향해 더 악랄하게 마치기 시작하였다.
- (4)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게 되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궤를 뒤로하고 정처 없는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 (5) 이 모든 것은 다윗의 범죄(11:2-15)로 일어난 일들이며 또한 자녀를 하나님의 법대로 양육하지 않은 결과였다.
- (6) 더우기 다윗이 간음과 살인자에게 공의를 행하였다면 이처럼 비참한 현실을 맞보지 않았을 것이다(13:14, 29).

2. ㉠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1절)

- ㉠ (1)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兵車)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前陪), 즉 호위병 50명을 두었다.
- (2) 여기서 호위병을 두는 것은 세력 쟁탈의 첫걸음이다. 아도니아도 이런 방법을 썼다(왕상 1:5).
- (3) 또한 말들을 많이 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신 17:16). 왜냐하면 말은 이방인의 사치와 물리적인 힘에 의한 국방력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8:11; 시 33:17; 사 31:1; 겔 17:15).
- (4) 이와 같이 압살롬은 왕위를 찬탈(篡奪)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
- (5)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는 자는 결국 인간적인 힘에 의해 패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참조, 마 26:52).

3. ㉠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2-6절)

- ㉠ (1) 그는 성문 길 곁에 서서 송사(訟事)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입맞춘 후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여 백성들을 미혹하였다.

- (2) 즉 압살롬은 백성 개개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현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3절) 약자를 동정하고(4절) 만인 평등을 주장하였다(5절).
- (3) 그러나 여기서 '마음을 도적질하였다'는 것'은 그가 진실로 백성을 사랑하여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기만하였다는 것이다(참조, 창 31:20, 26).
- (4) 오늘날도 정권의 쟁탈과 유지를 위하여 2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활동하는 무리들이 많다. 이러한 무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는 어지럽고 백성은 피곤할 뿐이다.

4. **㉠** 압살롬의 반란 음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6절)

- ㉠** (1) 현존하는 권위에 대한 반란은 있을 수 없다(롬 13:1, 2). 그러나 특별한 상황 아래서는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 (2) 국민은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 (3) 그러므로 국민의 권리가 완전히 짓밟혔다면 폭정에 대한 자기 보존의 의무로서 진리의 파수자로서 불의한 정권에 항거할 수 있다.
- (4) 더우기 그것이 아버이의 권위라 할지라도 양심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때는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참조, 마 10:33-38).
- (5) 그러나 반란이 권력욕이나 현 정권에 대한 혐오 그리고 속임수 따위에서 비롯된 것일 때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만다(참조, 롬 13:2).

5. **㉠** 압살롬은 4년간 반란을 준비한 후 다윗에게 무엇을 요청하였는가? (7-9절)

- ㉠** (1) 압살롬은 외가(外家)인 그술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기 원한다는 핑계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 (2) 여기서 헤브론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압살롬의 고향(3:2, 3)이고 많은 친구들이 있는 곳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옛 수도(5:1-5)로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 (3) 악인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사악한 계획을 감추기 위해 종교의 탈을 쓰고 경건의 모습으로 위식하려는 경향이 있다(참조, 마 23:14).
- (4) 특히 교회를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은 그 속에 악취나는 시체를 담고 있는 무덤의 외모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인 양 경건의 모양에 치증한다(참조, 마 23:27, 28).
- (5) 그러나 이러한 속임수는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반드시 폭로되며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참조, 고전 4:5).

6. **㉠** 압살롬은 자신의 반란을 전국에 어떻게 알렸는가? (10-12절)

- ㉠** (1) 압살롬은 정탐군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어 헤브론에서 들려 오는 나팔 소리를 신호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게 하였다(참조, 20:1; 왕상 1:34; 왕하 9:13).
- (2) 또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날 때 유력한 자 200명을 속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고 자기 부친의 참모(參謀)였던 아히도벨(대상 27:33)도 자기와 동행하게 하였다.
- (3) 이렇게 사악한 준비(1-6절)와 속임수로 시작된 압살롬의 반란에 불만 세력과 더불어 군중 심리에 휩쓸린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정권을 인정하게 되었다(12절).
- (4) 그러나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룩한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한다(롬 13: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백성을 다스릴 실제적인 권세를 국가에 주셨기 때문이다.
- (5) 즉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 심판을 연기하지 않으신다(참조, 고전 14:33).

7. **㉠**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아히도벨이 반역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대하여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이었다.
- (2) 아히도벨은 다윗과 자기의 손녀인 밋세바의 사건(11:2-5)으로 분개했던 것이다. 사실 밋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었고(11:3)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었다(23:34).
- (3) 그는 결국 그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사(大事)를 그르치는 오류를 범하였다.
- (4)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참모였던(시 41:9; 55:13) 아히도벨을 가장 요긴한 때에 잃어버리는 아픔을 맛보아야 했다.
- (5) 이처럼 우리의 모든 언행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되어 그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참조, 갈 6:7).
8. Ⓒ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13-18절)
- Ⓐ (1)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해 보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기에 급급하였다.
- (2) 아마도 그는 압살롬의 반역이 과거에 저지른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을 것이다(12:11; 16:10-12). 그래서 그는 대항할 용기를 잃고 도망했을 것이다.
- (3) 이처럼 고통과 위험은 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
- (4)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사악한 자들은 의롭고 공평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9. Ⓒ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피신할 때에 누구를 남겨 두고 떠났는가? (16절)
- Ⓐ (1) 후궁(後宮) 10명을 남겨 두었다.
- (2) 다윗은 반역자들이 적어도 여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 (3)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조정하셨다(12:11). 즉 압살롬은 이들과 동침하게 된다(16:20-22).
- (4)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우리를 대우하실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둔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10. Ⓒ 다윗이 피난할 때에 동행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17, 18절)
- Ⓐ (1) 왕궁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신하들 그리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들 모두는 블레셋 사람이다)과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명이 다윗과 동행하였다.
- (2) 이들 중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동행한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에 귀화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는 좋은 증거이다.
- (3) 그리고 다윗의 방랑 시절에 600명의 용사가 다윗의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그일라(삼상 23:13), 바란(삼상 25:1) 가드(삼상 27:2, 3), 시글락(삼상 27:6), 헤브론(2:3)을 거쳐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었다.
- (4) 그들은 다윗의 호위병들로서(10:7) 가드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윗과 함께 전란을 겪었고 서로 굳게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 (5) 이처럼 형제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갈 6:2). 은혜 아래 사는 삶은 사랑과 봉사의 삶을 의미한다(갈 5:6, 13).
11. Ⓒ 다윗이 벵메르학에 머무름 때에 동행을 자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19-23절)
- Ⓐ (1) 블레셋(가드)에서 귀화한 용사 '잇대'였다(19절).
- (2) 이때에 다윗은 그를 돌려 보내려 하였으나 그가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므로 동행하게 하였다(21, 22절).
- (3) 참으로 잇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과 변절의 시기에 신실한 헌신을 맹세한 아름다운 예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4) 예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절되지 않은 신앙을 요구하신다(참조, 요6:66-69).

12. **㉠** 다윗은 잇대의 동행 요청을 처음은 무슨 말로 거절하였는가? (19절)

㉠ (1) '너는 쫓겨 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나와 함께 네 곳에 있으라'고 설득하였다.

(2) 즉 '잇대'는 다윗의 장군이었지만(18:2) 본래는 블레셋 가드 사람이며 나그네였기 때문에 괜한 전화(戰禍)에 휩싸이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싸움이 끝날 때까지 생명을 보존하라고 권하였다.

(3)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위급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을 이용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생명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려깊은 인격을 소유하였다.

(4) 우리들은 흔히 위대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인간의 능력과 방법에 매어 달릴 때가 있다. 특히 적극적인 사고(思考)와 마인드-컨트롤(mind-control)과 같은 신앙과 무관한 방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원하신다(참조, 시 50:15).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13. **㉠** 다윗은 잇대를 돌려 보내면서 어떤 인사말을 하였는가? (20절)

㉠ (1)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다.

(2)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그의 대상일 뿐이다.

(3)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큰 행복이며 확실한 보호책이다(참조, 시 61:7; 잠 3:3, 4).

(4)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인사말도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한 말들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14. **㉠** '온 땅 사람'과 '인민'(人民)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가? (23절)

㉠ (1) '온 땅 사람'은 왕이 도피하는 것을 지켜 본 '주민'들을 말하며 '인민'은 다윗의 추종자들(시종과 수행원들)을 의미한다.

(2) 온 땅 사람이 애도했다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평판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3) 다윗은 백성들의 눈물을 뒤로 하고 자신의 가족과 수행원들과 함께 물이 차있는 기드론 시내(1년의 대부분이 말라 있고 겨울 우기에만 물이 흐름)를 건너 요단 동편의 광야지대로 걸음을 옮겼다.

(4) 그는 요단 강을 건너 후에야 비로소 안전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전진해 나아갔다.

15. **㉠** 사독과 그 제사장 무리들이 법궤를 다윗에게로 운반했을 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4-26절)

㉠ (1)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에서 이동되어 자신이 피신해 있던 광야로 옮겨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25절).

(2) 다윗은 하나님의 거처는 인간에게 소외된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통괄하는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3) 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입히시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믿는 까닭이기도 하다(25절).

(4) 또한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을 법궤와 함께 있는 영광을 가질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였다.

(5)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감사함으로 그 처분을 순종하겠다고 하였다(26절).

(6) 이처럼 자신을 살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된다.

16. **㉠**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어떤 호칭(呼稱)을 사용했으며 또한 무엇을 말하였는가? (27-29절)
- ㉠** (1) '선견자' (先見者) 라고 하였다(27절).
 (2) 다윗은 이런 호칭을 사용하면서 사독과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자신의 전령(傳令)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과 반역자들의 형편을 살피려고 하였다(28절).
 (3) 그리고 다윗은 그들이 전해 주는 정보에 따라 움직이기로 결정하였다(28절).
 (4)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당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지 않는다.
 (5) 신앙과 이성(理性)이 조화있게 적용될 때에만 우리의 삶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17. **㉠** '감람산'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30절)
- ㉠** (1) 기드론을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해 있는데 예루살렘 성과 유다 광야 사이에 병풍같이 서 있다.
 (2) 그 위에는 성소가 있었던 것 같고(32절) 후에 솔로몬이 그의 이방인 아내들을 위해 산당을 지었으나(왕상 11:7, 8) 요시야가 없애 버렸다(왕하 23:13, 14).
 (3) 구약에서는 이외에도 감람산의 나무들(느 8:15)과 두 가지 계시(겔 11:23; 숙 14:4)가 언급되었다.
 (4) 신약에서는 이 감람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요 가르침의 한 장소였다(참조, 마 24:3; 막 13:3; 눅 22:39; 요 8:1).
18. **㉠**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갔는가? (30절)
- ㉠** (1) 다윗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다.
 (2) 이와 같은 행동은 깊은 겸손과 숨김없는 슬픔을 상징하는 것으로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함을 뜻한다.
 (3)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면 그의 왕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결한 영혼, 즉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뜻을 완전히 좇는 데 있다.
 (4) 자신의 허물로 그에게 닥쳐왔던 고난은 오히려 그의 영혼을 살찌게 했으며 그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 오지 않는다(참조, 욥 42:5; 약 1:2-4).
19. **㉠** 다윗은 감람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31절)
- ㉠** (1) '아히도벨의 모략(謀略)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2) 다윗은 아히도벨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단지 그의 지혜를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3) 그는 아무리 현명한 모사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어리석게 만들어지며 그 목적하는 것이 좌절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참조, 욥 12:17; 사 3:2, 3).
 (4)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그 입술의 말을 모두 알고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의 주인이시다(참조, 사 11:2; 28:29).
20. **㉠** '경배하는 마루턱'이란 어디를 말하는가? (32절)
- ㉠** (1) 하나님께서는 경배받으시는 곳으로 알려진 감람산 정상상을 말한다.
 (2) 이곳은 옛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이교적인 신들에게 제사드리던 곳이었다.
 (3) 그러나 이제는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곳으로 바뀌어졌다. 이 경배란 제사가 아니라 단순한 기도를 의미한다(참조, 행 16:13).
 (4) 이곳은 예수께서도 자주 찾으셨던 곳(눅 19:41)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조용한 만남이 이

뤄지는 곳이었다.

- (5) 우리의 공간 중에서도 이러한 감람산의 기도처를 마련해 두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하자.

21. **Q** 감람산에서 행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32-37절)

- A** (1) 다윗의 친구였던 아렉 사람 후새를 보내 주셨다(대상 27:33).
 (2) 아히도벨의 변절은 후새의 충성으로 보충되었고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다윗을 위한 정보 제공자로 일하였다.
 (3) 즉 다윗이 후새를 압살롬에게 보내어 거기서 정탐의 역할을 하게 하였고 또한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도록 공작하게 하였다(33, 34절).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상황 중에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은혜로 채워 주신다(참조, 히 4:16).
 (5)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때일수록 더욱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시 50:15).

화보자료

말(馬)과 병거. 아래의 사진은 영국의 대영 박물관에 소장된 청동 부조로서 앗수르의 왕 살만에셀 III (B. C. 858-824)의 행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말은 이방인의 사지와 하나님 대신 의지하기 쉬운 물리적인 힘을 상징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용 말을 갖는 것을 반대했다(삼상 8:11; 시 20:7; 사 31:1). 본장에서 압살롬이 준비한 말과 병거는 전쟁을 위한 공격 무기였다(1절).

제 16 장 다윗의 도피 생활과 압살롬의 범죄

단락구분 1-4 중상 모략으로 므비보셋의 재산을 차지한 시바 / 5-8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다 / 9-14 다윗의 인내 / 15-19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과 후세의 속임수 / 20-23 압살롬이 다윗의 접들을 범하다

1 다윗이 마루 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일백과 건포도 일백 송이와 여름 실과 일백과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2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 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3 왕이 가로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4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5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로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6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 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리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9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10 왕이 가로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

며 이 베나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 두라

12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13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14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15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16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새가 압살롬에게 나아올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17 압살롬이 후새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18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19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 아들의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20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21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22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23 그 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1. ㉠ 본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 ㉠ (1) 본장에서는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악인들의 활동이 전개된다.
- (2) 즉 잇대(15:19)와 사독(15:24)과 아비아달(15:24) 그리고 후새(15:32)의 충성에 반하여 기회주의자 시바(1절)와 완악한 시므이(5절) 그리고 악한 술수가인 아히도벨(20절)의 패역함이 기록되어 있다.
- (3) 악한 세력은 밤에 활동한다. 이와 같이 다윗에게 어둡고 슬픈 시대에 비열한 기회주의자들은 세력을 펼치며 삶의 질서를 파괴해 갔다.
- (4) 그러나 이러한 파괴력은 순간적인 뿐이며 하나님께서 그 의(義)를 해같이 빛내실 때 모든 술수와 기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하심만이 남게 될 것이다.

2. ㉠ 다윗이 감람산을 지날 때 므비보셋의 사환(使喚)이었던 시바는 무엇을 가지고 다윗을 위로하러 왔는가? (1, 2절)

- ㉠ (1)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 실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 (2) 시바가 많은 선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왕을 위로한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 (3) 즉 그는 자신의 주인인 므비보셋을 모함하여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 (4) 이처럼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이웃의 난처한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다.

3. ㉠ 시바는 므비보셋의 근황(近況)을 묻는 다윗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3, 4절)

- ㉠ (1) 시바는 므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 (2) 이 말은 경작지를 얻기 위해 그 주인 므비보셋을 비방하는 거짓말이었다(19:24-28).
- (3) 그러나 다윗은 흥분하여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이 비방자에게 므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겠노라는 부당한 약속을 하였다.
- (4) 다윗이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시바의 따뜻한 위로 때문이었다. 즉 다윗은 위급하고 피곤에 지쳐 있는 자기에게 평안을 제공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시바의 발언이 옳은지 틀린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위와 같은 결정을 쉽게 했던 것이다.
- (5)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붙잡혀 생활하는 자는 자신의 나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마4:4-10).

4. ㉠ 사울 족속 중 한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내용은 무엇인가? (5-8절)

- ㉠ (1) 살인자며 추악한 범죄자라고 하였다(7절). 그리고 사울 집의 모든 피가 다윗 때문에 흘러졌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피를 다윗에게로 돌리셨다고 하였다(8절).
- (2) 이러한 시므이의 말은 다윗을 미스보셋과 아브넬의 살해자로 간주하는 듯하다. 이런 태도는 사울의 집, 즉 베냐민 지파의 일반적인 태도였다(참조, 19:16-23).
- (3) 그러나 사실상 이스보셋은 자신의 군장의 손에 죽음을 당했고(4:1-3) 이브넬은 요압에 의해 죽었기 때문에(3:27) 그들의 죽음은 다윗과 무관한 것이었다.
- (4) 따라서 시므이의 저주는 순전히 개인적인 증오심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 (5) 이렇게 불경건한 자들은 편견 없는 정의의 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근거로하여 이웃을 판단한다.
- (6) 결국 시므이는 반역과 신성 모독이라는 큰 죄를 범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율법의 징벌을

받아야 했다(참조, 19:21; 출 22:28; 왕상 21:13).

5. **㉠**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 누가 분개하였는가? (9절)

㉠ (1) 수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형제(2:18)인 아버지새가 분개하였다.

(2) 만일 다윗이 허락만 했다면 아버지새는 시므이의 목을 잘라 저주하는 입을 조용하게 했을 것이다.

(3) 아버지새의 이러한 분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제의(눅 9:54)를 연상케 한다. 이처럼 분별력이 없는 열정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롬 10:2; 빌 3:5).

(4) 그러나 아버지새보다 더 분개해야 할 사람 다윗은 이 저주의 말에 침묵하고 있다(10-13절).

(5) 이처럼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는 언제나 비난의 소리도 좋은 충고로 듣는다.

6. **㉠** 다윗이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용납한 이유는 무엇인가? (10-14절)

㉠ (1) 그는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에 의해 된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10절). 그가 이렇게 믿었던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2) 그는 자기 아들 암살름이 자기를 해하려 했던 것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생각하였다.

(3) 또한 그는 시므이의 저주를 결국 자기에게 보답하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12절).

(4) 즉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며 그의 은혜가 다시 정상적으로 자기에게 임할 것을 소원하였다.

(5)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이 받고 있던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극한 고난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에 대처한다면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7. **㉠**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서도 침묵했던 다윗의 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9-14절)

㉠ (1) 그는 악을 선으로 갚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롬 12:1).

(2) 즉 그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폈고 미련한 자에게 무분별한 응수를 삼가하였다.

(3) 그는 자기 자신의 분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분노도 억제시켰다(참조, 사 36:21; 37:3, 4). 이런 그의 온유함은 모든 관계를 평화스럽게 조정하였다. 즉 그의 인내는 많은 재화를 막기에 충분하였다(참조, 약 1:4).

(4) 마지막으로 그는 시므이를 저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였다. 사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갈 6:3-5).

(5)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엄정하게 살피는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

8. **㉠**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새가 암살름에게 아부한 의도는 무엇인가? (16절)

㉠ (1) 암살름에게 신용을 얻은 후에 암살름 정권의 비밀을 탐지하여 다윗에게 그 정보를 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

(2) 이것이 후새에게 내렸던 다윗의 실제적인 명령이었다(15:34-37).

(3) 만약 그의 이러한 비밀이 탄로났을 때에는 그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다. 그는 생명을 내어 놓고 다윗에게 봉사하였다.

(4) 이처럼 자기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릎쓰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자야말로 참된 신하이다.

(5)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백성된 성도들 역시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한다(계 2:10).

9. **㉠** 후새가 암살름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17-19절)

㉠ (1) 후새는 ①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택한 자, 즉 암살름과 함께 거하며 ②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암살름을 왕으로 충성되게 섬기겠노라고 말하였다.

- (2) 이 말에 대해 압살롬은 그를 받아들여 자신의 측근에 두었다(17:5).
- (3)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아침의 말에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흐려져 결국 불행을 자초하고 만다(참조, 잠26:28).
- (4)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하는 자를 멀리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뼈아픈 충고를 하는 자를 가까이 하여 최후에 웃는 자가 되도록 하자(잠28:23; 롬16:18).

10. **㉠**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어떤 모략(謀略)을 제공하였는가? (20, 21절)

- ㉠** (1)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므로 압살롬과 함께 있는 자들이 힘을 얻기 때문이었다(21절).
- (2) 고대에는 왕의 첩을 차지하는 것이 왕위의 장악을 나타내는 것이었다(3:7). 그러므로 이 행위는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어떠한 화해의 가능성도 배제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 (3) 이와 같은 아히도벨의 조언은 다윗과 압살롬이 다시 화해하게 될 경우 자신과 그의 추종자들이 처벌될 만일의 사태를 그 원인부터 철저히 없애자는 계략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더욱 담대하게 죄를 짓게 하였다.
- (4) 이런 모든 사태는 나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다(12:11).
- (5) 이와 같이 압살롬에게 무모한 충고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 아히도벨은 비록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의 범죄를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경륜을 이뤄 나가신다.

11. **㉠**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 결국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22절)

- ㉠** (1) 압살롬은 왕궁 지붕 위에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였다.
- (2) 그 지붕은 다윗이 욕정을 품었던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하였다.
- (3) 이렇게 압살롬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범하였다(참조, 레20:11).
- (4) 바울은 이러한 음행을 이방인 중에도 없는 피악한 것이라고 하였다(고전5:1).
- (5) 이처럼 한 인간의 범죄는(11:4) 그와 동일한 형태의 범죄를 낳고 더 나아가 그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조장한다.

12. **㉠** 아히도벨의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 (23절)

- ㉠** (1)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응답받는 말씀과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
- (2) 왜냐하면 다윗과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권위있게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아히도벨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나 압살롬에게는 악한 정치를 하는 데 힘을 가하였다.
- (4) 그의 현명한 머리는 천박한 양심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왔다. 참으로 지성의 승배는 현대의 해악 중의 하나이다.
- (5) 이 세상에서의 훌륭하고 지혜롭다는 표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표준과 동일하지 않다(참조, 마19:30).
- (6) 그러므로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능력들을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능력에 비례하여 더 큰 죄가 된다.

제 17 장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

단락구분 1-4 아히도벨의 작전 계획 / 5-14 아히도벨의 모략을 방해한 후세의 전략 / 15-20 후세가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다 / 21-22 위험을 모면한 다윗 / 23 아히도벨이 자살하다 / 24-26 압살롬이 다윗을 추적하다 / 27-29 암은 사람이 다윗을 후대하다

1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일만 이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2 저가 곤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3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의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4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옮게 여기더라

5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 사람 후새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6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7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 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8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9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우리 중에 몇이 먼저 엿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친은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앎이니이다

11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천장에 나가시고

12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아니할 것이요

13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 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14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다

15 이에 후새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푼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푼었으니

16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뭇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좃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17 그 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불가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브라임 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18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19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쪼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라

20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너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21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푼었나이다

22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23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매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24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25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26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 치니라
 27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

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래가
 28 침상과 대아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 꿀과 뼈더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 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창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1. ㉠ 본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 ㉠ (1)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취함으로써 나타내 보인 왕권의 대담한 장악은 다만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16:20-22).
 (2) 그래서 압살롬은 군사 회의를 열어 다윗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여기서 아히도벨의 간계가 거절당하고 다윗의 첩자인 후세의 신중론(愼重論)이 채택되었다.
 (3) 뿐만 아니라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동안 압살롬 정권에서 되어진 일들을 비밀리 통지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그날 밤에 요단 강을 건너도록 하였다.
 (4) 그러므로 본장의 사건들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지혜를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의 통치 아래 속해 있음을 보여 준다(참조, 잠 16:9).

2. ㉠ 압살롬에게 제시했던 아히도벨의 전략은 무엇인가? (1-4절)

- ㉠ (1) 아히도벨의 전략은 전체 백성이 돌아오는 열쇠가 다윗 한 사람의 죽음에 있다는 것이었다.
 (2) 즉 12,000 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가서 몸이 곤해 약해져 있는 다윗 군대를 습격하여 다윗 왕만 죽이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포로로 잡아 오겠다는 전략이었다.
 (3) 그러나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계획이 아니었으므로 무효가 되었다(참조, 약 3:15).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의 걸음을 막으신다.

3. ㉠ 후세는 아히도벨의 전략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 (5-10절)

- ㉠ (1) 후세는 아히도벨이 제시한 모략의 약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2) 첫째,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싸움에 익숙한 전쟁 영웅(히, 김보림)이다.
 (3) 둘째, 다윗의 군대는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격분해 있다.
 (4) 셋째, 다윗은 병법에 익숙하여 굴이나 다른 곳에 따로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만 죽일 수 없을 것이다.
 (5) 넷째, 만약에 다윗의 모살 계획이 실패해서 일부일지라도 먼저 압살롬의 무리가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압살롬의 무리는 사기가 완전히 저하될 것이다.
 (6) 이와 같이 후세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압살롬에게 유리한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미칠 화를 막기 위하여 압살롬의 군사 행동을 지연시키려 하였다.
 (7) 이처럼 악인은 가장 지혜로운 길을 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참조, 욥 5:12; 시 33:10; 사 8:10).

4. ㉠ 후세는 아히도벨이 추천한 모략의 대안(案)으로 무엇을 제시하였는가? (11-14절)

- ㉠ (1) 전국의 장정들을 모아서 그 힘으로 다윗 군대를 덮쳐 버리자고 했다(11, 12절). 즉 인해전술(人海戰術)을 사용하여 다윗의 군대를 멸절시키자는 것이었다.
 (2) 또한 압살롬이 친히 전쟁터로 나아가 지휘해야 한다고 하였다(11절).
 (3) 마지막으로 만일 다윗이 성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밧줄로 그 성을 통채로 묶게하여 강으로 끌어 내리게 하자고 하였다(13절). 이러한 전략은 인간의 힘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방법이었다.
 (4) 이처럼 후세는 압살롬의 교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환상과 명예욕을 조장시켰다.

- (5)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할 때 이와 같이 악인으로부터 이성(理性)을 먼저 빼앗아 가신다.
- (6)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성(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욕심을 제거하자. 욕심은 만악(萬惡)의 근원이다(약 1:15).

5. **㉠** 후세의 모략(謀略)에 대해 압살롬과 온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4절)

- ㉠** (1)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은 아히도벨의 모략(謀略)보다 후세의 모략을 더 낮게 여겼다. 그들의 눈에는 후세의 전략이 보다 안전해 보였다.
- (2) 이러한 결과는 다윗의 기도를(15:31) 응답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 (3) 하나님께서 다윗의 충성스런 친구 후세를 사용하셔서, 아히도벨의 간계를 실패시키고 다윗을 구원하셨다.
 - (4) 압살롬의 회의실에서는 오직 무모한 야망과 인간적인 지혜와 혀의 논쟁만이 존재하는 것 같이 보였으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인도하며 지배하시며 계셨던 것이다(잠 21:1).
 - (5)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찌 기쁘지 않은가!

6. **㉠** 후세는 다윗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15-22절)

- ㉠** (1) 후세→사독과 아비아달→어떤 계집종→요나단과 아히마아스→다윗
- (2)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후세는 다윗에게 오늘 밤 광야 나룻터에서 자지 말고 강을 건너가라는 전갈을 하였다.
 - (3) 왜냐하면 압살롬이 자신의 권고에 동의는 하였지만, 정말로 그렇게 행동할지 아니면 마음을 바꿔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 (4)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충성스러운 신하를 다윗의 안정을 위해 주셨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거나 거기에서 건져 내어 줄 친구를 마련해 두셨다(참조: 요 15:15).

7. **㉠**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머물러 있었던 곳은 어디인가? (17절)

- ㉠** (1) '여행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느로겔'가에 숨어 있었다.
- (2) 이들이 이곳에서 숨어 있었던 이유는, 제사장으로서(15:35, 36) 성막 주위를 떠나 있다는 것이 어떤 중대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3) 이들이 후세의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던 중, 압살롬의 부하에게 발각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18절).

8. **㉠**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누구를 통해 사독과 아비아달의 전갈을 받을 수 있었는가? (17절)

- ㉠** (1) 어떤 계집종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다.
- (2)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그리고 이 계집종은 비록 군대를 지휘하거나 장로 회의에서 조언을 줄 수 없는 위치이지만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다윗과 그 나라는 안전할 수 있었다.
 - (3) 이들은 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다윗에게 봉사할 수 있었다(참조: 왕하 5:2).
 - (4) 그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매우 큰 일을 성취시킬 수 있었다(눅 16:10).
 - (5) 그러므로 우리들도 비록 '한 달란트'만을 가진 미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을 땅에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마 25:25). 도리어 우리의 가진 것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9. **㉠**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군사에게 추적당했을 때 어디로 피신하였는가? (18-20절)

- ㉠** (1)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피신하였다(18절).

- (2) 그때 그 집 여인이 태연스럽게 우물 뚜껑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넣어 위장해 주었다 (19절).
- (3) 이 여인은 선한 동기로 두 첩자를 숨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추격자들을 따돌렸다(20절).
- (4) 우리는 이 여인처럼 종종 선한 일을 위해서 악(거짓말)을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당하게 된다.
- (5) 그렇지만 우리는 선을 위해 악을 범하는 것이 의롭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10. **㉠** 다윗은 언제 요단 강을 건너갔는가? (21, 22절)

- ㉠** (1) 두 전령(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보고를 받았던 그 밤에 강을 건넜다.
- (2) 다윗은 자신의 신하인 후세의 연락 없이는 결코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그의 기다림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다.
- (3) 그러나 그는 모든 일이 여호와와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참조, 시 43:5).
- (4) 여호와와의 능력을 아는 자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고 또한 기다릴 줄 안다(시 4:8).
- (5) 오늘날의 교회도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다리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11. **㉠**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채택되지 않자 결국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23절)

- ㉠** (1)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14절) 고향(15:12)으로 돌아가서 자살하였다.
- (2) 그는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할 길이 없어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 (3) 이처럼 악인은 자신의 고통 중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시 7:15, 16), 죽음을 생각한다. 죄를 짓고 심히 고민하는 자들 중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까지 소홀히 여겨 자살까지 감행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 (4) 이와 같은 자살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므로 큰 죄라고 할 수 있다(출 20:13).
- (5) 그러므로 자살을 결심한 자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이다.

12. **㉠** 압살롬은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는가? (24-26절)

- ㉠** (1) 이드라의 아들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 (2) 이드라는 다윗의 누이인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다(25절; 대상 2:16, 17).
- (3) 그러므로 압살롬과 아마사는 고종 사촌간으로 다윗 집안 내의 몰락을 조장하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 (4) 이처럼 범죄한 자의 마음에는 혈연 관계마저도 부인하고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살아간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13. **㉠**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신하였을 때 물질적인 원조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27-29절)

- ㉠** (1) 암몬 족속의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래였다.
- (2) 이곳 마하나임은 그 옛날 피곤에 지쳤던 도망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의 천사들을 만났던 곳이다(창 32:2).
- (3) 바로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사인 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그들이 가져온 음식의 양은 다윗 일행이 오랫동안 충분히 사용하기도 남을 정도의 넉넉한 양이었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피곤함을 아시고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이웃의 사랑을 통하여 정신적 위로를 제공하신다.
- (5)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시 23:1).

14. **㉠** 마하나임의 세 사람이 다윗을 돕게 된 근본 동기는 무엇인가? (29절)

- ㉠** (1) 단순히 다윗 일행의 필요를 채워 주려는 마음에서였다.
- (2) 그들은 참으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눅 10:30-37).
- (3)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유익이 될만한 사람들만을 골라서 그 필요를 채워 준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마 5:46, 47).
- (4)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을 생각지 않고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가엾게 여겨 그 필요를 채우는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보상하시는 참사랑의 행동이다(마 25:34-40).

15. **㉠** 마하나임의 세 사람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실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7-29절)

- ㉠** (1)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지원하는 자들은 그 사역자들의 동역자가 된다.
- (2)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여인들은(눅 8:2, 3)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다.
- (3)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는(행 16:15; 빌 4:14-16) 복음 전파 역 사상 바울과 함께 멤버 쉽(동역자 의식)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평가를 바울로부터 받았다(빌 1:5, 7).
- (4) 이와 같이 목회와 선교에 자신들의 물질을 기꺼이 기부하는 자들은 함께 영예를 얻게 된다(요삼 1:8).
- (5) 이러한 자의 보상은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은 것과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악의 세력을 파멸시킨 후 최종적인 승리에 주와 함께 동참하는 것 등이다(마 25:21, 23).

본장의 요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짙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19절).

제 18 장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비통

단락구분 1-5 다윗이 전열을 정비하다 / 6-8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다 / 9-15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다 / 16-18 압살롬의 기념비 / 19-33 두 전령의 보고와 다윗의 애곡

1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 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2 그 백성을 내어보낼새 삼분지 일은 요압의 수하에, 삼분지 일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삼분지 일은 가드 사람 잇대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3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4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서매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5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6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7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 날 그 곳에서 살륙이 커서 이만에 이르렀고

8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9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할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10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11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12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

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13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 하였으리이다

14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리라

16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17 우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18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19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20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21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달음질하여 가니

22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음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이 왜 달음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23 저가 아무쪼록 달음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달음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24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군이 성문루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음질하는지라

25 파수군이 외쳐 왕께 고하대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26 파수군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음질하는지라 묻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음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27 파수군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달음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달음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 오느니라

28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 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29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30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섰더라

31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32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33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였더라

1. **㉠** 본장에는 어떤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가?

- ㉠** (1) 암몬 족속에 속한 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원기를 회복한 다윗은(17:27-29) 자신의 추종자들을 정비하고 그들을 각각 요압, 아비새, 그리고 잇대의 관할 아래 세 부대로 나누었다.
- (2) 다윗으로부터 압살롬의 안전을 부탁받고 출전한 다윗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 전투에서 압살롬 군대를 전멸시키다시피 하였다.
- (3) 그러나 요압은 이 전투에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곤궁에 처한 압살롬을 살해해 버렸다.
- (4)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고 난 다윗은 비통에 못이겨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극도의 슬픔에 잠겼다.
- (5) 이렇게하여 반역자들의 음모는 일단락(一段落) 되었으나 다윗과 이스라엘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었다.
- (6) 이와 같이 인간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허락하시지만 깊은 상처를 남겨 두시고 그 상처를 통하여 또 다른 죄악을 예방하신다.

2. **㉠**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어떻게 편성하였는가? (1, 2절)

- ㉠** (1) 다윗은 부하들을 점호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한 다음 그들을 삼분하여 각각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의 휘하에 두었다.
- (2) 깊은 굴욕과 절망의 순간이 지나간 다음 다윗은 다시 자신과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
- (3) 그는 굴욕과 좌절의 순간 동안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로운 용기를 간구하였다(시63:1).
- (4) 이처럼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제공하신다(참조, 사 40:31).
- (5) 새 힘을 얻은 다윗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추종자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어 전열(戰列)을 가다듬었다.

3. **㉠** 백성들은 함께 출전하겠다는 다윗의 제의(提議)를 무슨 이유로 거절하는가? (2-4절)

- ㉠** (1) 백성들은 적군이 다윗의 생명만을 추적할 것이며 또한 다윗은 10,000명의 자신들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3절).
- (2) 그들은 다윗에게 자기 자신을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으며 그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 (3) 이처럼 통치자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생명까지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이미 그들은 정신적인 승리를 쟁취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 (4) 이러한 삶의 자세는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며 끝내 생명까지 포기하는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막 10:29,30).
- (5) 이러한 삶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많은 생명의 결실이 뒤따르며 그리스도의 날에 확실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참조, 요 12:24).

4. **㉠** 다윗은 출전하는 군대를 향하여 무엇을 부탁하였는가? (5절)

- ㉠** (1) 다윗은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부탁하였다.
- (2)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다윗의 확신과 그 아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동시에 나타내 보이는 말이다.
- (3) 압살롬은 다윗만을 죽이려 했으나(17:2-4) 다윗은 압살롬만 살리려 하였다.
- (4)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자비를 베푸시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
- (5)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엄청난 간격을 좁혀 나가는 자,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를 말한다(참조, 롬 8:29; 빌 2:5).

5. **㉠**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충돌했던 곳은 어디인가? (6-8절)

- ㉠** (1) 트랜스 요르단의 압복 강 북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수풀이었다(6절).
- (2) 이 지역은 원래 '요셉의 족속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수 17:17)에게 주어졌는데 후에 에브라임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 지역을 빼앗겼다(삿 12:1-15).

6. **㉠** 에브라임 수풀 전투에서 어느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는가? (6-8절)

- ㉠** (1)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 군대를 무찔렀다(7절).
- (2) 이날의 전투는 매우 치열했기 때문에 압살롬 군대의 희생자가 20,000명에 달했다(7절).
- (3) 자신들을 구하려던 압살롬의 군대는 자멸하였다. 즉 은신처로 알았던 수풀은 칼보다 더 무서운 피해를 입혔던 것이다(8절).
- (4) 하나님의 복수는 반란자에게 피할 곳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윗을 위해 싸우셨다(참조, 욥 8:20-22).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실현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여건에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 4:4).

7. **㉠** 압살롬이 요압에게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9-15절)

- ㉠** (1) 압살롬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노새를 타고 급하게 도망하다가 머리털이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에 걸렸기 때문이다(9절).
- (2) 압살롬의 머리털은 지금까지 그의 자랑거리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대상이었지만 도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그를 배신하고 죽게한 원흉이었다.
- (3) 그가 이 같은 죽음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악을 징벌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17:14).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자랑거리를 수치와 멸망의 근거로 삼으신다. 반면에 의인의 수치를 영광과 존귀로 변하게 하신다(참조, 유 20:5; 마 5:11, 12).

8. **㉠**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주기로 마음먹었는가? (11-13절)

- ㉠** (1) '은 10개와 공훈을 표시하는 띠 하나'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 (2) 이것은 다윗의 신복 중 하나가 요압에게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위경(危境)에 있다는 것을 보고했을 때 밝혀졌다(11절).
- (3) 요압은 분명히 압살롬을 보호하라는 다윗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5절) 자신의

의중(意中)에는 악한 계획을 품고 있었다.

- (4) 이것은 다윗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즉 그는 내적인 반역을 저지르고 있었다.
- (5)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서 큰 죄악이다(참조, 마 21:28-32).

9. **㉠** 다윗의 신복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다는 요압의 책망을 듣고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12, 13절)

- ㉠** (1) 그는 왕의 명령(5절)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요압에게 은 1,000개를 받겠다고 하더라도 압살롬에게 손대지 않겠다고 하였다(2절).
- (2) 그리고 자기가 만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요압이 도리어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붙였을 것이라고 하였다(13절).
- (3)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당신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보호하신다(참조, 시 31:23, 24).
- (4) 사람의 눈을 먼저 의식하는 자들은 바로 의식하는 자이다(참조, 마 10:28).

10. **㉠** 압살롬은 어떻게 살해당하였는가? (14, 15절)

- ㉠** (1) 상수리나무에 달린 채 요압과 그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였다.
- (2) 그가 암논을 죽인 것과 같이(13:28, 29) 그도 그렇게 요압에 의해 살해되었다.
- (3) 사실 요압의 행동(14절)은 의로운 것이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한 자의 행동마저도 당신의 선한 목적에 사용하신다.

11. **㉠** 압살롬의 시체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16-18절)

- ㉠** (1) 우리가 압살롬의 시체를 에브라임 수풀 가운데 있는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17절).
- (2) 이 돌무더기는 압살롬이 생전에 지은 악행의 기념비였다. 즉 이것은 패역한 자녀는 돌로 쳐죽임이 마땅하다는 계명의 성취였다(신 21:21).
- (3) 또한 돌무더기는 반역자의 부끄러운 무덤의 표시이기도 했다(수 7:26; 8:29).
- (4) 이와 같이 악인은 육체의 죽음과 아울러 명예의 죽음까지 맛보아야 했다.

12. **㉠** 압살롬은 무엇 때문에 비석을 만들어 놓았는가? (18절)

- ㉠** (1) 그는 자기의 아들(14:27)이 일찍 죽어 자기 이름을 남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비석에다 자기의 이름을 새겨 후세에 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 (2)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과 같은 동기에서 기념비와 피라밋과 궁전을 세우고 전쟁을 일으키며 대담한 계획들을 추진하곤 했었다(참조, 시 45:11-13).
- (3) 그러나 그들은 양심의 호소나 인류의 복지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렇게 한 것이다(참조, 창 11:4; 겔 29:3; 단 4:30).
- (4) 하지만 결국 올바른 정신에서부터 발전된 노력만이 영원하고도 명예로운 이름을 남긴다.

13. **㉠** 누가 승전(勝戰)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겠다고 자원하였는가? (19-2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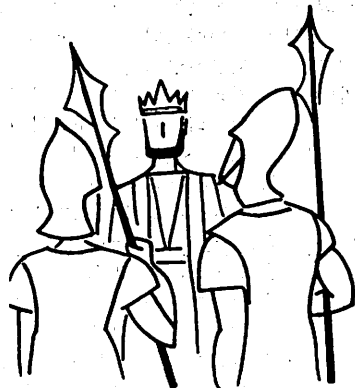
- ㉠** (1) 사독의 아들 아히마이스였다(19절).
- (2) 그는 평안과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었다(참조, 사 40:6).
- (3) 그는 이 벅찬 감격의 소식을 전하는 사역을 남에게 빼앗기기 싫었던 것이다.
- (4) 이처럼 성도들은 비록 세상이 환영하지 않더라도 고난과 죽음을 무릎쓰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참조, 뵤 5:2).

14. **㉠** 요압이 자원하는 아히마이스를 제쳐 놓고 '구스 사람'을 전령(傳令)으로 보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9-21절)

- Ⓐ (1) 요압은 만약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전한다면 다윗이 그 전령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참조, 1:14-16).
 (2) 그래서 그는 아히마아스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가지고 가게 할 수 없었다(20절).
 (3) 그러나 이러한 편애(偏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호히 버려야 할 것이다.
 (4)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더 귀한 자도 그리고 천대받아야 할 자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동일한 가치로 생각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마 26:40).
15. ⓐ 다윗은 한 사람이 접근해 오고 있다는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4-27절)
 Ⓐ (1) 다윗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고 하였다(25절). 즉 여럿이면 도망하여 오는 자들이지만 혼자이면 전황을 들고 오는 전령이라는 말이다.
 (2) 그는 또한 아히마아스의 접근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27절).
 (3) 이처럼 그는 비록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4) 그는 자기 군대의 힘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평온할 수 있었다(시 18:1, 2).
16. ⓐ 다윗이 두 전령에게 물었던 동일한 질문은 무엇인가? (28-32절)
 Ⓐ (1) 다윗은 두 전령에게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29, 32절)는 동일한 질문을 하였다.
 (2) 이 질문은 다윗이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본성적인 것이다.
 (3) 그러나 그는 마땅히 패역한 자식보다도 자기 부하들의 안부를 먼저 물었어야 옳았다.
 (4) 우리의 삶 속에도 우선 순위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평가된다.
 (5) 우리는 개인의 문제보다도 먼저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과 사랑을 표명해야 한다. 자기의 문제에 얽매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참조, 마 6:33; 딤후 2:4).
17. ⓐ 다윗은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고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33절)
 Ⓐ (1)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하고 울먹었다.
 (2) 이러한 다윗의 비탄은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죄(12:11, 12)의 결과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과 반역자로서 회개하지 않은 채 영원히 멸망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비통하였다.
 (3) 이런 비통 속에는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두터운 부정(父情)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는 일국의 왕으로서 개인의 슬픔을 자제하고 먼저 희생자들을 위로했어야 했다.
 (4)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받은 고난에 너무 집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망각할 때가 있다.

본장의 요절

‘왕이 요압과
 아버지새와 잇대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5절).



제 19 장 전투의 종결과 다윗의 환궁

단락구분 1-8 요압이 다윗에게 눈물을 거두도록 간청하다 / 9-15 다윗이 민심을 수습하고 환궁하다 / 16-23 시므이가 사죄를 청하다 / 24-30 므비보셋이 다윗을 영접하다 / 31-40 다윗이 바실래와 직별하다 / 41-43 왕의 일에 대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다름

1 흑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암살됨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2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니라

3 그 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도 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4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암살됨아 암살됨아 내 아들이 내 아들이라 하니

5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6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암살됨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7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8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흑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9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암살됨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10 우리가 기쁨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암살됨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는나 하니라

11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 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

이 되느냐

12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어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13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발 위에 발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14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매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15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16 바후림에 있는 베나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17 베나민 사람 일천 명이 저와 함께 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열 다섯과 종 스무 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 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18 왕의 가족을 건너려 하며 왕의 선히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19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고로 오늘 요셉의 은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21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와 기쁨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이까

22 다윗이 가로되 스루아의 아들들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24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 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땀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각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25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26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27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가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율음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29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발을 나누라

30 므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31 길르앗 사람 바실래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32 바실래는 매우 늙어 나이 팔십 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궤하였더라

33 왕이 바실래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34 바실래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삽관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35 내 나이 이제 팔십 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

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 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36 좋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 어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37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가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배부소서

38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배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39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실래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40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41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좃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었나이까 하매

42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43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심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제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과 그 교훈은 무엇인가?

- ㉠ (1) 다윗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다윗은 슬픔 중에 있었다(18:33). 이 일에 대해 요압은 강력한 권유로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 민심을 수습하게 만든다.
- (2) 다윗은 환궁하는 길에 시므이를 용서하고(16:5-14) 므비보셋의 영접을 받았으며 또한 옛 은인(恩人) 바실래의(17:27-29) 소청(疏請)에 따라 김함을 자기 측근으로 삼았다.
- (3) 그러나 왕위 회복 예식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의하였으며 끝내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분규(紛糾)가 발생하였다.
- (4)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내에서 보이는 적은 소탕하였지만 보이지 않는 적(경쟁심과 질투, 불평 등)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스라엘의 안정을 해치고 있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요인도 외부의 악한 세력보다는 내부의 파벌 의식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5) 만약 우리가 이처럼 잠재해 있는 악을 경계하려면 우리는 자주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그의 이름을 얼마나 더 영광되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 보아야만 할 것이다.

2. **Q** '그 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4절)

- A** (1) 다윗의 개인적인 슬픔으로(1,2절) 부당한 혁명 세력을 제압한 국민적 기쁨이 가라앉게 되었다는 뜻이다.
 (2) 지도자는 사적인 문제로 야기된 밝거나 어두운 감정을 자제하여 그것이 대중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왜냐하면 그 자신이 바로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감정은 백성을 지배한다(3절).

3. **Q** 다윗의 비통함에 대해 요압은 어떤 눈으로 보았는가? (1-7절)

- A** (1) 요압은 암살름을 향한 다윗의 애정이 목숨을 바쳐 반역자와 싸운 술탄 생명들에 대한 경시로 보았다(5,6절).
 (2) 그리고 만약 암살름이 승리했다라면 그것은 다윗과 그에 속한 자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6절).
 (3) 마지막으로 요압은 다윗에게 모든 신하들을 위로하라고 권면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7절).
 (4) 요압은 다윗에게 잘못된 것이 많았으나 이때에는 왕 앞에서 올바른 충고를 했다.
 (5) 이처럼 참된 친구는 이웃을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하여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잠27:6).

4. **Q** 다윗은 요압의 충고를 듣고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8절)

- A** (1) 다윗은 요압의 충고를 듣고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
 (2) 여기서 '성문'이란 집회와 업무의 장소로서 보통 왕이 백성에게 접견을 허락하는 곳을 말한다(참조, 삼상9:18; 암5:10,12).
 (3)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압의 의견을 따라 집무를 계속하겠다는 표시로 성문에 앉았던 것이다.
 (4) 한편 다윗이 나와 앉은 성문은 예루살렘 성문이 아니라 마하나임 성문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17:24,27).

5. **Q** 다윗은 반역자 암살름을 물리친 후 어떠한 자세로 생활하고 있었는가? (9,10절)

- A** (1)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자숙하며 참고 기다렸다.
 (2) 그 이유는 첫째, 자기 집안에서 벌어진 일련의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근신(謹慎)하였기 때문이며 둘째, 암살름을 따르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뉘우치고 다시 자신을 따르기를 바랬기 때문이다(10절).
 (3) 이처럼 자신의 허물을 바로 깨달은 자는 자고(自高)하거나 합부로 날뛰지 않는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6. **Q** 유다 장로들이 다윗의 환궁(還宮)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11,12절)

- A** (1) 아마도 유다 장로들은 그들이 암살름의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15:10,11) 다윗을 적극적으로 모시지 못했던 것 같다.
 (2) 그러나 다윗은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서 유다의 장로들을 참석하게 하였다(11절).
 (3) 그는 참으로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 자였으며 또한 이웃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랑을 제공하는 자였다.
 (4) 이처럼 우리도 이웃의 용서의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웃에

게 나아가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이런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자가 소유해야 할 덕목이다(참조, 요 13:34; 15:12; 요일 4:10, 11)...

7. **㉠** 다윗은 유다 백성의 회유 정책으로 요압 대신에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등용시켰는가? (13-15절)

- ㉠** (1)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지휘자였던 아마사(17:25)를 군장으로 삼았다.
 (2) 아마사는 유다 지파로서 다윗의 조카이기도 했다. 따라서 다윗이 그를 자신의 군장으로 삼은 것은 혈육간의 싸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이 일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운 것은 곧 지금까지 다윗을 위해 애쓴 요압의 퇴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4) 결국 이 일은 요압의 야망을 자극해 그의 왕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20:8-13).
 (5)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형제를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또 다른 형제를 괴롭히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은 적당하게 질서대로 이뤄 나가야 한다(참조, 고전 14:40).

8. **㉠**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왔던 동기는 무엇인가? (16-20절)

- ㉠** (1) 그는 전에 다윗을 저주한 죄에 대해(16:5-8) 용서를 빌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왔다.
 (2) 여기서 시바도 함께 동행하였는데(17절) 그는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에 대한 거짓말(16:1-8) 때문에 다윗에게 사죄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것 같다.
 (3) 여하튼 시므이는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을 맞아(16, 20절)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무리와 함께 찾아온 것이다.

9. **㉠** 다윗은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어떻게 하였는가? (21-23절)

- ㉠** (1)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였다(23절).
 (2) 여기서 다윗은 그를 친히 죽이지는 않겠다고 맹세하였지만 그가 지은 죄(21절)에 대해서 죄없다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3) 즉 다윗은 그를 일단 용서하였으나 그 후 솔로몬에게 그를 없애라고 명했다(왕상 2:8).
 (4) 왜냐하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행동은 하나님의 기쁨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것이며 따라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5) 결국 이것은 다윗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신정 국가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행한 처사였다.

10. **㉠** 므비보셋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는가? (24-30절)

- ㉠** (1) 므비보셋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은' 채 다윗을 맞으러 왔다(24절).
 (2) 이것은 극심한 애도의 표시로서 다윗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3)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無罪)를 주장하고 자신의 종 시바의 허물을 고발하였다(25-27절). 그리하여 므비보셋의 무죄는 인정되었다(29, 30절).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항상 패배하게 하지는 않으신다. 비록 처음에는 어둠의 권세 아래 진리의 빛이 감춰진 것 같지만 끝내 그 빛은 온누리에 드러나고야 만다.

11. **㉠** 다윗이 길르앗 사람 바실래를 후대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31-39절)

- ㉠** (1) 다윗이 환난 때에 마하남에서 그의 풍부한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다(17:27-29).
 (2) 이에 대해 바실래는 자신이 왕을 도운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면서 상받는 것이 당치 않다고 말했다.
 (3) 대신에 자기의 아들 김함(왕상 2:7)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하였다(38절).
 (4) 참으로 그는 겸손한 자였으며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

(5)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기억하시며(마 25:34-40) 그 이름을 아름답게 하신다(참조, 골로새 3:2:61; 17:63; 시 102:28).

12. **㉠** 다윗에게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40-43절)

- ㉠** (1) 이스라엘과 유다, 즉 남북 연합으로 왕을 맞이해야 할 일을 유다 사람들이 단독으로 실행했다는 것이다(41절).
- (2)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무리들은 이러한 유다 사람들의 행위를 도적 행위라고 규탄하였다(41절).
- (3) 그러나 이것은 명분만을 내세운(43절) 과장된 말(40절)이며 형제를 시기함에서 취해진 행동이었다.
- (4) 척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런 불평은 없어야 한다. 이런 행동으로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참조, 빌 2:1-4; 히 12:14).
- (5)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명분만을 내세우는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경쟁 의식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13. **㉠**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한 유다 사람들의 답변은 무엇이었는가? (42절)

- ㉠** (1) 유다 사람들은 '왕은 우리의 지친(至親)인 까닭이라' 라고 대답했다.
- (2) 즉 이 말은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호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일이 물질적인 이권이나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윗과 같은 부족으로서 다윗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다(11, 12절).
- (3) 사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유다 지파가 자기 지파라고 하여 특별히 대우한 적이 없었다.
- (4) 이처럼 우리들은 선한 사업에 애쓰는 자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다(갈 6:2).

14. **㉠** 이스라엘과 유다의 말다툼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였는가? (43절)

- ㉠** (1) 항의한 이스라엘보다 항의받은 유다 쪽에서 더 강경한 자세가 되어 급기야 세바의 난(20:1-22)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2) 이처럼 비록 우리가 옳고 우리편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만일 강경하게 우리 감정을 표현한다면 더 큰 불행을 초래하고 만다(참조, 잠 29:9).
- (3) 기독교인들의 상호 불화는 크나큰 재앙이다. 개인이나 교파의 정당한 주장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활화한다면 이러한 불화는 방지되었을 것이다(참조, 고전 10:23-31).

본장의 요절

'내 나이
이제 팔십 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 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35절).

제 20 장 이스라엘을 거느린 세바의 반란

단락구분 1-2 세바의 반역 / 3 다윗이 1명의 접돌을 가두다 / 4-5 다윗이 유다 사람을 소집하다 / 6-7 다윗이 아비새를 보내어 세바를 추격하다 / 8-13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다 / 14-15 요압이 세바를 아벨까지 추격하다 / 16-22 지혜로운 한 여인이 세바를 살해하고 성읍을 구하다 / 23-26 다윗이 거느린 장관들

1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나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할 분의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 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2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름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3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 명을 잡아 벌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붙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4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삼 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5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 된지라

6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네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7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8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에 쫓은 칼을 허리에 매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9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10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새

11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서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12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어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의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웃을 그 위에 덮으니라

13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14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15 이에 저희가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16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러 하노라 한다 하라

17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18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19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데도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20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21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 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22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리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23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24 아도니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25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26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특징적 사건은 무엇인가?**

- ㉠** (1)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는 틈(19:40-43)을 타서 배교자 세바가 새로운 반역 운동을 일으켰다.
 (2) 세바의 반란은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결국 실패로 끝났으나 그의 반란의 동기(1절)는 끝내 후대 북왕국 반란의 표어가 되고 말았다(왕상 12:16; 대하 10:16).
 (3) 이처럼 조그마한 불화(不和)의 씨앗이 온 이스라엘에 파급된 것은 간과(看過)해 버릴 수 없는 교훈적 의미를 지닌다.
 (4)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하찮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화를 겪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
 (5) 이러한 안타까움을 미연(未然)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그마한 일조차도 성실함을 가지고 대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의 보호자가 되신다(참조, 시 31:23).

2. **㉠ '난류'(亂類)란 무엇을 말하는가? (1, 2절)**

- ㉠** (1) '난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벨리알>은 자신의 이성과 능력만을 의지하여 생활하는 자, 즉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없는 무익한 자를 뜻한다.
 (2) 이 '난류'는 베냐민 사람 세바를 가리킨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의 거민으로서(21절) 사울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몰락으로 등장한 다윗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이다.
 (3)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논쟁이(19:40-43) 도화선이 되어 세바는 개인적인 감정을 은폐하고 온 이스라엘을 충동질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4) 이처럼 숨겨진 원한과 분노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든지 표출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남기고 만다(잠 29:22).
 (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찌끼를 남기지 말고 찢겨진 마음의 상처와 앙금을 없애기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참조, 엡 4:22-27).

3. **㉠ 다윗이 후궁(後宮)들을 별실에 가두도록 명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그녀들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암살됨과 동침하였기 때문이다(16:22).
 (2) 율법에는 비록 자기 아내일망정 다른 남자에게 몸을 허락한 여자는 결코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신 24:1-4).
 (3) 다윗은 왕국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죄악된 요소를 제거하고 마음과 가정을 청결케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그 후궁들을 생과부로 만들었다.
 (4)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윗 한 사람의 범죄(11:4, 14-21; 신 17:7)로 인한 것이었다.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지만 그 상처는 그의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고 그를 괴롭혔다.

4. **㉠ 다윗은 반역자 세바의 무리를 진압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용하였는가? (4-7절)**

- ㉠** (1) 암살됨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등용하였다(17:25).
 (2) 그는 다윗으로부터 3일 내에 군대를 소집하여 반란군을 제압하도록 명령받았으나 유

다 사람들은 그의 명령에 호응하지 않았다.

- (3) 그래서 다윗은 아마사를 대신하여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진압 지휘관으로 삼고 그 휘하에 요압과 모든 군사들을 두게 하였다(6, 7절).
- (4) 이와 같이 과거에 범했던 허물로 인하여 현재와 미래에까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형제의 선한 행동은 잠깐이지만 그 허물은 영원히 지우지 않고 기억해 두기 때문이다.
-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당신의 백성들의 허물은 잠깐이지만 그 선행은 영원히 기억해 두신다(참조, 사 1:18; 마 25:33-40).

5. **㉠**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했던 동기는 무엇인가? (8-10절)

- ㉠** (1) 요압의 살인은 피의 복수가 아니라 단순한 질투와 원한에 의한 것이었다(19:13).
- (2) 그는 중동의 인사법대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맞추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단검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이로써 요압은 자신의 정적(政敵)을 몰아내고 실권을 회복할 기회를 맞았다.
 - (3) 결국 그는 자기의 친족도(대상 2:14-17) 몰라볼 정도로 사악한 감정에 휩싸여서 세번재의 살인(3:27; 18:14)을 범하고 말았다.
 - (4) 이처럼 그 도가 증대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도 더욱더 담대해지고 무감각해져 간다.
 - (5)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악의 시작은 거부되어야 한다.

6. **㉠** 요압의 군사 중 하나는 요압의 살인을 은폐하고 지속적인 요압의 지휘권 보장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어떤 호소를 하였는가? (10-13절)

- ㉠** (1) 그는 '요압을 좋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고 충동질하였다(11절).
- (2) 즉 그는 요압과 다윗이 한편이라도 되는듯 교활한 웅변으로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회유(懷柔)하였다(13절).
 - (3) 그리고 백성들이 피흘리고 죽은 시체를 보고 격앙되지 않게 하려고 옷으로 그 시체를 덮고 길 바깥으로 옮겨 버렸다.
 - (4) 그러나 백성들을 회유하고 시체를 보이지 않게 했다고 해서 그 죄가 가리워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감찰하고 계신다(참조, 시 34:13-15).

7. **㉠**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한 자가 누구인가? (14, 15절)

- ㉠** (1) 히브리 원문에는 '요압'이 생략되어 있다. 그런데 원문상으로 주어를 일치시켜 볼 때 '요압'보다 '세바'가 더 적합하다.
- (2) 즉 세바가 이스라엘의 인심을 자신에게로 모으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그의 도움의 호소를 거부하였다.
 - (3) 그는 남달리 지역에 있는 아벨 뱃마아가에 반란 정부를 세우고 정부군을 맞이하였다(15절).
 - (4) 그러나 그는 '난류' (1절),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서 자기의 추종자들과 성(城)의 보호력만을 믿었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였다(참조, 시 127:1).
 - (5)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불의의 장벽을 파괴하신다(참조, 읍 26:6-14).

8. **㉠** 아벨 뱃마아가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5-22절)

- ㉠** (1) 그녀는 성읍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담대하게 요압에게 대화를 요청했다(16, 17절). 이것은 온 백성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행동이다.
- (2) 또한 그녀는 정부군이 아벨 성 사람들의 화평과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 아벨을 침공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18, 19절). 사

실 율법(신 20:10)에는 이웃 나라의 성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명하고 있다.

- (3) 마지막으로 그녀는 지혜로운 말로 아벨 성 사람들을 설득해 세바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요압에게 던지게 했다. 이로 인하여 아벨 성은 불의한 자 세바를 제외하고는 피흘림이 없이 닦쳐온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21, 22절).

9. ㉠ 이스라엘의 행정 기구 안에 신설된 기관은 무엇인가? (23-26절)

- ㉠ (1) 감역관(監役官) 제도를 신설하였다(24절).
 (2) 감역관이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세무관을 말한다.
 (3)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는 악의 결과로 왕에게 공물(강제 사역 포함)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삼상 8:10-18).
 (4) 초대 감역관이었던 아도니람은(24절) 백성들의 원성을 사서 끝내 죽임을 당하였다(왕상 12:18).
 (5) 이처럼 하나님의 법도가 굳게 서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의 제도가 도전해 왔을 때는 많은 부조화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연구자료

성경적 국가관. 본장의 마지막 부분(23-26절)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여러 관직들이 세워진 기록이 나온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왕국은 여러 기능이 체계적으로 세분되어 조직화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 본고는 이 기회에 성경적인 국가관에 관하여 말하려고 한다. 먼저 전제(前提)되어야 할 사실은 이 세상을 다스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그 주권은 그리스도께로 이양되었다는 점이다(마 28:18; 요 17:2). 따라서 세상의 모든 국가는 그리스도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고 국민들을 다스리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들은 국가의 통치권에 굴복해야 한다(롬 13:1-7; 딤후 3:1, 2). 그리고 국가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공의(公義)의 실현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악하고 탐욕스러운 이기심을 제어하여 하나님의 의(義)를 실현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곧 국가이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복리(福利)를 도모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여 관존 민비(官尊民卑)의 사상을 외치거나 소수의 집권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을 착취하거나 탄압하는 일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아무리 악한 국가와 정부라 할지라도 일단 그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비교, 삿 9장). 그러므로 국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며 위정자가 잘못을 행할 경우 국민들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딤후 2:1-3).

제 21 장 사울의 후손을 처형하다

단락구분 1-9 사울의 아들 일곱을 죽임으로 기브온의 피로 인한 3년 동안의 기근이 멈추다 / 10-11 시체를 보호해 준 리스바 / 12-14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조상의 묘에 이장(移葬)하다 / 15-17 아버지 새가 블레셋의 칼에서 다윗을 구출하다 / 18-22 다윗 부하들의 공적

1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삼 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3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와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4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

5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 자손 일곱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와 뱀신 사울의 고을 기브온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7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8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말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므홀랏 사람 바실래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잡고

9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일곱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처음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10 아야의 딸 리스바가 쉰 베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퍼고 곡식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11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12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벧산 거리에 매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 온 것이라

13 다윗이 그 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 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쉐라에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좇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15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16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삼백 세겔 중 되는 놋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놈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17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18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삼을 쳐 죽였고

19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열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베를채 같았더라

20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 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손과 매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 네 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21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므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22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1. **㉠** 본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주로 언제 발생한 것들인가?

- ㉠** (1) 다윗 왕 시대의 기사는 열왕기상에서 계속되나 여기서부터는 부록으로 중단된다.
 (2) 이 부분은(21:1-24:25) 비연대기적(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하지 않은) 부록이며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3) 그런데 본장의 사건들은 앞에서 언급되어진 사건들과 서로 상충하는 부분(19절; 삼상 17:4) 과 첨가된 부분(1-22절) 이 있어서 해석하기에 조금 난해하다.
 (4)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을 구속사적(敎贖史的)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모순과 오류의 문제성은 해결된다.

2. **㉠** '다윗의 시대'란 언제쯤인가? (1절)

- ㉠** (1) 다윗의 시대는 압살롬 반란 전(16:7; 19:28) 므비보셋을 찾은 후(9:1)인 듯하다.
 (2) 이때에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의 계속되는 기근이 있었다. 이 기근은 겨울비가 내리지 않은 결과이다(왕상 18:2).
 (3)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징벌이었을 것이다.
 (4) 이런 때에 만약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과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외칠 것이고 권력과 부요를 남용했던 죄를 회개하라고 외칠 것이다.
 (5)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환경은 주님이 조성하신 것이다(참조, 롬 11:36).

3. **㉠**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 (1) 그 이유는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을 완전히 몰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기브온 사람들(수 9:3-27)의 일부를 죽였기 때문이다.
 (2) 즉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다는 잘못된 애국심으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의 거룩한 언약을 무시하였다.
 (3) 이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언약의 파기는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4)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울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사실을 덮어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는 재난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다.
 (5)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현대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관을 버려 징계를 면해야 한다.

4. **㉠** 사울의 범죄 사실을 안 후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3절)

- ㉠** (1) 다윗은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고 하였다.
 (2) 다윗은 압박받는 피조배 민족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약 5:4).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이 겪는 기근의 재앙을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 먼저 기브온 사람들과 화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3) 사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시 10:17, 18).
 (4) 이처럼 가난한 자, 압박받는 자의 입술은 하나님과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대접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마 10:42; 18:6, 10).
 (5) 사실 이러한 선행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모습이다(약 1:27).

5. **㉠** 화해 조건을 묻는 다윗의 질문에 대하여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하였는가? (4-6절)

- ㉠** (1)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그 집과 자신들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함을 이야기 한 후 자신들을 이스라엘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들의 일부를 죽인 이스라엘 자

손 일곱을 내어달라고 하였다.

- (2) 즉, 기브온 사람들은 민 35:31의 율리(생명은 생명을 요구한다)에 따른 공의를 요구하였다.
- (3) 신 24:16에 비추어 보면 이 일곱 자손은 기브온 사람들을 습격하는 일에 직접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4) 여하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했다. 즉 이들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제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 (5)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도 헛 것이다(시 66:18).

6. **㉠ 기브온이 요구했던 희생 대상자는 누가 되었는가? (7-9절)**

- ㉠** (1) 아야의 딸 리스바(3:7)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삼상 18:19)에게서 난 자 곧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이었다.
- (2) 그러나 이들 희생 대상자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제외되었다(7절). 왜냐하면 옛날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18:3; 20:8, 14-17, 42).
- (3) 성도들의 구원도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다. 즉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사이에 맺은 평화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얻게 된 것이다(참조, 마 26:28; 히 7:22; 8:6-10; 13:20).
- (4)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시 23:4; 롬 8:31-39).

7. **㉠ 기브온 사람들은 언제 사울의 후손들을 처형하였는가? (9절)**

- ㉠** (1) 곡식 베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한 때였다.
- (2) 보리 베기는 밀보다 먼저 시작하는데 4월 중순에서 하순경이다(출 9:31; 룻 1:22; 2:23).
- (3) 이때 그들은 사울의 후손들을 목매달아 죽였는데 이것은 시체를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 처형의 한 방법으로 잔인한 형벌이다(참조, 신 21:22, 23).
- (4) 한편 율법에 보면 나무 위에 달리거나 창으로 찢려 죽이는 형벌을 당한 자들의 시체는 그날 저녁에 내려서 매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신 21:23).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체는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10절).

8. **㉠ 다윗에게 알려진 리스바의 선행은 무엇이었는가? (10-14절)**

- ㉠** (1) 보리 수확기인 4월부터 이른비가 오는 10월까지 노출된 두 아들(8절)의 시체를 부육(腐肉) 동물로부터 보호한 것이었다(10절).
- (2) 사울의 첩(3:7)이었던 리스바의 이러한 행동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보호한 것과 동일한 의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삼상 31:11-13).
- (3)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감동하여서 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묻어 두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기브온에서 함께 못박힌 사울의 아들과 손자들의 뼈와 더불어 베냐민 땅 셀라에서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가족묘에 장사지냈다.
- (4) 이와 같이 비록 가정을 위한 어머니의 사소한 사랑이었지만 그녀의 행위는 그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널리 확산되어 나갔다(참조, 마 26:13).
- (5) 인간의 사랑이 이토록 깊고 강할진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하겠는가?

9. **㉠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14절)**

- ㉠** (1) 다윗이 사울 일가족의 뼈를 기스의 묘에 장사지낸 후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내린 기근의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뜻이다.
- (2)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죄악)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시 66

:18; 요일 3:21, 22).

(3)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10. **Q** '장대(長大)한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15-17절)

- A** (1) 이들은 가나안 본토 르바임 족속의 일원으로 거인족을 말한다(참조, 창 14:5; 15:20; 민 13:22, 28; 신 2:11).
- (2) 이들 중 다윗을 죽이려던 '이스비브눔'이 지녔던 칼의 무게는 약 3.6kg이나 되었다. 이것은 골리앗의 창무게의 꼭 절반이다(삼상 17:7).
- (3)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렇게 엄청난 힘의 소유자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후원 덕택이었다(삼상 17:45-49).
- (4)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이런 믿음의 힘 때문이다(빌 4:13; 요일 5:4).

11. **Q** '이스라엘의 등불'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17절)

- A** (1) '이스라엘의 등불'은 그의 삶과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가져왔던 다윗을 가리킨다.
- (2) 다윗이 이와 같은 명칭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성적으로 의롭고 모범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 위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대하게 생각한 것은 곧 다윗의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대상 12:23).
- (4)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근본 이유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12. **Q** 곱 전투에서 베들레헬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죽인 자는 누구인가? (19절)

- A** (1)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였다.
- (2)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아우 라흐미'라는 말이 없다. 그러므로 '가드 사람 골리앗'으로 읽어야 한다.
- (3) 이렇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기록(삼상 17:4-54)과 차이가 있다. 분명히 원문에는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4) 이것은 삼상 17:50과 대상 20:5에 비추어 볼 때 필사자(筆寫者)의 실수로 보이며 골리앗을 죽인 자는 다윗임이 분명하다.
- (5)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성경상의 조그마한 난해점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를 부정하고 공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한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어떠한 오류도 해결될 수 있다.

13. **Q** 다윗과 그 신하들의 공적(功績)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8-22절)

- A** (1) 장대한 체력을 자랑하는 블레셋 거인들은 믿음의 용사들 앞에서 모두 꺼꾸러졌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생을 반드시 꺾으시며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참조, 약 4:6).
- (3)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근원이다(고전 1:27).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일의 전투에서 자신의 지혜와 힘보다는 하나님께 삶 전체를 맡기는 자기 부정의 행위를 통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시 37:4:6).

제 22 장 구원을 감사하는 다윗의 노래

단락구분 1-7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다 / 8-16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 / 17-25 정의의 하나님을 찬송하다 / 26-28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태도 / 29-46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승리 / 47-51 결론적 찬송

1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2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3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란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4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도다

5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6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7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8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9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솟이 피었도다

10 저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둑 캄캄하다

11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12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뿔뿔한 그룹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심이여

13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솟불이 피었도다

14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여

15 살을 날려 저희를 흠오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16 이럴 때에 여호와와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 떨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17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18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19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20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도다

21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좇아 갚으셨으니

22 이는 내가 여호와와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3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4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2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26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7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28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29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30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31 하나님의 드는 완전하고 여호와와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32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노

33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은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34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5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36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은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7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38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였사오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39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40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41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쫓아 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42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43 내가 저희를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44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룸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시라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5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46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47 여호와와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8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49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50 이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51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쁨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1. ㉠ 본장의 내용은 시편의 어느 부분과 연관이 있는가?

- ㉠ (1) 본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읊었던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
 (2) 이 시는 다윗이 내우 외환(內憂外患)에서 구원을 얻은 후 7:1의 평화 기간, 즉 나단이 다녀간 후에 쓴 것 같다.
 (3) 이 찬양의 노래는 거의 시 18편과 같으며 이것은 다윗을 그의 적들과 악한 사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다윗의 응답이다.
 (4) 이 노래의 자유롭고 유쾌한 어조는 죄의 결과가 검은 구름같이 나타나기 전인 다윗 왕정 초기를 연상시킨다.
 (5)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기도로 시작하여(2-4절) 여러 가지 위협에서 구원 얻은 것을 열거하고(5-20절) 하나님의 은사는 자기의 올바른 생활 때문이며(21-30절) 자기 힘과 성공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사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31-46절) 축복한 후(47-51절) 끝을 맺는다.
 (6) 다윗의 이 노래는 곧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며 찬양의 전내용이다.

2. ㉡ '그날'이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1절)

- ㉡ (1)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즉 다윗 왕정 초기를 말한다.
 (2) 이 표제의 형식은 출 15:1; 민 21:17; 신 31:30의 역사에 삽입된 노래의 표제와 유사성을 지닌 것이다.
 (3)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수중에서 자기를 건져 주셨음을 경험했을 때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사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악의 세력과의 치열한 전투를 계속 치루어야 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입술에 끊임없는 찬양이 흘러 나오는 것은 당신의 구원과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이다(참조, 딤후 4:18).

3. ㉢ 다윗은 과거에 받은 체험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여 노래하였는가? (2, 3절)

- ㉢ (1) 반석 / 어떠한 세력의 위협에도 흔들림이 없다(마 7:24-27).

- (2) 요새 / 안전한 피난처 (삼상 22:4, 5; 23:14, 19, 29; 24:22).
- (3) 건지시는 자 / 환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하신다 (시 7:1; 31:1; 51:14; 70:5; 91:3, 14, 15).
- (4) 하나님 / 모든 능력의 원천이요 공납자 (창 1:1; 롬 11:36).
- (5) 바위 /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막 (시 71:3; 89:26; 사 32:2).
- (6) 방패 / 신자들을 원수의 화살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 (시 5:12; 엡 6:16).
- (7) 구원의 뿔 / 승리의 능력. 이 뿔은 보호와 방어용으로 쓰이는 동물의 뿔로부터 온 것이다 (눅 1:69).
- (8) 망대 / 하나님께서 깨어 지켜 주심을 의미한다 (시 61:3; 121:3-8).
- (9) 피난처 / 하나님의 품은 폭풍우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안식처이다 (시 46:1; 91:9).
- (10) 구원자 /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뜻한다 (시 68:20).

4. **㉠** 다윗은 자신의 환난과 위협의 때를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5-7절)

- ㉠** (1) 사망의 물결이 에우고 불의의 창수(漲水)가 두렵게 하고 (5절) 음부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이르렀다 (6절) 고 하였다.
- (2) 다윗은 이 같은 절박한 위협에 직면하였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다 (7절).
- (3) 그는 겁에 질린 아이가 부모에게 매어 달리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였다.
- (4)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성실하게 응답하신다 (시 50:15).

5. **㉠** 환난 중에 있던 다윗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8-16절)

- ㉠** (1) 모든 자연계를 동원하여 악인들에게 대한 당신의 분노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 (2) 즉 죄악에 대한 심판자의 위용(威容)과 진노 앞에서 하늘과 땅은 요동하고 진동하며 떨게 되었다.
- (3) 이 같은 진노는 당신의 백성들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상징한다.
- (4)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당신께 속한 한 생명을 더욱 사랑하시는 증거이다.

6. **㉠**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모든 역경에서 구원하셨다고 하였는가? (17-20절)

- ㉠** (1) 다윗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다고 하였다 (20절; 22:8; 41:11).
- (2)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는 근거는 오직 당신의 사랑이다. 즉 우리가 연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허물마저도 아름답게 보이듯이 당신은 허물 투성이인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또한 기뻐하신다.
- (3)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극한 위협과 강한 원수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17-19절) 안전한 곳 (20절) 으로 인도하신다.
- (4)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 수 1:5, 6).

7. **㉠**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1-28절)

- ㉠** (1) 다윗은 자신의 의(義)와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고 하였다 (21, 25절).
- (2)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초보 단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참조, 롬 3:24; 11:6).
- (3) 이것은 구원 이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을 주는 문제이다.
- (4)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참된 경건(약 1:27)을 이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고백(의롭게 살았다는)을 닦하지 않으신다 (행 24:16; 고후 1:12).
- (5)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의(好意)를 가질 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시기 때문이다(삼상 2:30; 15:23; 마 10:33; 눅 6:37).

8. **Q** 다윗은 누가 자기의 어둠을 밝혀 준다고 고백하였는가? (29-31절)

- A** (1)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다(29절). 왜냐하면 여호와와는 다윗에게 있어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 (2) 만약 이 등불이 꺼졌다면 다윗의 삶 속에는 황폐와 멸망밖에 없었을 것이다(참조, 욥 21:17). 그러나 이 등불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다윗은 번영할 수 있었다(30절).
- (3) 이 등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31절; 시 119:105).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기에 우리의 가야 할 목적지와 해야 할 일들을 아시며 인도하신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또한 그 자체가 능력이다(참조, 히 4:12, 13).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9. **Q** 다윗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32-46절)

- A** (1) 바로 하나님이시다(33, 40절). 다윗에게 임했던 모든 번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또한 영적인 힘은 믿음을 통해서 획득되어진 것들이다.
- (2) 다윗이 자신의 힘의 원천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합 2:4; 갈 2:20; 딤후 2:12).
- (3) 또한 시험과 공격과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기 때문이며(참조, 롬 14:4; 고후 1:24; 빌 4:1) 주의 길을 확실히 채빠르게(34절) 끈기있게(사 40:31; 고후 5:7) 걸어 나가기 때문이다.
- (4)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참조, 사 26:12; 고전 15:58).
- (5) 즉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건디도록 지지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그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참조, 시 138:3; 딤후 2:3; 히 11:27).
- (6) 그리고 용감하게 효과적으로(35절) 그의 적대자들에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 (7)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을 극복하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15:57).

10. **Q**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였는가? (47-51절)

- A** (1) 항상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며 특히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묘사하였다.
- (2) 이것은 하나님을 동적이고 성실하신 분으로 생각하여 자기 백성의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 (3) 참되고 순결한 영혼의 모든 안전은 이런 고백 속에 담겨 있다. 즉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안전함이다(롬 11:13-24).

11. **Q** 다윗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하시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열거한 후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였는가? (50절)

- A** (1) 모든 민족 중에서(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하였다.
- (2) 이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결론적으로 흘러 나온다는 것이다(참조, 시 150:6; 엡 5:19, 20; 살전 5:16-18).
- (3) 배은 망덕(背恩忘德)은 수치와 두려움에 빠지고(롬 1:21-25) 참 감사와 찬양은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함에 따라 우리는 늘 새로운 감사와 찬송을 잊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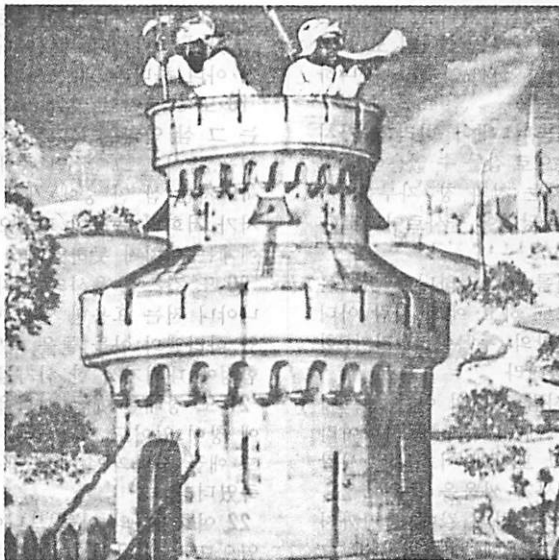
- (4) 우리가 감사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진다. 믿음이 성장한 만큼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5)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를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역설하였다(참조, 롬 15:9).

12. **Q** 다윗의 노래 중 마지막 부분은 어떠한 내용인가? (51절)

- A** (1)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쁨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이다.
- (2) 여기서 ‘그 왕’이나 ‘기쁨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다.
- (3) 다윗이 이런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가 받은 언약을 근거로 한다(7:12-16).
- (4)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義)가 되어야 한다(마 6:33).

화보자료

망대와 피수군. 아래의 그림은 「인간 구원의 거울」이라는 제목이 붙은 삽화 가운데 일부분으로서 샹티이 공테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망대는 도시, 목장, 포도원, 농장 등에 돌이나 벽돌로 세워졌으며 그 크기는 다양했다. 망대는 군사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피난처나 혹은 감시소, 방어물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능력을 높은 망대로 표현한 것이다(3절).

제 23 장 다윗의 마지막 말과

용사들의 공적

단락구분 1-7 여호와와의 언약을 확신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 / 8-12 세 용사와 그들의 공적 / 13-17 세 용사의 희생적 봉사 / 18-23 아비세와 브나야의 공적 / 24-39 30용사의 명단

1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며 높이 올린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2 여호와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울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4 저는 듣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5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6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7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 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이리로다 하니라

8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박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셀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 때에 팔백 인을 쳐 죽였더라

9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이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돌우고

10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다

11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12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

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13 또 삼십 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달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 쳤더라

14 그 때에 다윗은 산상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채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15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16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17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값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 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18 또 스쿠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저는 그 삼 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삼백 인을 죽이고 그 삼 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19 저는 삼 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라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삼 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20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찌기 모압 아리엘의 아들 들을 죽였고 또 눈 을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21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22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23 삼십 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삼 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24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삼십인 중에 하나이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한과

25 하못 사람 삼훗과 하못 사람 엘리가와

26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27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브르내와

28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래와

29 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렙과 베나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배의 아들 잇대와

30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아스 시넷가에 사는
히대와

31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
마렛과

32 사알본 사람 엘리야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
단과

33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34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배의 아들 엘리
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35 갈렙 사람 헤스래와 아랍 사람 바아래와

36 소바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37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
기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래와

38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39 옛 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삼십 칠 인
이었더라

1. ㉠ 본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 ㉠ (1) 본장과 전장은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다. 즉 전장은 다윗의 왕정 초기 범죄하기 전에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부른 노래였으나 본장은 범죄 이후 하나님의 영적 치유를 얻고 난 뒤 그의 왕정 말기에 부른 노래와 그 부록이다.
- (2) 다윗이 부른 노래의 내용은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미래적 통치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관해 묘사하고 있다.
- (3) 그리고 부록(附錄)으로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과 그들의 무용담(武勇談)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행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첨가되었다.
- (4)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말한다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연히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 맥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2. ㉠ 본장의 초두(初頭)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었는가? (1절)

- ㉠ (1)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고 시작하였다.
- (2) 이것은 의로우신 통치자요 언약의 보존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마지막 공식적인 말이라는 뜻이다.
- (3)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마지막 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4)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3. ㉠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1, 2절)

- ㉠ (1)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이세의 아들', '높이 올린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라고 소개하였다.
- (2) 그가 이처럼 장황하게 자기를 소개한 이유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신을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이다.
- (3)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베푸시어 그의 일생 동안 풍성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임재를 깨닫게 하심을 알고 있다.
- (4) 더우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신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참조, 마1:1).
- (5)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신다.

4. ㉠ '이스라엘의 바위'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3절)

- ㉠ (1)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의해서만 보증된다는 사실을 지적키 위해 이 말을 사용하였다.
-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모두 성취하신다. 그러므로 하나

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그분의 성실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

5. **㉠**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누구인가? (3절)

- ㉠** (1)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다윗 자신을 가리킨다.
 (2) 더우기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전인류를 다스리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명칭이기도 하다(참조, 시 2:1, 2; 겔 34:23, 24).
 (3)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공물을 입어야 할 죄인이었으나(시 51:1-19)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공물을 입히는 분이셨다(롬 5:17-19).

6. **㉠**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4절)

- ㉠** (1) 들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고 하였다.
 (2) 여기서 태양은 빛과 열과 힘의 원천이며, 또한 생명과 건강과 생산과 아름다움과 기쁨의 원천이다.
 (3) 그 막강한 에너지 앞에 가게 되면 모든 물질이 변하게 되듯이 의(義)의 태양이 떠오를 때 도덕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사 60:2; 말 4:2).
 (4)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신 분의 모습을 띠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아침과 같이 빛을 주신다(참조, 눅 1:68-79).

7. **㉠**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5절)

- ㉠** (1) 다윗의 집과 나라가 다윗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이다(7:12-16).
 (2)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다.
 (3)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비록 일시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약속대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

8. **㉠** '사악(邪惡)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6, 7절)

- ㉠** (1)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거부하는 불경건한 자들을 가리킨다.
 (2)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거스리는 자들의 멸망을 예고하는 예언이기도 하다.
 (3)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며 거침들이 되곤 한다.
 (4)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쳐부수고 자기 나라를 세울 때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사 27:4).

9. **㉠**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준 세 용사는 누구인가? (8-12절)

- ㉠** (1) 다그몬 사람 요셉밧세벳과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과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였다(참조, 대상 11:10-19).
 (2) 이들이 무찌른 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블레셋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였다.
 (3) 이런 면으로 볼 때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의로운 병기였다.
 (4)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도구로서 맡은 바를 충실히 감당한다는 것이다.

10. **㉠** 다윗의 세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12절)

- ㉠** (1) 그들의 승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2) 육체적인 힘이 아무리 강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수행할 수 없으며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용맹과 모든 은사는 가난한 사람에게 거만하게 그리고 압박

아들 이라와

27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므분내와

28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래와

29 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렙과 베나민

자손에 속한 기브야 사람 리배의 아들 잇대와

30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아스 시냇가에 사

는 잇대와

31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

마윗과

32 사알본 사람 엘리야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

단과

33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람의 아들

아히암과

34 마이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배의 아들 엘리

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35 갈멜 사람 헤스래와 아람 사람 바아래와

36 소베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37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

기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래와

38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39 헛 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삼십 칠 인

이었더라

1. ㉠ 본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 ㉠ (1) 본장과 전장은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다. 즉 전장은 다윗의 왕정 초기 범죄하기 전에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부른 노래였으나 본장은 범죄 이후 하나님의 영적 치유를 얻고 난 뒤 그의 왕정 말기에 부른 노래와 그 부록이다.
- (2) 다윗이 부른 노래의 내용은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미래적 통치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관해 묘사하고 있다.
- (3) 그리고 부록(附錄)으로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과 그들의 무용담(武勇談)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행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첨가되었다.
- (4)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말한다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연히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 맥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2. ㉠ 본장의 초두(初頭)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었는가? (1절)

- ㉠ (1)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하였다.
- (2) 이것은 의로우신 통치자요 언약의 보존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마지막 공식적인 말이라는 뜻이다.
- (3)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마지막 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4)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3. ㉠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1, 2절)

- ㉠ (1)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이세의 아들', '높이 올린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하였다.
- (2) 그가 이처럼 장황하게 자기를 소개한 이유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신들이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이다.
- (3)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베푸시어 그의 일생 동안 풍성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임재를 깨닫게 하심을 알고 있다.
- (4) 더우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신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참조, 마 1:1).
- (5)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신다.

4. ㉠ '이스라엘의 바위'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3절)

- ㉠ (1)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의해서만 보증된다는 사실을 지적키 위해 이 말을 사용하였다.
-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모두 성취하신다. 그러므로 하나

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그분의 성질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

5. Q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누구인가? (3절)

A (1)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다윗 자신을 가리킨다.

(2) 더우기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전인류를 다스리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명칭이기도 하다(참조, 사2:1, 2; 겔 34:23, 24).

(3)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죄인이었으나(시 51:1-19)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긍휼을 입히는 분이셨다(롬 5:17-19).

6. Q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4절)

A (1)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고 하였다.

(2) 여기서 태양은 빛과 열과 힘의 원천이며 또한 생명과 건강과 생산과 아름다움과 기쁨의 원천이다.

(3) 그 막강한 에너지 앞에 가게 되면 모든 물질이 변하게 되듯이 의(義)의 태양이 떠오를 때 도덕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사 60:2; 말 4:2).

(4)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신 분의 모습을 띠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아침과 같이 빛을 주신다(참조, 눅 1:68-79).

7. Q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5절)

A (1) 다윗의 집과 나라가 다윗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이다(7:12-16).

(2)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다.

(3)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비록 일시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약속대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

8. Q '사악(邪惡)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6, 7절)

A (1)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거부하는 불경건한 자들을 가리킨다.

(2)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거스리는 자들의 멸망을 예고하는 예언이기도 하다.

(3)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며 거침돌이 되곤 한다.

(4)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쳐부수고 자기 나라를 세울 때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사 27:4).

9. Q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준 세 용사는 누구인가? (8-12절)

A (1) 다고몬 사람 요셉박세벳과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과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였다(참조, 대상 11:10-19).

(2) 이들이 무찌른 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블레셋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였다.

(3) 이런 면으로 볼 때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의로운 병기였다.

(4)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도구로서 맡은 바를 충실히 감당한다는 것이다.

10. Q 다윗의 세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12절)

A (1) 그들의 승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2) 육체적인 힘이 아무리 강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수행할 수 없으며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용맹과 모든 은사는 가난한 사람에게 거만하게 그리고 압박

하는데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오직 하나님과 이웃에 봉사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참조, 마20:28; 막10:45).

11. **㉠** 블레셋 수중(手中)에 있던 베들레헬 성문 결 우물물을 길어 왔던 세 용사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3-17절)

- ㉠** (1) 이들의 행동은 완전한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자기들의 멸망과 위험을 무릎쓰고 생명까지 지도자를 위해 기꺼이 바쳤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참조, 요 15:13).
- (2) 순수한 사랑의 크기는 그 자체에 내재하여 그것의 표현에 있어서 주위 환경에 상관하지 않는다(참조, 마 26:7-13).
- (3) 이 세 용사의 공훈은 인간 다윗에게 바쳐진 희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매개로 하여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에게 바쳐진 희생이었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 바쳐진 희생이었다(대상 12:18, 22, 23).
- (4)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히 12:2) 우리들도 이들처럼 열렬하고 충성스러우며 용기 있고 자기 희생적이 될 때(참조, 고전 4:2) 우리는 적들을 얼마든지 격파시킬 수 있을 것이다(빌 4:13).

12. **㉠** 다윗은 세 용사가 길어 왔던 베들레헬 우물물을 어떻게 하였는가? (16, 17절)

- ㉠** (1) 다윗은 그 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전제(奠祭)로 드렸다(16절).
- (2) 즉 이들의 충성과 희생에 감동된 다윗은 그 물을 그들의 피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다(17절).
- (3) 히브리인들에게 피는 생명의 요소를 함축한 것이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어 드려야 하고 이를 결코 허비해서는 안 된다(신 12:23-27).
- (4) 이처럼 다윗이 부하들의 희생의 물마저 귀하게 여겼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와 물을 쏟아 부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참조, 마 26:27, 28; 고전 11:25-27).

13. **㉠** 다윗의 용사들 중 제 2급에 속한 자들은 누구인가? (18-23절)

- ㉠** (1)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인데 그는 알려져 있지 않다.
- (2) 본서의 기자는 그중 두 사람의 용맹에 대해서만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 (3) 비록 그들은 제 2급의 취급을 받았지만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다.
- (4)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지혜와 재능을 따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업신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 (5)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생활로 나타낸 일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결산 때에 슬피 울며 후회할 것이다(참조, 마 25:1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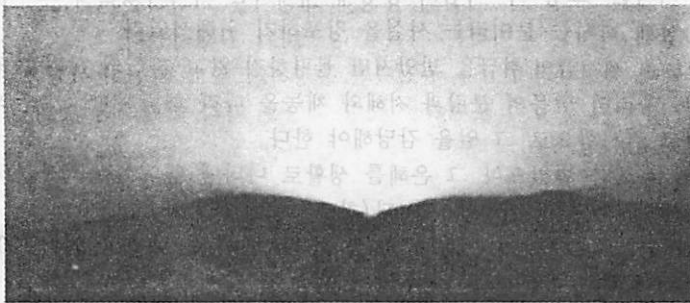
14. **㉠**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루어 놓은 공적(功績)은 무엇인가? (20-23절)

- ㉠** (1) 두 사람의 모압인 용사(8:2)와 함청에 빠진 사자와 거인이었던 애굽 사람을 죽였다.
- (2) 브나야가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절대적인 방해군들이었다.
- (3) 우리의 싸움의 대상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항하는 자들이다(엡 6:12). 이들은 매우 강력한 세력으로서 우리를 위협한다(참조, 벰전 5:8).
- (4)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서 활동하시며 승리케 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요 16:33; 롬 8:31-39).

15. **㉠** 다윗의 주위에는 지도자급인 6명의 장군들을 제외하고 항상 몇 명의 호위병들이 있었는가? (24-39절)
- ㉠** (1) 30명의 무인(武人)들이 다윗 주위에 있었다(24절). 그들 중 유고(有故)가 생길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 보충되어 활동 수자는 늘 30인으로 유지되었다.
- (2) 그러므로 용사들의 목록(24-39절)에는 30인 이상의 이름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수자는 대상 11:26-47에 나오는 용사들의 수차보다 훨씬 적다. 그 이유는 역대기 저자가 나중에 용사된 자들의 명단까지 모두 합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3) 다윗의 용사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망라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이방 출신까지(35, 37, 39절) 섞여 있었다. 그들은 제각기 특유한 성격과 업적을 갖고 있었다.
- (4) 그러나 왕에 대한 충성심과 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용감성은 한결 같았다.
- (5) 이처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출신과 성격과 외모와 직업이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한 가족이다(참조, 고전 12:27).
16. **㉠** 다윗 주위에서 큰 공적을 올렸던 다윗의 용사들은 모두 몇 명인가? (39절)
- ㉠** (1) 도합 37명이다.
- (2) 이것은 다윗을 위해 제일 많은 공적을 올렸던 3명의 용사(8-12절)와 제 2급의 3용사(18-23절) 그리고 31명의 전사들(24-39절)을 말한다.
- (3) 이들은 모두 다윗과 함께 고난과 역경에 동참했으며 또한 다윗과 함께 영광을 누렸다.
- (4)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도 최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참조, 딤후 2:10).
- (5)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다(참조, 마 5:11, 12).

화보자료

돋는 해. 아래의 사진은 헤르몬 산(Mt. Hermon)에서 해가 돋는 풍경으로서 장엄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본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돋는 해 아침 빛으로 묘사하였다(4절). 성경은 다윗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 광명에 이른다고 하였다(잠 4:18).

제 24 장 인구 조사와 역병(疫病)

단락구분 1-9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 인구 조사를 실시하다 / 10-14 다윗의 참회와 갖에 의해 선고된 하나님의 형벌 / 15-17 3일간의 온역(瘟疫)과 다윗의 회개 / 18-25 다윗이 올린 제사로 재앙이 멈추다

1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2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3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4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5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6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혹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7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 세바에 이르니라

8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팔십 만이요 유다 사람이 오십 만이었던라

10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1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2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로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13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칠 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이까 혹시 왕의 땅에 삼 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14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와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15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칠만 인이라

16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와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17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삽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18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19 다윗이 여호와와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20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음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21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네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22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종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뿔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23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4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오십 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25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1. ㉠ 본장에 언급된 중요한 사건을 요약하라.

- ㉠ (1)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유혹받게 하시어 그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하셨다.
 (2)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역병(疫病)을 내리시어 무려 7만 명의 희생자가 속출되게 하셨다.
 (3) 그러나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합3:2) 선지자 갓의 입을 통하여 사죄(赦罪)의 길을 제시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잠식해 가던 역병은 다윗의 참회 기도를 시발점으로 사라지게 하셨다.
 (4)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사악한 민족적 영광과 야망 그리고 통치자의 자기 영광을 구하는 행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5)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흐름에서 계속 반복되는 교훈이었으며 현재까지의 모든 나라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다.

2.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이스라엘 내에 잠재해 있는 죄악 때문이다(참조, 21:1-14).
 (2) 이 죄악을 뚜렷이 지적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다윗의 정부에 반대했던 압살롬(15:12)과 세바(20:1, 2)의 반란을 가리키는 것 같다. 어쨌든 이번 재앙의 원인은 과거의 기근 재앙(21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잘못 때문이었다.
 (3)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랑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참조, 민6:24-26).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화(禍)와 저주로 변화시켜 버린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휘두르실 때 우리의 입술에 불평을 담기보다는 자신을 살피 겸손히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서 '감동시키다'는 말은 '자극시키다'는 의미이다.
 (2) 그러나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도록 실제로 자극한 것은 사단이었다(참조, 대상21:1-4).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악한 계획을 그대로 방임하셨던 것이다.
 (3) 즉 이스라엘 내에 있는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된 생각을 내버려 두셨다.
 (4) 이처럼 악행이든 선행이든 일체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주관에 속하여 진행된다(참조, 암3:6). 참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참조, 행17:24).

4. ㉠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인구 조사를 명령하였는가? (2-9절)

- ㉠ (1)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군사력, 즉 유사시 병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 병력을 파악하여서 그 힘을 과시하며 스스로 위로를 얻으려 하였다.
 (2) 다윗의 마음은 전쟁을 벌이고 싶은 욕구와 승전에 대한 교만과 팽배하는 야망 및 타민족의 여러 권리에 대한 경시로 이미 끓아 있었다.
 (3)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힘이 강해질 때 거기에 대한 감사와 만족보다는 끊임없는 욕망과 자기 과시욕으로 치달곤 한다.
 (4)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끊임없는 욕망과 자기 과시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파괴가 거듭되었는지 모른다.

5. **㉠** 요압은 다윗의 인구 조사 명령에 대하여 어떠한 반론(反論)을 제기하였는가? (3절)
- ㉠** (1) 요압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문과 백성에게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게 하실터인데 당신은 군사적인 힘을 자랑하려고 한다’고 책망하였다.
- (2) 즉 요압은 다윗에게 있는 안목(眼目)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꼬집어 책망하였던 것이다.
- (3)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제공한 것이었다(참조, 요일 2:16).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의(義)를 추구하는 자들은 항상 사단의 세력권 아래 있게 된다.
6. **㉠** 다윗이 명령했던 인구 조사는 며칠 동안 실시되었는가? (4-8절)
- ㉠** (1) 아홉 달 20일 동안 실시되었다(8절).
- (2) 인구 조사팀은 먼저 요단 동쪽부터 시작하였고(5절) 그 다음은 북쪽의 단으로 향하였고(6절) 다시 동편의 두로로(7절) 거기서 또 남쪽의 브엘세바로 향하였다(7절).
- (3) 이처럼 이 인구 조사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었다.
- (4) 다윗은 개인의 영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였을 뿐 아니라 나라의 재정과 인력을 허비하였던 것이다.
- (5) 오늘날도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 중에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과 교회를 좀먹고 있는 자들이 허다하다. 이것은 결국 자신과 공동체의 파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7. **㉠** 인구 조사 결과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들의 수자는 얼마나 되었는가? (9절)
- ㉠** (1) 병역을 담당할 자들(20세 이상)은 이스라엘에서 80만 명이며 유다에는 50만 명으로 도합 130만 명이었다.
- (2) 그런데 이 수자는 대상 21:5과 많은 차이가 있다. 즉 거기에는 ‘이스라엘 중에 칼을 썰만한 자가 110만이고 유다 중에 칼을 썰만한 자가 47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3) 이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는 먼저 역대기의 수자가 각 성읍들과 마을들의 사적인 명단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본질의 수자는 공적인 문서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있다.
- (4) 반면에 어떤 학자는 이 80만 명은 대상 27장에 기록된 30만 명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고 유다의 47만 명은 6:1의 3만 명을 포함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 (5) 여하튼 다윗은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에 기세가 등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이다(사 2:22).
8. **㉠** 다윗의 마음에 자책(自責)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다윗은 인구 조사의 동기가 교만과 자기 세력의 과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2)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은 약 10개월이 지난 후였다(8절). 다윗에게 있어서 10개월의 기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암흑의 기간이었다(참조, 롬 8:7, 8).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에 양심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허물과 죄를 자각(自覺)하게 하신다(참조, 눅 15:17).
- (4) 이러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기까지는 진정한 평화가 그 마음속에 내재할 수 없다.
- (5) 그러므로 죄에 대한 자각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작용한다는 좋은 표시이며 회개와 개혁을 향한 디딤돌이다.
9. **㉠**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11-17절)
- ㉠** (1) 다윗과 백성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11, 12절).
- (2) 또한 갓이 방문하게 된 이유는 징벌 후 내리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전달하는 데 있었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당신의 백성에게 형벌내리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고 용서와 사랑 베푸시기를 더욱 원하시는 분이다(참조, 렘 30:11).

(4) 결국 다윗은 회개의 밤(10절)이 지난 후에 긍휼의 아침(11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10. **㉠** 다윗이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징벌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11-17절)

㉠ (1) 그것은 7년의 기근과 3달의 전쟁 그리고 3일의 온역(瘟疫)이었다.

(2) 이 세 가지는 전부가 한 민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심판이었다.

(3)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다윗에게 주셨다. 그러나 이 자유(선택권)는 기쁨이 되지 못했다(참조, 렘 15:2; 34:17).

(4) 이와 같이 죄인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그 자체가 죄악 가운데 속한 것이기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되지 못한다.

11. **㉠** 다윗은 갖이 제시했던 3가지 재앙 중에 무엇을 선택하였는가? (13-17절)

㉠ (1) 다윗은 어떤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였다.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였다.

(2) 이것은 초월적인 왕이요 심판관이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태도였다.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뜻을 포기하였다(시 131편).

(3) 회개한 다윗은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확신하였기에 감히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내어 던졌던 것이다.

(4) 이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받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동반한 해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만족스럽고 복된 열매를 가져온다(시 37:5; 잠 16:3).

(5)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보다 더 좋은 피난처가 어디 있을까? (시 90:1; 91:1-16).

12. **㉠**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위에 어떤 징벌을 내리셨는가? (15절)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의 온역을 내리셔서 7만 명을 죽이셨다.

(2) 이토록 짧은 시간에 7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민족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바로 가차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확연히 보여 준다.

(3) 이러한 인명의 손실로 다윗이 자랑하던 군대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4) 이것은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다.

13. **㉠** 하나님께서 '누우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6절)

㉠ (1) 이런 표현은 신인동형동성론(神人同形同性論)이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용어로 표현하거나 인간의 속성을 지닌 것처럼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참조, 창 6:6).

(2)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 방법만을 변경시켰을 뿐이다.

(3) 즉 죽음의 심판을 변경시켜 긍휼을 덧입히신 것이다. 이 긍휼은 심판을 대치할 만한 자격이 있다(참조, 약 2:13).

14. **㉠** 온역이 전국에 만연하자 다윗은 어떤 내용의 중보 기도를 하였는가? (17절)

㉠ (1) 다윗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양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저와 제 집안을 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다.

(2)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백성들을 징벌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였다. 즉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엄한 반면 백성들의 죄는 경감시키려고 하였다.

(3)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참조, 눅 15:10).

15. **㉠**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는 다윗에게 용서의 길로 무엇을 제시하였는가? (18-25절)

㉠ (1)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하였다(18절).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다윗과 더불어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다(참조, 삿 21:4).

- (3) 다윗이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는(25절) 하나님께 헌신한 것과 하나님과 화목함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에 대한 예표이다(참조, 엡 5:2).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 1 세사(롬 12:1)를 드리라고 권면하신 것은 그가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위로의 증거이다.

16. **Q** '아라우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8-24절)

- A** (1) 예루살렘에서 거주한 옛 여부스 사람(5:6) 중 하나로서 이방인이었다.
- (2) 그는 모리아 산(당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음)에 타작 마당을 갖고 있으면서 4명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부자였다(대상 21:20).
- (3)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으나 경건하여 제사의 제물에 필요한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다(22, 23절).
- (4) 이것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에 버금가는 일이다(막 14:3).
- (5) 이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며 가난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된다(마 25:40).

17. **Q**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얼마를 주고 구입하였는가? (24절)

- A** (1) 은 오십 세겔(570g)로 타작 마당과 제물될 소를 샀다.
- (2) 그런데 대상 21:25에는 그가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6,840g)을 오르난(아리우나)에게 지불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후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토지 전체를 사들인 것을 말했을 것이다(참조, 대상 22:1; 대하 3:1).
- (3) 사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쌓은 제단은 애초 단 한번의 제사를 위해서 급히 축조되었던 조그마한 제단이었기에 은 오십 세겔은 보상금으로 충분한 액수였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후에 솔로몬이 성전울 건축한 성별된 장소가 되었다(대하 3:1).
- (4) 이처럼 성역(聖域)이 될 부지를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다(참조, 출 34:20; 레 22:21, 25; 신 16:17).
- (5) 이것은 값싼 은혜와 노력 없는 신앙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일이다.
- (6) 우리가 재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재물을 소유한단 말인가? 재물을 이보다 더 선용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본장의 요절

'다윗이 깃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14절).

저자 소개

강병도 목사는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신학교(제 13회, 1959년)를 졸업한 후 30여년간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개혁주의적 목회의 일환으로 평신도 성경 공부에 관심을 쏟던 중 그간의 성경 연구 자료를 정리한 「성경 문답식 강해」(1973년)를 펴내어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초기에 4권으로 시작되었던 이 책이 독자의 호응에 힘입어 3년 사이에 6권으로 불어났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바쁜 목회생활 중에 기존 저술의 보완 작업을 쉬지 않던 그는 이제 「QA시스템 성경 연구 시리즈」 전 15권의 저술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현재 자신이 개척한 부산 동래 성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회사 발행인으로서 저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성경 문답식 강해 증보판—

QA시스템 성경연구시리즈 ③ 여호수아—사무엘하

1999년 4월 10일 인쇄

1999년 4월 20일 발행

저 자/강 병 도
발행인/강 병 도
대 표/강 도 환
발행처/기 독 지 혜 사

등록/제 16-267호(89.7.21)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28

전화/568-8122, 1361~2

FAX/553-4830

정가 19,000원